

두레방상담사례집

아메리칸 앨리의 여성들



한국기독교장로회여성신도회
전국연합회특수선교센터 **두레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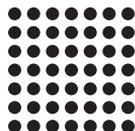
두레방상담시례집 **아메리칸 앨리의 여성들**



여는 글 “시장-안보, 국가” 시대와 한국의 기지촌 성산업 _ 정희진
대 화 기지촌에 대한 짧은 개인적 에세이 _ 김유니

제1부 한국에서 겪은 나의 잊을 수 없는 경험
제2부 아메리칸 앨리에서 그녀들을 만나다
제3부 새 땅을 찾아온 여성들, 그리고 ...

편집후기



여는 글

‘시장-안보 국가’ 시대와 한국의 기지촌 성산업

정희진 각주1)

지역적 실천이 곧 지구적 실천

이 짧은 글의 목적은, 본 자료집에 실린 여성들의 다양한 목소리에 대해 ‘구조적 배경’ 이나 ‘이론’ 을 제공하려는 것이 아니다. 다른 식으로 말한다면, 이 글 역시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다만, 현재의 상황을 ‘글로벌 군사화(global militarization)’ 라고 보고, 몇 가지 담론 지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글로벌 군사화가 ‘지구적 차원’ 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보편적이고 불가피한 질서가 아니라, 한국사회의 실천에 따라 변화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이 글은 지구화 시대 시민운동의 구호로 익숙한,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실천하라(Act locally, Think globally)” 언설에 대해 비판적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여전히 지역과 지구, 특수와 보편, 부분과 전체의 구분이 가능하다는 관념을 전제한다. 그리고 전자(지역, 특수, 부분...)는 후자의 산물이라는 인과적, 결정주의적, 위계적 사고를 함의하고 있다.

한국 기지촌 성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다국적화는, 맨하탄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전지구적 자본주의화의 영향 때문인가? 한국의 기지촌 경제는 펜타곤의 세계 전략과 동아시아 전략에 따라 그 성쇠가 결정되는가? 한미동맹 혹은 한국 기지촌의 변화를 설명할 때

1. <페미니즘의 도전> 등의 저자이며, <한국여성인권운동사>를 편저하면서 “한국기지촌여성운동사, 1986-1988”를 썼다. tobrazil@naver.com

‘원인’으로 거론되는 ‘국제정치’는 그 결정적 요인일 수도 있고, 부분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무관할 수도 있다. 내가 글의 서두에 이렇게 장황한 토를 다는 것은, 이 글이 혹시라도 국제정치든 페미니즘이든 어떤 ‘이론’에 따른 “현장 여성들의 사례 분석”으로 읽혀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사실, 이것은 긴 설명이 필요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흔히 국제정치라고 부르는 담론들은 현실의 사족(혹은 ‘왜곡’), ‘무관한 이야기’, ‘일부 남성들의 환상과 공포 ...’)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한국 기지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변화들은, 지역의 역사적 배경, 상황, 조건에 따라 매우 다르다. 지역의 변화는 국가, 국제로 대변되는 ‘전체’의 영향을 받는다고보다 우리의 실천과 사유에 더 많이 좌우된다. ‘우리’는 ‘종속 변수’가 아니라 ‘독립 변수’다.

글로벌 군사화 - 지구화와 국가주의의 동시 강화

많은 이들이 1980년대 이후 탈냉전이, 탈군사화로 이어질 것을 기대했지만 그러한 희망은 정말 단순한 것이었다. 미소 대립의 종식은 군사적 대립의 해소가 아니라, 국제사회 게임의 법칙이 시장질서 하나로 단일화된, 자본주의의 거침없는 질주로 연결되었다. 사회주의권의 해체로 가시적인 적이 사라진지 10년이 지난 2000년에도, 미국의 국방예산은 2,680억 달러로 러시아의 4배, 중국의 8배였다. 제국 시대 미국은 최소한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지구 전체를 관할할 수 있는 유일한 폭력 주체가 되었다. 군사적인 면에 관한 한, 미국은 곧 글로벌을 의미한다. 지금 지구상에 미국의 전력(戰力)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다. 9.11 사건으로 막대한 국방비 지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얻은 미국은, 지구상에서 분쟁이 동시에 두 곳 이상에서 발발하더라도 모두 승리할 수 있는, 이른바 양대(兩大) 전쟁 전략(win-win)을 구사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군을 특정한 국가에 불박이로 주둔시키지 않고, 언제든 어디서든 출동 태세를 갖춰 신속하게 전쟁을 치르고 “동시에” 승리하겠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이 전략의 일환으로 부시 前대통령은 2000년 당선되자마자 ‘해외 주둔 미군 재배치 계획(Global Defense Posture Review, GPR)’을 추진했는데, 이것이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strategic flexibility)’이다. GPR의 핵심은 미군은 더 이상 하나의 전장에 머물며 싸우는 것(fight in place)이 아니라, 주둔 기지에서 떨어진 곳이라도 언제든지 전투력을 파견(to project power into theaters)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군대의 신속한 이동과 배치다.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 한미동맹의 재편은 불가피하다. 주한미군의 용산에서 평택으로의 이동도, 미군이 유연하게 투입, 이동, 철수할 수 있도록(to move smoothly into, through, and out of host nations) 항구를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 즉, 미국은 주한미군을 對북한 관리를 위한 주둔군이 아니라, 한국을 편리한 기항지로 삼으면서 동아시아 전역을 들락거릴 수 있는 미 기동군의 국제적인 병참 기지로 만들고자 한다. 미국은 이러한 자국의 세계 전략에 한국을 동참 시키기 위해, 전시 군 작전권 이양, 주한미군의 자유로운 이동, 한국군 ‘현대화(최신 무기 구입과 방위비 분담금 증액)’를 요구하고 있다.

글로벌 군사화의 주된 특징은, 언뜻 모순적으로 보이는 국가주의와 세계화를 동시에 강화하는 것이다. 그것은 미국 중심의 지구화와 자본 중심의 국가주의가, 모순 없이 작동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세계는 자본, 배타적 정체성, 군사주의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작동하는 ‘시장-안보 국가(market-security state)’ 체제로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다. 나는 이를 기존의 근대국민국가와는 다른 국제 질서인, 후기 국민 국가(post nation-state)시대라고 본다. 물론, 국민국가(지역)와 세계의 구분은 점점 사라지거나 매우 얽어지고 있다. 자본 축적을 통한 교통과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은 공간적, 시간적 거리를 단축시켰다. 세계 거대도시들 사이의 관계가, 각국의 국내 내부 지역끼리의 관계보다 이동 시간, 의식, 문화 등의 면에서 더욱 가까워지는 ‘지리의 종말’을 맞고 있다. 자본과 미디어의 발달에 힘입어 국민국가적, 민족적, 문화적 귀속을 기초로 한 기존의 경계는 거세게 도전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목도하듯이, 국경은 흐려졌거나 제거된 것이라기보다는 개인이 가진 인종, 국적, 언어, 성별, 나이, 계급 등의 자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국경을 넘을 때 어떤 사람은 ‘글로벌 시티즌’으로 대접받지만, 어떤 사람은 난민, 불법 체류자, 학대받는 이주 노동자가 된다. 후자는 전자에 비해 압도적인 다수이고

현실이지만, 미디어에서 주로 재현되고 세계화의 환상을 주도하는 사람들은 글로벌 시티즌이다. 대다수 지구 시민들은 자신의 처지와 정반대로 '글로벌 시티즌'에 자신을 동일시하고 욕망하도록 강제하는 세계에 살고 있다.

'미군은 한국을 지키고, 이주여성은 미군을 지킨다'

이처럼 문제는 이 시대에 국경을 유동시키는 존재는 누구이고 무엇이며, 이는 '송출국(sending country)'과 '수입국(receiving country)' 사회 양자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그리고 그 변화의 정치적 의미는 무엇인가에 있다. 거칠게 요약하면, 서구에서 시작된 자본주의 발전이 세계화('1차')되었던 산업 자본주의 시대에, '비서구'에서 '서구'로 강제로 이동한 것은 금, 석탄, 노예, 영토 등 가시적이고 직접적인 약탈 자원이었다. 반면, 80년대 후반 사회주의 블록 해체 후 본격화된 자본주의의 세계화('2차')에서, 남반부에서 북반부로 주로 '자발적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은 이주 노동자이고 이들 대다수는 여성이다("이주의 여성화"). 지금 전세계적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은 여성들의 감정노동, 보살핌 노동, 성애화된(sexualized) 노동이다.

북반부 국가 내부의 일부 여성의 지위 '향상'(즉, 여성과 여성 간의 빈부 격차 심화)과 서비스 산업의 발달은, 기존에 자국 내 여성들이 담당해왔던 주변화된 '여성 직종' 분야를 보다 싼 임금의 이주 여성노동자로 대체시키고 있다. 일반적으로 성별 분업은, 여성은 주로 가사 노동과 같은 '사적' 영역의 일에, 남성은 '공적' 영역의 일에 종사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이러한 인식은 이데올로기 일 뿐 실체가 아니다. 성별 분업은 '분업'이 아니라 여성의 이중 노동이다. 즉, 대다수 여성들은 공/사 영역 전반에 걸쳐 일한다. 하지만, 모든 남성이 공적 영역에서 일하는 것은 아니며, 임금 노동 시장에서 밀려난 남성들은 사적 영역에서 노동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더욱 강하다.

생산, 재생산 노동을 모두 감당하는 여성의 노동력은 한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삶을 가능케 하는 근간을 이룬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향상될수록 이 노동은 남성

과 분담되기보다는, 여성들 사이의 계급, 인종, 나이 등의 위계에 따라 여성들 내부에서 '전개' 된다.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 여성들 역시 공장노동과 같은 전통적인 제조업부터, 음식 서비스 산업, 가사노동자(domestic worker), 아내, 농업 노동자, 한국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의 해결자, 성산업에 이르기까지 기존 국내 여성들이 담당해왔던 저임금, 비공식, 비가시화된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

한국의 기지촌은 매우 독특한 현상이다. 기지촌 지역민인 미군남성-이주여성-한국여성-한국남성 사이의 인종, 성별, 계급적 위계와 관계의 복잡성은, 과거 불평등한 한미동맹의 부산물로 여겨졌던 “군대 성매매”라는 개념만으로는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일국 내 문제로서 성매매는 기본적으로 젠더 권력 관계의 문제지만, 지구화는 성매매를 인종과 계급 문제로 다원화시켰다. 1945년 미군 주둔과 함께 시작된 한국의 기지촌 성매매는 1986년 기지촌 여성운동 단체 두레방이 설립되면서 본격적으로 여성운동의 의제가 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난 25여 년 동안 기지촌 성매매에 대한 한국사회의 논쟁은 기지촌 성매매가, “민족 모순으로 인한 것이냐, 성 모순으로 인한 것이냐”에 머물러 있었다. 민족 모순인가 성모순인가의 논쟁 구도는 이미 여성은 민족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을 의미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은 여성운동을 포함, 여전히 한국사회에 만연해 있다. 그리고 이는 기본적으로, 기지촌 성산업을 문제화할 때 성매매라는 성차(별) 문제보다는, 성산업 고객이 한국 남성이나 외국인이나에 더 주목하는 대단히 남성중심적인 시각이다. 한국남성이 고객인 ‘일반’ 성산업을 사회문제가 아니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지금 이러한 논쟁은 거의 무의미하다. 글로벌라이제이션 시대, 국가간 교류의 증가와 노동력 이주는 한국의 기지촌을 기존과는 다른 성격의 공간으로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기지촌은 비극적 민족사, 자존심과 수치, 한국 남성의 성적 트라우마, 깨어있는 망각의 장소를 상징하는 곳이 아니라, 국제적인 성매매 공간이자 결혼 시장이 되었다. 지금 한국의 기지촌 여성운동은 주로 “미군 대 이주 여성”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인종, 계급, 성별 갈등에, ‘제 3자’ 로서 혹은 ‘가해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혹은 미국의

보호(“미국의 혜택”) 혹은 점령(“미국의 억압”) 하에 있는 기지 ‘제공국’ 국민이라는 복잡한 위치에서 개입하게 되었다.

한국의 ‘국력 신장’ 과 기지촌 여성운동

1980년대 이후 기지촌 여성운동은, 여성주의와 민족주의/통일운동 진영 사이에서 많은 혼란과 갈등을 겪어왔다. ‘기지촌 여성’은 민족 피해의 상징으로서 민족주의 운동에 동원 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기지촌 여성들은 어느 정치 세력보다도 투철하게 반미, 반군사주의 운동의 선두에 서기도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여성의 피해 상황(여성의 몸)이 사회운동의 도구로 반복 재현되는 문제, 사회운동 내부의 성차별과 성별 분업, 여성의 인권보다는 (남성 중심의)공동체의 명예가 더 중요하게 부각되는 등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간단히 말해, 기지촌 여성운동의 헌신과 그 성과가 기지촌 여성의 이해로 귀결되지 않았던 것이다. 논의 구도 자체가 ‘민족 과 젠더’를 대립적, 배타적 경계로 보고, 무엇이 더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가를 중심으로 논쟁이 진행되어 왔다. 기지촌 여성운동의 전개 과정에서 여성주의와 민족주의의 갈등은 다음의 두 가지 인식을 전제한 것이다. 한국은 미국에 종속되어 있으며, 여성과 남성은 모두 같은 한국인으로서 동일한 이해관계를 갖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위 ‘87체제’ 이후 한국의 민주화와 급격한 경제 성장은 미국과 새로운 관계 정립을 요구하게 되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군의 장기 주둔은 한국이 강대국의 피보호국, 미(未)독립국이라는 현실적 근거였고, 미군의 남성성에 위압당한 여성화된 존재로서 한국 남성의 심리적 외상을 상징했다. 그러나 지금 기지촌 성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95%는 아주 여성이다. 이제 한국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여성화되거나 한국 여성을 매개하지 않아도 될 만큼 성장했다. 한미관계는 점차 ‘남성 대 남성’의 관계가 되어가고 있다. 더구나, 한국의 정치 및 이념, 문화는 아직 제국주의에 ‘적합’하지 않지만, 한국 경제는 이미 제국주의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한국 경제는 외부 시장이 있어야만 자원과 고용, 외부 시장을 원활히 해결할 수 있을 정도로 내부 불균형이 커진 상태다. 간단한 문

제는 아니지만, 북한은 아마 가장 적합한 외부 시장(‘식민지’)이 될지 모른다. 한국 자본주의는 ‘식민지’를 필요로 하는 제국주의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단독으로 제국주의를 구현할 수는 없기 때문에, 미국의 협조를 얻어(?) ‘사실상의 제국주의 국가’로 행세하고 싶어한다. 이런 점에서 현재 한국은 식민지의 특징과 제국의 특징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라크 파병은 한국 최초로 ‘자기가 비용을 지불하는 경제적 군사 파병’으로 제국주의 자원 경쟁에 본격적으로 끼어들기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물론, 그 ‘열매’는 불확실하다). 요약하면, 이제 한국은 미국의 ‘글로벌 파트너’로서, “피해받는 민족”이 아니라 미국과 더불어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아류 제국이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현재 기지촌의 성별 권력 대립이, 주로 미국 남성과 이주 여성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일면 당연한 귀결이다. 지금 한국의 기지촌 여성운동에서 한국 여성은 이전과 달리, ‘피해’당사자가 아닌 것이다. 기지촌 여성운동이 한국 내 사회운동과 맺어야 할 관계의 위상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

대화 : 기지촌에 대한 짧은 개인적 에세이

Dialogues : Short personal essays in response to the camp town

김유니 Eunice Kim

역사 the history

한국 기지촌 여성의 역사는 난민, 유흥지와 기회의 장소에 대한 내용이라고 상징적으로 요약할 수 있다. 한반도는 법적으로 계속 전쟁 중인 국가로서 남아 있다. 왜냐하면 한국 전쟁이 평화 조약으로 종결되지 않고 휴전 조약으로 종결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전쟁의 실체는 신문 제목들, 비무장지대^{각주2)}(DMZ)와 논쟁적인 한계가 있는 해역에서만 존재 하지만 1945년부터 1950년 초반에는 빈곤과 전쟁으로 인한 파괴는 여기저기 과부가 된 여성들, 고아가 된 아이들과, 가족들로부터 사람들을 고향에서 강제로 떠나게 하였다. 전쟁의 폐해는 많은 모습을 보였다. 남한과 북한 군대들이 번갈아 읍들을 지나가다가 집을 샅샅이 뒤졌고 고발당한 반역자들은 처벌되었다. 식량이 모두 없어지고, 미군 부대들이 건설되었다. 예를들면, 1951년 7월 9일, 송탄이라는 작은 농촌 마을에서 미국 공군의 417비행대대를 위해서 비행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대략1,000가구 즉,

2. 1953년 7월 27일에 휴전 조약을 서명한 후에 비무장지대 (DMZ)가 수립되었다. 비무장지대는 삼십팔도선에 있는 군의 줄이고 남과 북한 나라 사이에 있는 2킬로미터 완충 지대이다. 군인이나 민간인은 비무장지대를 건너가지 못 한다. 비무장지대는 군대와 정치적인 방어 벽이지만, 또한 남북 양쪽의 많은 한국 가족들을 갈라놓기도 한다.

5,000명의 사람들이 집을 옮겨야 하였다.^{각주3)} 이런 혼돈 속에서 어떤 한국 사람들은 피난을 위해서 미군 부대 주변으로 서서히 정착하였다. 여성들은 적은 돈을 벌려고 가리지 않고 빨래와 성매매 등 일을 하였다.^{각주4)} 부대, 판잣집, 단순한 여인숙과 모텔에서 비공식적으로 성매매한 첫 번째 기지촌 여성들은 피난민이었다.

The history of camp town women in the Republic of Korea can be summarized in terms of its symbolism, as a place of refuge, resort, and opportunity. Because the Korean War (1950-53) ended with an armistice agreement as opposed to a peace treaty, the Korean peninsula technically remains in a state of constant war. While the reality of war today keeps to newspaper headlines, the Demilitarized Zone^{각주5)}, and bodies of water with controversial boundary lines, between 1945 and the early 1950s, the poverty and destruction of war reigned free widowing women, orphaning children, and displacing families from their homes. These wartime disturbances came in many forms, including opposing armies alternately passing through communities to ransack houses and punish accused treasonists; the depletion of agricultural staples; and the construction of American military bases. For example, on July 9, 1951, the construction of an airfield for the 417th squadron in Songt'an (송탄), a formerly obscure farming village, forced the relocation of approximately one thousand families, a total of about five thousand people.^{각주6)} In the midst of this prolonged chaos, some Koreans sought refuge with the American military and gradually settled around bases. Women indiscriminately provided services such as running errands and washing laundry, as well as sexual services, to earn a livelihood.^{각주7)} Informally exchanging sex for financial support in U.S. military barracks, panjatjip (lit. "house made of boards"), simple inns, and motels, these earliest of camp town prostitutes were refugees.

3. Katharine H.S. Moon, *Sex Among Allies: Military Prostitution in U.S.-Korea Relation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7), 28.
 4. *Ibid.*, 27.
 5. Established by the armistice agreement signed on July 27, 1953, the demilitarized zone (DMZ) consists of a military demarcation line at the 38th parallel and a buffer zone of two kilometers on either sid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n forces. Neither military nor civilian personnel are permitted to cross the DMZ unless authorized by the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In addition to serving as a military and political barrier, the DMZ also reinforces the separation of many Korean families with members on both sides.
 6. Katharine H.S. Moon, *Sex Among Allies: Military Prostitution in U.S.-Korea Relation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7), 28.
 7. *Ibid.*, 27.

산업화의 시기(1960-1990)부터는 가난으로 내몰려진 젊은 한국 여성들이 가족의 책임 때문에 기지촌 성매매 생활을 마지막 방책으로 선택하였다. 1960년 때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발달에 따라 커다란 인구 통계학적인 변화도 보였다. 왜냐하면 시골에 사는 여성들이 일을 찾기 위해서 커져가는 도시로 이동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 대부분 미혼 여성들은 도시에는 친척과 보증을 잡자리도 없는 상황에서 교육을 원하고 가족에게도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싶어서 용감한 노동자를 의미하였다.^{각주8)} 부모들이 죽었거나 다쳤거나 아픈 이유로 많은 여성들은 빚, 실업과 거주지가 없는 걸 경험하였던 빈곤한 대가족에서 자랐다.^{각주9)} 직물, 의류와 신발류에 관한 산업에서 일을 찾았지만 몇 천명 여성들은 기지촌에서 착취적인 일을 하게 되었다.

기지촌이 성매매하고 관련된 장소란 것을 알았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클럽의 관행을 견디어 냈다. 공장에 받는 월급은 가족의 비용을 내기 위해서는 너무 적었거나 나이가 많은 편이라서 공장에 취직하기에는 어려웠다.^{각주10)} 1965년에 미군이 한국 여성들이 무슨 이유로 기지촌 성매매에 유입되는지 논의 하여 보고서를 썼는데 서울에 사는 18~40살 여성 중에서 60%가 실업이었다고 기사하였다. 그에 더불어, 다른 여자들은 거짓 식당 광고를 믿어서 기지촌 일자리로 유입되었다. 이 불행한 여성들은 클럽 여성으로써 미군 고객들 위해 성적인 춤을 추고, 술을 팔고, 성매매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By the industrial era (1960-1990), young Korean women driven by poverty and the determination to fulfill familial responsibilities assumed the life of camp town club prostitutes as a last resort. With the rapid industrialization of South Korea's economy in the 1960s arrived a significant demographic shift as rural women flocked to growing cities by the thousands in search of employment. These predominantly unmarried women represented bold workers, eager at the prospect of receiving education and resolved to contribute to their family's finances in spite

8. Kwang-yeong Shin, "The Discourse on Women in Korea: Episodes, Continuity, and Change [explores five episodes: state birth control policy, sexual torture, comfort women, factory girl, and cosmetic surgery]," *Review of Korean Studies* 5, 2 (2002): 15.

9. Moon, 22.

10. Ibid, 23.

of minimal familial networks and no guaranteed housing in the cities.^{각주11)} Many of these women came from large, economically struggling families plagued by debt, landlessness, and unemployment often due to parental loss, injury, or illness.^{각주12)} Although seeking employment in the light manufacturing industries of textiles, garments, and footwear, thousands ultimately resorted to exploitative work in the camp towns. Despite the camp town's association with a burgeoning and well-established sex trade, economic pressures compelled women to endure club practices. Their factory wages proved insufficient to cover familial expenses, or their older age resulted in uncompetitive factory applications.^{각주13)} A report written by the Eighth U.S. Army discussing reasons for entering the camp town sex trade in 1965 states that sixty percent of women between ages eighteen and forty in Seoul were unemployed. Additionally, false ads promising education and employment deceived other women to apply for camp town placements promoted beneath a guise of restaurant work. These unfortunate women found themselves committed to positions as club hostesses expected to dance erotically, ply alcohol, and perform sexual favors for U.S. military customers.

동유럽과 동남아시아에서 온 여성들이 대한민국의 신속한 현대화와 호황 때문에 무용가와 가수로 이주의 일을 찾기 위해서 1995년부터 한국으로 왔다. 그 때부터 경제력을 가지려는 여성들은 한국이 기회가 풍부한 나라라고 봤지만, 동시에 한국이 인신매매를 당한 여성들을 받는 나라도 되었다. 2001년에 8586명의 연예인들이 한국에 도착했고 국가통계사무소 정보에 의해 이주자 중에서 60%가 필리핀과 러시아에서 온 여성들이었다 (1599명 - 필리핀, 3518명 - 러시아).^{각주14)} 그들은 E-6, 예술홍행사증을 통해서 한국을 들어오는데 이 여성들은 필리핀-한국 기획사가 뽑힌 후에 보증된 연예인을 되기 위해서 비디오를 준비하고, 평가를 보고, 증거 서류도 제출한다. 그렇지만 한국에 도착하

11. Kwang-yeong Shin, "The Discourse on Women in Korea: Episodes, Continuity, and Change [explores five episodes: state birth control policy, sexual torture, comfort women, factory girl, and cosmetic surgery]." *Review of Korean Studies* 5, 2 (2002): 15.

12. Moon, 22.

13. *Ibid.*, 23.

14. Sallie Yea, "Labour of Love: Filipina Entertainer's Narratives of Romance and Relationships with GIs in U.S. Military Camp Towns in Korea,"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28 (2005): 460.

자마자 대부분은 기지촌 클럽과 바에서 “juicy girl”, “주스 파는 여자”로써 일하겠다는 계약을 서명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런 클럽 안에서는 주스 한 잔이 여성의 몇 분을 사 고 더 많은 요금을 내면 미군이 “bar fine”, “성매매 요금, 2차”을 내고 한 여자의 밤 을 주장할 수 있다. 기지촌 세계에서는 성, 친밀과 여성의 몸이 살 수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한다. 이전 기지촌 여성들처럼 이 외국인 여성들도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서 월급을 가족한테 보낸다. 어떤 여성들은 빛과 한국어로 쓰여 있어서 이해하지 못 하는 계약서와 나가지 못 하게 하는 업주 때문에 클럽에 계속 있지만 다른 여성들은 쉽거나 공장으로 도망간다. 도망간 여성들은 즉각 불법체류자가 되어서 어느 순간에 국외 추방을 당할 수 있고 비자기간보다 오래 체류하여서 엄청난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2004년에 성매 매방지법이 마련되었지만, 최근에 만든 법이라서 공무원들이 새로운 사례마다 이 법을 어떻게 기준으로 적용해야 하는지를 익히고 있다.^{각주15)}

Because of South Korea's rapid modernization and economic prosperity, Eastern European women and Southeast Asian women began traveling to Korea in search of migrant work as dancers and singers in 1995. Since this time, South Korea has represented a land of opportunity for women seeking economic empowerment and simultaneously, a destination country for human trafficking. In 2001, 8586 entertainers arrived in Korea, and Filipina and Russian women (1599 Filipina, 3518 Russian) composed nearly 60% of these migrants according to National Statistics Office data.^{각주16)} Entering with E-6 or entertainer visas, these women are recruited by Korean-Philippine promotion agencies to prepare videos, undergo evaluations, and complete documentation to receive certification as legitimate entertainers. However, once in Korea, the majority of these workers find themselves contractually committed to camp town bars and clubs as “juicy girls.” In these clubs, a glass of juice purchases however many minutes of a woman's company,

15. National Report, “Sixth Periodic Report under Article 18 of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Ministry of Gender Equality, http://english.moge.go.kr/sub04/sub04_41.jsp, 28.

16. Sallie Yea, “Labour of Love: Filipina Entertainer's Narratives of Romance and Relationships with GIs in U.S. Military Camp Towns in Korea,”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28 (2005): 460.

and for a greater fee, American servicemen can pay a “bar fine” to claim a woman for the night. Within the world of the camp town, residents presume to count sex, intimacy, and women’s bodies among purchasable commodities. Like their predecessors, these foreign women send their salaries home to support their families. While some women remain at the clubs bound by debt, signed contracts written in Korean they cannot understand, and the stringent restrictions on their mobility imposed by managers, others run away to shelters or to factories. These runaway women immediately transition into illegal immigrants vulnerable to deportation at any time as well as exorbitant fines for overstaying their visas. Although anti-prostitution legislation was successfully passed in 2003, effective in September 2004, the enforcement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Procuring Prostitution and Associated Acts and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Prostitution and Protection of Victims remains in its early stages with ministerial officials learning to create standardized procedures with each new case.^{각주17)}

기지촌 성매매는 과거의 잔여와 현재의 현실인 것이다. 기지촌 성매매는 외교의 이름으로, 경제적인 이득을 위해서, 남성우위주의자의 욕망을 만족시키려 힘 없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여성의 성적인 주권을 무시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 여성들의 이야기와 경험은 실현되지 않고 오랫동안 거절되어 온 정의에 대하여 요구한다.

A remnant of the past and a reality of the present, the camp town sex trade represents a manufactured system exploiting the disempowered in the name of diplomacy, for the sake of economic gain, and the satisfaction of masculinist desires that ignore women’s sovereignty over their own bodies. The stories and truths of these women cry out for a justice unrealized and long denied.

17. National Report, “Sixth Periodic Report under Article 18 of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Ministry of Gender Equality, http://english.moge.go.kr/sub04/sub04_41.jsp, 28.

아름답다 it' s beautiful

파주시의 재개발을 안내하기 위해 지은 크고 현대적인 아파트 건물을 알리는 광고판은 “아름답다!”라고 표현하였다. 조금 더 가면 새롭게 반짝반짝 빛나는 지하철역도 똑같은 느낌을 가지게 하였다. 속도, 편의와 가장 중점적인 파주시가 주요 도시의 서울시하고 가깝다는 소식을 알려줬다. 그렇지만 인적이 끊긴 파주 기지촌 길에 서 있는 나에게는 그 짧은 거리가 좁혀질 수 없는 거리처럼 보였다. 약속된 아름다움이 내가 서 있는 곳까지 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느꼈고 기지촌은 재개발지역의 끝에 버려지고 절박한 죽음을 기다리는 분위기였다. 위안부에 대해서 정부적인 무시와 외교적인 유화정책 때문에 한국과 일본 정부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정부들이 배상을 주고 싶지 않아서 그 위안부 할머니들이 돌아가시는 것만 기다린다고 얘기한다.^{각주18)} 파주를 방문한 동안 그 똑같이 인정 없는 정책이 여기에서도 적용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It' s Beautiful!” the billboard declared, announcing the construction of a tall, modern apartment building to usher in the process of Paju' s redevelopment. Several blocks away, the gleaming new subway station echoed the sentiment, evoking images of speed and convenience and most importantly, signifying Paju' s connection to metropolitan Seoul. Yet from where I was standing, on a road in the middle of the deserted Paju camp town, those blocks seemed an insurmountable distance. The promised beauty seemed to stop short of where I stood, leaving the camp town at the edge of redevelopment, as if awaiting its imminent demise. People critical of governmental inaction and diplomatic appeasement concerning the wianbu or “comfort women” often say that the Korean and Japanese governments are simply waiting for the women to pass away, delaying recompensation until no women are left to demand it.^{각주19)} During my visit to Paju,

18. 위안부는 태평양 전쟁 (1937-1945) 동안 일본 군대를 위해서 성적인 노예가 된 대부분 한국 여성들이다.

Young-jin Oh, “Ex - ‘Comfort Women’ to Hold 900th Protest,” Korea Times, January 10, 2010, Nation section, English edition.

19. The term :comfort women” generally refers to Korean women who served as sexual slaves for the Japanese Imperial Army during the Pacific War (1937-1945). Young-jin Oh, “‘Comfort Women’ to Hold 900th Protest,” Korea Times, January 10, 2010, Nation section, English edition.

I felt that that same unpalatable policy applied here.

2000년대 초반에 널찍한 부대가 한국 군대의 몇 대의 차 외에는 철수됐지만 50년 전처럼 아무 변화 없이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한 하얗고 허름한 집을 길에서 볼 수 있었다. 판자로 덮어진 상태에서 전에는 여성의 몸을 미군들에게 파는 번영한 자리, 6.25전쟁 후에 가난한 여성과 외화를 의미하는 남성인 외국인을 착취하는 작지만 유익한 사업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은 오래된 간판 하나만 이었다. 큰길 옆에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그 마을은 기지촌이었다. 조용한 분위기가 분홍색, 청록색, 파란색과 오렌지색으로 밝게 페인트칠한 집의 화려함과 모순되었다. 이 날 오후 중반에는 길이 비어 있었지만, 깨끗하게 청소된 도로가 인적이 끊긴 분위기와 모순되었다. 사람들이 여기서 살고 있었다. 그 외에는 대부분은 집에 있었다는 것을 조금 후에 알게 되었다.

The expansive military base evacuated in the early 2000s remained, empty but for a few cars presumably belonging to the Korean military, exactly as it had been for more than fifty years. A modest white house could be seen on the main road, boarded up, with only an old sign to indicate that this was once a prosperous club selling women's bodies to American servicemen, a small and most likely profitable business exploiting the circumstances of post-war Korea, impoverished women and virile foreigners symbolizing foreign currency. Barely off the main road was a small neighborhood, a camp town. The quietness contradicted the loudness of the brightly colored houses painted pastel pinks, sea greens, bold blues and oranges. This mid-afternoon, the streets were empty, but the neatly swept roads belied the deserted atmosphere. People lived here, and as I soon found out, nearly everyone was home.

나는 첫 아웃리치로 두레방 상담원 태정씨하고 성탄절을 위해 김치와 양말을 기지촌 할머니들에게 나눴다. 대부분은 태정씨를 보니 기뻐하였고 나를 만날 때 친절하였다. 어떤 할머니들은 집으로도 초대하였다. 한 할머니는 전 재산이 캄캄한 방을 차 있던 상태에서 살고 있었다. 공기에는 담배연기 냄새가 났고 너무 추워서 아직 식사를 못 했다고 이야

기 하였다. 너그럽게 제일 따뜻한 곳인 매트리스에 앉으라고 하였다. 다른 할머니는 브라질의 커피콩으로 같은 커피를 권하였고 사회 복지사들이 가끔 지금도 살아 있는지를 확인하러 방문한다고 농담하였다. 왜냐하면 이 할머니는 우울증이 심한 때문이다. 할머니는 친구가 아침마다 새벽기도에 간다는 것과 아들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서 희망된다고 우리에게 친구 분을 칭찬하였다. 지금도 가스보일러가 너무 비싸서 연탄을 땀다. 다른 할머니는 방문자를 무서워하였다. 이는 사람이라도 오기 전에 전화 해드려도 상관없었다. 누가 온다고 들으면 도망갔다. 첫 번째 본능은 늘 도망가고 숨는 거였다.

I was accompanying Taejung (태정), a Durebang counselor, on my first outreach event, distributing bags of kimchi (김치) and socks to the camp town (기지촌) grandmothers in time for the holidays. Most women seemed pleased to see Taejung again and to meet my acquaintance, and some invited us in. One woman lived in a dark room filled with all her earthly possessions. The air smelled of cigarette smoke, and she hadn't eaten all day because of the cold. She generously urged us to sit down on her mattress on the floor, the warmest part of her home. Another woman offered us coffee made from Brazilian coffee beans and joked that social workers stopped by every now and again to check to see whether she was still alive because she suffered from bouts of depression. She marveled at her friend's faith, attending morning service every day without fail and hanging her hopes on her son's future through persevering prayer. She still burnt coal for heat because using the gas heater was too expensive. Another woman feared visitors, even ones she knew and who showed her the added courtesy of calling ahead. Whenever she learned someone was to come calling, she ran away. Her first instinct was to run and hide.

태정씨는 많은 할머니들이 미군하고 결혼해서 버림받았거나 군대에서 수당을 계속 받기 위해 이혼을 안 해주는 미군 때문에 사기를 당하였다고 이야기 해주었다. 다른 할머니들은 결혼한 경험도 없었다. 어떤 할머니들은 낙태를 몇 번 하였고 늙은 나이에 혼자 살고 있었다. 다른 할머니들은 혼혈인이라서 차별을 많이 당한 성인된 자녀들과 살고 있었다.

Taejung shared that many of the women had married and been abandoned by their American servicemen husbands, some of whom refused to sign divorce papers to continue collecting money from the military. Others had never married. Some women had undergone abortions and lived alone. Others lived with their children, adults now, who had endured much stigmatization because of their mixed ethnic background.

미군들은 떠났고 50년 후에 부대가 비워졌다. 높은 아파트 건물도 짓고 있다. 그렇지만 아름다운가 해결이 안된 역사를 묻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 그리고 과거 위에 현대성을 의미하는 반짝반짝한 상징을 세우는 것도 해결이 아니다. 이 여성들은 살아 있는 역사의 증언이다. 그러므로 이 여성들의 이야기도 들어야 한다.

The soldiers have left, the base evacuated after more than fifty years. High-rise apartments are being built. But is it beautiful? Burying history unresolved is not synonymous with justice. And building atop the past with shiny symbols of modernity is not resolution. These women are living testaments of a history, and their stories must be heard.

파주 기지촌고령여성과의 상담



파주 기지촌고령여성에게 성탄절 물품 나눔



작은 것들 little things

날마다 작은 승리와 실수들이 있다. 날이 좋거나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생각에 달려 있다. 오늘은 내가 미군 부대에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기회였다. 그렇지만 군복을 입은 한국인처럼 보이는 직원들이 입구에서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만 언뜻 보였다. “출입 금지 장소”를 안내하는 전달 글로 가득 적혀 있는 게시판이 쓸모없이 갈색 의자에 앉은 나를 놀렸다.^{각주20)} 입장 금지; 여권 필수. 운전면허는 충분하지 않다.

Every day is made up of small victories and mistakes. Whether or not we consider it a good day is all a matter of perspective. Today was my first opportunity to enter a U.S. base. All I glimpsed was seemingly Korean staff dressed in army fatigues, checking for proper identification at entrance gates. A bulletin board covered with postings of “Off-Limit Areas” teased me from behind transparent glass, while I sat uselessly on a brown chair.^{각주21)} Entrance denied; passport required. A driver’s license will not suffice.

최근에 이민한 남자, 군인의 말투가 섞인 영어만 우연히 들었다. 미군의 친구와 친척들은 늘 미군 부대가 외국 땅에 있는 작은 미국이라고 설명한다. 작은 미국이라고 표현하면 학교에서 공부하는 완벽한 백인 미국이 아니었고 최근에 이민한 미국인의 미국이었다. 미국 군대, 미국의 꿈.^{각주22)}

All I overheard was the accented English of an immigrant man, a soldier. Friends

20. 미군들은 “출입 금지”된 클럽들에 정해진 시간 동안 들어가지 못 한다. 클럽이 “출입 금지”되면 성매매의 혐의를 받았다는 뜻이다.

21. American servicemen are not allowed to patron “off-limit” clubs for a specified period of time. The term “off-limit” is applied to clubs involved in or suspected of involvement with the sex industry.

22. 인구조사국은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미군에 입대하는지를 연구한 후에 아래 다섯 이유라고 확인했다. 1) 부모의 교육 (부모가 대학교를 나왔으면, 아이들이 덜 입대한다); 2) 고등학교의 성적 (성적이 높은 학생들은 덜 입대한다); 3) 대학교 계획 (대학생들은 덜 입대한다); 4) 인종과 민족성 (흑인들과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은 백인들보다 더 자주 입대한다); 5) 군대 역할의 매력. 이 다섯 이유 중에서 넷째 이유는 교육적인 수준과 사회 경제적인 위치와 상관된다. David R. Segal and Mady Wechsler Segal, “America’s Military Population,” Population Bulletin 59.4 (2004): 9.

and relatives of American servicemen unanimously describe U.S. military bases as Little Americas on foreign soil. If I can call it a Little America, it certainly wasn't the white America we read about and study in school but one composed of recently immigrated Americans. The American army, the American Dream.^{각주23)}

오늘은 눈이 떨어지는데 걸어갔다. 이슬비가 내리고 있는데 걸어갔다. 비와 눈은 단지 날씨일 뿐이다. 두레방에서 일을 시작한 후에 나는 많은 실망들을 보았고 가끔 내가 무력한 것을 느꼈다. 이 일의 특징이다. 성공에 대한 이야기는 휴식과 돌아 볼 수 있게 하는 격려라는 기회를 주는 뗏목배처럼 찬 물에 다시 들어가기 전에 잡아야 한다.

I walked through a flurry of snow today. I walked through drizzling rain. Rain and snow, it's just weather. Since coming to work at Durebang, I have seen much disappointment and felt frequently powerless. It is the nature of the work. Success stories must be grasped and shared like buoying rafts providing rest and a chance to look around and delight in the progress made before steeling yourself to face the current.

몇 년을 기다린 후에, 한 여성은 오늘 미국에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아들을 위해 양육비를 받았다. 몇 년 전부터만 이런 법원 명령을 받기 위하여 시도하였다. 오랫동안 기다린 후에 두 사례 중에서 두 번째로 성공한 사례이다.^{각주24)} 매 달마다 \$380을 받을 것이다.^{각주25)} 많은 돈은 아니지만 무엇보다 미국이 만든 시스템 통해서 한국에 있는 미군들에게 버림 받은 여성과 아이들을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해야 할 일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이 여성들이 양육비를 받기 위해 보내는 신청 자격은 미국 주마다 정책

23. The Population Reference Bureau identifies five predictors of a person's propensity to enlist in the Armed Services: 1) parents' education (if parents are college-educated, less likely to enlist); 2) high school grades (students with higher grades less likely to enlist); 3) college plans (college students less likely to enlist); 4) race and ethnicity (African Americans and Hispanics more likely to enlist than whites); and 5) attractiveness of military work roles. Of these five predictors, four correlate to educational levels and socioeconomic standing. David R. Segal and Mady Wechsler Segal, "America's Military Population," Population Bulletin 59.4 (2004): 9.

24. 다른 사례는 조지아 주에게 지원서를 제출했다.

25. 이 월지불은 한달에 \$375 을 더한 삼년 반 동안 안 낸 \$5 지불이다.

에 달려있다. 즉, 미국과 한국 사이에 상호 합의가 없으니 새로운 사례들은 무시를 당할 수 있는 것이다. 상호 합의는 국제 도움이 필요한 양육비에 관련된 법원 명령이 있으면 도움을 줄 거라는 합의이다.^{각주26)} 15개의 나라가 미국하고 상호 합의가 있지만 기지촌 성매매가 있는 나라 중에서는, 예를들면 한국, 일본, 필리핀이나 괌, 합의가 하나도 없다.^각^{주27)} 더욱이, 이 합의가 미국에 살고 있는 아이와 부모 위해서만 양육비를 보장하니 기지촌에서 버림 받은 아이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해결을 하지 않는다. 현재는 아버지가 가지는 친권을 증명하는 것은 뛰어넘을 수 없는 장애이다. 많은 미군 아버지들이 아이 위해 책임을 지지 않아, 출생 증명서를 서명하는 것과 친차확인검사를 하는 것을 거절하고 미국 대사관에서 여권도 만들어주지 않는다. 이렇게 버림받은 혼혈아들은 어느 나라에서도 권리를 받지 않아 많은 아이들은 여권도 없고 성으로만 아버지를 알게 된다. 아버지가 가지는 친권 에 대한 증거가 없으면 양육기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되고 미군은 군인을 협조하여 강제로 시키지 못 한다는 정당방위 뒤에 숨는다. 비꼬아, 증명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가 필요한 끊을 수 없는 순환인 것이다. 아버지가 아이를 위해 책임을 질건지 지지 않을건지는 개인적인 호의나 동정적인 장교의 비공식적인 중재에 불안정하게 달려있다.

After several years, a woman received child support enforcement for her son today from the state of North Carolina. Such court orders have only been attempted in the past few years, and after a long wait, this is the second successful case of two.^{각주28)} She will receive \$380 a month.^{각주29)} It is not a lot by any means, but it is something. It is recognition of an obligation on the part of the United States for the women and children in Korea, who have been discarded by American servicemen through a system that the military had a hand in creating. However, much remains

26. 1996년에 사회 보장법에서 459A면에는 외국 상부상조를 이렇게 정의한다. "외국 나라가 양육비 법원 명령을 받았던 미국 주민을 돕기 위해 절차를 정하고 그 절차가 (b)면에 있는 절차를 [부권을 확립하는 것과 양육비 법원 명령을 강요하는 부분] 합치하면 국무 장관과 건강 복지 사업장관이 그 나라를 외국 상부상조 나라라고 인가할 수 있다." Office of Child Support Enforcement, "Processing Cases with Foreign Reciprocating Countries" <http://www.acf.hhs.gov/programs/cse/pol/PIQ/2004/piq-04-01.htm>.

27. Office of Child Support Enforcement, "International Resources," <http://www.acf.hhs.gov/programs/cse/international/>.

28. The other case was filed with Georgia.

29. This monthly payment is composed of a monthly payment of \$375 and an additional \$5 for child support payments in arrears from the past 3.5 years.

to be done. The eligibility of these women's applications for child support enforcement depends on each state's policies, which leaves successive cases consistently vulnerable to dismissal, because no mutual reciprocity agreement exist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A mutual reciprocity agreement signifies each country's pledge to enforce child support orders requiring international cooperation.^{각주30)} Of the fifteen countries committed to reciprocity, none coincide with countries infamous for flourishing camp town sex industries such as the Republic of Korea, Japan, the Philippines, or Guam.^{각주31)} These agreements further fail to address the pressing issue of child abandonment associated with camp towns abroad, guaranteeing child support enforcement only for children and parents residing in the United States. As the situation currently stands, the establishment of paternity represents an insurmountable obstacle. Many servicemen fathers renege responsibility for their children, refusing to sign birth certificates, undergo corroborative DNA testing, or provide passports through the U.S. embassy. Their children are left unclaimed by any country, many without citizenship of any kind, with only a last name by which to know their fathers. Without some evidence of paternity, child support agencies find their resources limited, and the military hides behind the legal defense that it cannot compel a serviceman to cooperate against his will. Ironically, it is an impenetrable cycle of needing proof to establish proof. Whether or not a father assumes responsibility for his child rests precariously upon his individual goodwill and conscience or the unofficial intervention of a sympathetic officer.

나는 10월에 태어난 지 이틀된 남자아기를 만났다. 한국의 추운 겨울을 견디어 낼 수 있는 따뜻한 옷이 없어서 보건소에 예방주사를 받기 위해 갈 때 이불 속에 싸여 있었다. 사

30. Foreign reciprocity as defined in 1996, section 459A of the Social Security Act "[t]he Secretary of State, with the concurrence of the Secretary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is authorized to declare any foreign country (or a political subdivision thereof) to be a foreign reciprocating country if the foreign country has established, or undertakes to establish, procedures for the establishment and enforcement of duties of support owed to obligees who are residents of the United States, and such procedures are substantially in conformity with the standards prescribed under section (b) [which include procedures for establishing paternity and enforcing orders]." Office of Child Support Enforcement, "Processing Cases with Foreign Reciprocating Countries," <http://www.acf.hhs.gov/programs/cse/pol/PIQ/2004/piq-04-01.htm>.

31. Office of Child Support Enforcement, "International Resources," <http://www.acf.hhs.gov/programs/cse/international/>.

람들은 아버지하고 똑같이 생겼다고 말한다. 다른 남자아기는 태어나서 10개월 후에 미국 여권을 드디어 받았다. 10개월 동안 아버지나 나라가 없이 불법체류자로서 반만 서명된 출생 증명서가 자기의 한 합법의 서류였다. 이 상황들이 다 절망적이지만 승리한 사례라고 생각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주노동자로서 이들을 먹이고 입히기 위해 한국에서 일을 찾는 어머니와 눈이 크고 이가 나기 시작한 필리핀으로 보낼 예정인 남자아기는 어떻게 되나 아버지는 아들을 거부하고 양육비를 받을 능력이 없다.

I met one boy the day after he was born in October. He had no clothes warm enough to withstand the harsh Korean winter, wrapped in a blanket when we brought him to the free clinic for the customary immunizations. People say he looks just like his father. Another boy gained American citizenship at ten months old. For ten months, he was without father or country, an illegal immigrant whose only existing legal record was a half-signed birth certificate. Despite their bleakness, these cases can be heralded victories, but what of the boy with the wide eyes just beginning to teethe, who will be sent to the Philippines, while his migrant mother searches for work to feed and clothe him His father denies him, and no documents support his case for child support.

비와 눈. 비와 눈이 오면 여러가지 걱정이 생긴다. 비로 곱슬해진 머리부터 복잡한 교통, 살얼음, 우산이 없다, 따뜻한 옷이 없다, 버스 교통비가 너무 비싼 것까지에 대해서 걱정 할 수 있다. 작은 것에 따라 이야기가 전혀 달라진다.

Rain and snow. Concerns range the gamut from frizzy hair, congested traffic, black ice to no umbrella and no warm clothes, and the bus fare's too expensive. The little things make the difference.

마마상 mamasan

기지촌 클럽마다 클럽 사업을 감독하는 마마상이라는^{2*32)} 한국 아주머니가 있다. 클럽 주인이나 고용인을모집하고 클럽 사용을 관리하는 촉진자도 아니지만 그 여성은 하루하루 클럽 생활을 이끌어 간다. 그들은 클럽 여성들과 미군 손님들과 직접 상호 작용한다. 테이블 위의 주스 잔이 비워 있으면 미군들에게 여성의 시간을 더 사는 의미로 주스를 더 사주라고 요구한다. 어떤 때는 클럽 여성의 식품 할당을 빼앗고 주간에 클럽 여성들을 방 안에 가둔다. 클럽 여성들이 불복종하거나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면 마마상이 악담과 물리적 폭력으로 반응할 때도 있다. 피해자이자 동시에 가해자인 마마상들은 기지촌을 영원히 존재시키는 주기적 압박을 구체화한다.

In every camp town club, there is a Korean woman called the mamasan^{2*33)}, who oversees the business. Although neither the club owner nor the promoter, who recruits women and manages their club employment, she operates the day-to-day tasks that compose club life. She directly interacts with the club women and GI customers, sometimes demanding servicemen to buy juice drinks to purchase the further company of women when glasses sit empty on tabletops, depriving women of their allotted food allowances, restricting women to their rooms during the daytime hours, and even doling out verbal and physical violence in response to disobedience or assertion. Assuming the position of both local perpetrator and victim, mamasans embody the cyclical oppression that dictates the persistence of the camp town.

두레방으로 오는 한국 언니들이 많은 경우에는 마마상이라는 것을 나는 10월에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사람들이 기지촌에서 제일 가혹한 마마상으로 보는 언니들도 나를 환영하였고, 예기치 않은 친절함이나 너그러움으로 놀라게 하였다. 또한, 재빠른 분석

32. 난도질된 일본어와 영어를 섞어서 만든 단어인 "마마상"은 오키나와, 필리핀, 한국 등에 있는 기지촌에서 들을 수 있는 표현이다.

33. Although a hybrid word derived from mangled Japanese and English, the term "mamasan" can be heard in camp towns in Okinawa, the Philippines, and Korea, among others. This term, like the camp town club industry, has followed the American military around the world.

과 감시로 나의 호기심을 북돋우었고, 웃기는 이야기로 나를 즐겁게도 하였다. 이 언니들이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 병, 부서진 가족, 부족한 기금 등 고생을 자주 하지만 나는 이 여성들의 친절한 얼굴과 이야기를 알게 되었고 언니들만 보면 그들의 활기를 기대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오늘은 언니들이 수다를 떨 겸 쉬고 커피를 마실 겸 사무실에 들렀으며 다음 날에는 그 언니들 밑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들이 십터로 도망가게 도와달라고 뒷 문을 두드릴 때도 있었다. 처음에는 나는 외국인 클럽 여성과 가끔 폭력적인 한국인 마마상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였지만 똑같은 착취적인 기지촌 성매매 시스템을 벗어나지 못 하는, 비록 역할은 다르기는 하나 피해자란 것은 이해하였다. 이 언니들도 가족과 자기의 경제적인 연명을 받기 위해 자기의 젊음, 건강, 여권과 인권을 기지촌에게 빼앗겼다는 것을 이해하였다고 생각하였다.

In October, I learned for the first time that several of Durebang's Korean clients, called 언니 or older sister in Korean, are mamasans. Some known as the harshest in the community, these women first welcomed me into their midst, startling me with their unexpected kindness or acts of generosity, intriguing me with their astute analyses and observations, and amusing me with their humorous anecdotes. I had come to recognize them as friendly faces with interesting stories to tell, who ushered vitality into the office with their mere presence despite their frequent hardships concerning societal condescension, health ailments, familial brokenness, limited heating. The list could go on. These women would stop by the office, to chat or rest and indulge in a cup of coffee as they traveled from place to place. And perhaps, the next day, one of the women working beneath them in the clubs would rap on the back door to ask for our assistance in relocating to a shelter. At first, I could not digest this process of assisting both the current foreign club women and their sometimes abusive Korean mamasans, but at the least, I understood that both groups of women were caught in the exploitative system of the camp town sex industry, albeit in different ways. I thought I understood that the camp town had stolen their youth, health, and rights as women and individuals too in exchange for their family's and their own economic subsistence.

이틀 전에 내가 얼마나 몰랐는지 깨달았다.

기지촌은 직장 생활, 일이란 개념을 넘어서 생활 양식, 환경에 영향을 끼친다. 이런 축소도 안에는 폭력이 최후로 지배한다. 대부분 부서진 가족에서 자라난 언니들은 심각한 폭력을 견뎌내서 10대, 20대 때 기지촌에 도착하니 더 많은 폭력과 성적인 모욕, 늘 증가되는 빚, 마약 중독, 이루어지지 않은 계약, 버림, 부끄러움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과 같은 해를 더 입게 되었다. 몇 가지만 들었지만 이 언니들의 비슷한 이야기들은 멍하고 무너지게 하였다.

Two days ago, I realized how little I knew.

The influence of the camp town extends beyond the workplace, the notion of a job, to a lifestyle, an environment. In this microcosmic space, violence reigns ultimate. These women grew up in broken families, oftentimes enduring severe physical abuse, and when they arrived in the camp town in their teens and early twenties, they were met with more violence and sexual denigration, ever-mounting debts, drug addiction, unfulfilled contracts, abandonment, shame, and unsupported children. Their stories are numbingly similar, and I have only heard a few.

적은 수의 언니들이 깨진 꿈에서 일어났다. 한국 여성들이 기지촌 클럽에서 성매매를 견뎠을 때 언젠가는 풍족한 나라인 미군과 결혼해서 바다를 건너며 기회가 풍부한 나라로 이민 하는 것에 희망을 걸었다. 어떤 언니들은 결혼을 해서 미국으로 갔지만 불행하게도 이 언니들의 이야기들은 거기서 행복하게 끝나지 않았다. 한 언니는 적대적인 외국 나라에서 시어머니께서 후사를 당하고 경제적인 안정도 없는 상황에서 심각한 우울증을 걸렸다. 방문만 한다고 핑계를 댈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아이들을 미군 남편에게 남기고 떠나온 후에 기지촌에 다시 정착하였다. 다른 언니는 친절하고 교육받은 집안으로 시집갔다. 언니는 문제 없이 사랑을 받았지만 그런 환경에서 자라지 않아서 노력해도 적응을 하지 못 하였다. 결국은 이혼하였고 이 언니도 기지촌으로 돌아왔다.

A handful of sisters have returned from the realization of shattered dreams. When Korean women endured prostitution at the bars and clubs of camp towns, they grasped onto the hope that one day they would marry a prosperous American soldier and fly across the ocean to the heralded land of opportunity. These sisters succeeded in marrying and moving to the United States; unfortunately, their stories did not happily end there. One sister lapsed into severe depression, mistreated by her mother-in-law in a foreign and hostile land that provided her with as little economic stability as before. On the pretense of visiting, she flew back to Korea. Leaving her children behind to be cared for by their father, she settled again in a camp town. Another sister married into a kind and educated family that bestowed upon her care and love without dysfunction. Having never grown up in such an environment, she divorced, unable ? despite her sincerest efforts ? to adjust. She too has returned to a camp town.

이 여성들은 아이로써 어머니로써 자기의 경험에 대해서 얘기해준다. 어렸을 때 폭력을 당한 경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자기의 아이들을 자신이 당했던 것 처럼 똑같이 학대한 경우에 대해서도 얘기한다. 자기의 아이들을 질식사시켰고 딱딱한 물건 가지고 때렸다는 것과 형언하기 어려운 악담도 하였다고 인정한다. 자랐던 방식이 몸에 배어서 할 수 없이 아이들을 똑같이 키운다고 한다. 건강한 가족을 본 적이 없지, 들은 적이 없지, 경험한 적이 없어서 건강한 가족을 상상할 수 없다고 어떻게 만드는 지도 모르고 건강한 가족을 이루는 방식도 모른다고 자신 스스로 인정하였다. 마마상들은 기지춘이 어떻게 재생하는 지를 보여주는 한 예일 뿐이다. 성매매를 당한 여성의 혼혈인 자녀들은 성매매를 당하는 여성이나 성매매를 시키는 업주가 될 수 있다. 어떤 성매매 피해자들은 마마상이 된다. 클럽 주인과 기획사의 자녀들은 가업을 상속한다.

These women share of their experiences as children and mothers. They tell of how they too have beaten and abused their children as violently as their families abused them. Some admit to choking their children and striking them with hard objects, as well as unspeakable verbal abuse. They say that they have learned the

methods of rearing taught to them as children, that these lessons seem inscribed within their skin and blood. Some confess that having never seen, heard, or known how to build a healthy family, they cannot imagine one nor build one for themselves or even join one that already exists. Mamasans provide but one example of how the camp town regenerates itself. Bi-ethnic children of forced prostitutes have become forced prostitutes and pimps. Some forced prostitutes become mamasans. The children of bar owners and promotion agencies inherit the family business.

기지촌 클럽마다 작은 세계를 감독하는 마마상이라는 아주머니가 있다. 그녀는 벗어날 수 없는 도피처란 기지촌을 가정이라고 부른다.

Within every club there is a woman called the mamasan, who oversees the small world of a camp town club. She calls the camp town home, her refuge of no escape.

간판을 따라가라 follow the signs

소요산 방향으로 1호선을 타고 가면 보산역이란 지하철 역이 있다. 보산역에 처음으로 도착하였을 때 나의 첫 상담 사례를 위한 두레방 상담원 은정씨를 식당에서 만나기 위해 어느 출구로 나와야 하는지 궁금해서 출구 간판을 유심히 쳐다봤다. 문 위에 있는 노란 간판에 보산관광특별지역이란 1번 출구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문 밖으로 자세히 내다 보니 건물들의 뒤만 보이는 평범한 골목과 주차장만 있었다. 그래서 2번 출구로 나왔다.

If you take Line 1 towards Soyosan, there is a stop called Bosan Station. The first time I arrived at Bosan Station, I scanned the signs, wondering which exit led to the restaurant where I was scheduled to meet my co-worker, Eun-Jung (은정), for my first counseling case. Exit 1, designated as the “Bosan Special Tourism Zone” on the yellow sign above the door, intrigued me, so I peered out the doors to find an unremarkable alleyway displaying the backs of buildings with a parking lot on the right hand side. I left through Exit 2, which opened onto the main road instead.

2개월 후에 동두천 기지촌에서 첫 아웃리치에 참석해서 이 관광특별 지역을 살펴보았다. 1번 출구에서 한 블록가면 삼거리에서 클럽, 가게와 깜박거리는 형광으로 물건을 광고 하는 음식점들이 보인다. 밤에는 율동적이고 인기가 있는 미국 음악이 길가에 흐르며 옆 클럽의 음악하고 섞인다. 이 12월 밤에는 머라이어 케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 처럼 성공한 축제적인 음악들이 매리메리의 “God in Me” 처럼 기독교적 가사있는 노래하고 불안하게 섞여 있었다. 다른 자원봉사활동가들하고 클럽마다 들르며 내 또래의 필리핀 여성들에게 “Merry Christmas” 을 빌어주었고 미국에 비해 비싼 생리대를 나눴다. 그 밤의 분위기는 팽팽하고 조심스러운 분위기였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날 오후에 험박적인 전화가 두레방으로 와서 사람들이 다 조심스러웠다. 한 젊은 한국 클럽 주인은 손사래 치며 하찮게 생각하는 듯 우리를 무시하였다. 교회에서 온 자선가들 이라고 말하였지만 그 남자는 우리가 준비한 선물을 거절하였고 우리는 생리대가 가득

찬 손으로 다시 나오게 되었다. 나의 자신도 잘 모르는 채 클럽을 급하게 들어가고 다시 나와보니 긴 시간 머물지 못하여 둘러 볼 기회가 없었다. 그렇지만 클럽 내부가 역설적으로는 눈에 익은 장소라고 생각한 기억이 남는다. 이 클럽들이 영화에서만 본 허름한 미국 클럽을 생각나게 낯설지 않은 미국 분위기를 나타내었다. 필리핀 직원들과 한 강압적인 중년 한국인 남자나 여자만 다르게 보였다.

Two months later, I entered this “Special Tourism Zone” for my first outreach in the Dongducheon (동두천) camp town. One block from the exit stood an intersection revealing side streets lined with clubs, stores, and restaurants that advertised their goods with blinking, fluorescent lights. At night, popular American music with rhythmic dance beats pour out onto the street, mingling with the melodies next door. On this particular December night, holiday hits like Mariah Carey’s “All I Want for Christmas” faded disturbingly into songs with distinctly Christian lyrics, such as Mary Mary’s “God in Me.” With the other volunteers, I walked into club after club, wishing young Filipina women my age a “Merry Christmas” and passing out packets of sanitary pads, a relatively expensive necessity in Korea. The atmosphere that night could be described as tense, careful. A threatening phone call to the Durebang office earlier that day had left everyone on edge. One young, Korean club owner dismissed us with a wave of his hand and a rudely condescending tone. In spite of our guise as a charitable church group, he refused our gifts, and that night, we offered no resistance, leaving as we had come with full hands. Rushed in and out and unsure of myself, I did not get a chance to linger and look around, but I remember thinking the club interiors felt ironically familiar. The places exuded an intangibly American feel, reminding me of seedy American clubs seen on the movie screen. Only the homogeneously Filipina staff and the authoritative, middle-aged Korean man or woman appeared out of place.

동두천에서 두 번째로 아웃리치를 갈 때 간판을 알아봤다. 많은 클럽에는 간판들이 문에 붙여 있다. “군인들은 들어가기 전에 신분증을 보여 줘야 합니다. 21살 이하는 술 음주

금지. 내국인 금지. 무기를 안에 숨길 수 있는 큰 가방 등 금지.” 이런 간판들이 클럽의 흔한 특징들을 던지시 비춘다. 기지촌의 클럽들은 군인들만 고객으로써 응대한다. 하지만 내국인들은 거부한다. 미군 부대가 걸어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으니 고객들은 대부분 미군들이라고 생각 할 수 있다. 미성년의 술 음주를 공식적으로 금지하지만 이 정책이 아마 위반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간판이 생긴 것이다. 클럽들이 숨겨진 무기를 금지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미군의 평화로운 평판에 모순된다. 한 클럽은 “우리는 출입 금지 아니다”라는 간판을 붙였다.^{각주34)} 미군이 공식적으로 근절시키고 클럽 주인들도 부정하지만 이 클럽들은 성매매를 한다.

It was on my second outreach to Dongducheon that I noticed the signs. At several clubs, signs are posted to the doors with messages such as all military personnel need to show ID before being admitted; no drinking under the age of twenty-one; Korean nationals are prohibited from entering the premises; and no large backpacks or other items capable of concealing weapons are allowed inside. These signs insinuate common club characteristics. The camp town clubs cater only to military personnel. However, the clubs refuse Korean patrons. As an American military base lies within walking distance, it can be assumed that American military servicemen compose the bulk of their clientele. Underage drinking is not formally permitted, but violations of this policy most likely provoked the sign's posting. The clubs attempt to prevent the admission of hidden weaponry, conveying a strong need for safety precautions that contradicts the American military's reputation as a peacekeeping force. One club even taped the sign, “We are not Off-Limits.”^{각주35)} Albeit officially discouraged by the American military and denied by club owners, prostitution takes place in these clubs.

한국과 미국 정부 또한 미군은 아직도 성매매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핑계 뒤에 숨

34. 미군들은 “출입 금지”된 클럽들에 일정한 기간 동안 들어가지 못 한다. 클럽이 “출입 금지”되면 성매매의 혐의를 받았다는 뜻이다.

35. American servicemen are not allowed to patron “off-limit” clubs for a specified period of time. The term “off-limit” is applied to clubs involved or suspected of involvement in the prostitution of women.

는다. 기지촌 성매매는 60년 긴 역사가 있고 유죄를 시사하는 간판들이 기지촌에 많이 보이지만 기지촌 성매매에 대한 기사들은 최근에만 출판되었다. 예를 들면, “이전 성매매 여성들은 한국과 미국이 기지촌 성매매를 할 수 있게 하였다”는 2009년 1월 7일에 New York Times[뉴욕 일보]에서 출판되었고 “ ‘Juicy Bars’ [주스 바]는 미군에 겨는 성매매 장소라고 한다”는 2009년 9월 9일에 Stars and Stripes[별과 줄무늬]란 국방부에서 자금을 받는 미군 신문에 출판되었다.^{각주36)} 두 기사는 정부나 군대의 책임에 대한 인정 없이 이전의 기지촌 여성들과 최근의 기지촌 여성들의 이야기와 기자들의 경험에 달려 있다.

Yet, the pretense of insufficient evidentiary support remains upheld by the Korean and American governments, as well as the American military. Despite the sixty year history of the camp town sex industry and the incriminating signs displayed throughout base areas, only recently have articles been published on the subject. For example, “Ex-Prostitutes Say South Korea and U.S. Enabled Sex Trade Near Bases” was published on January 7, 2009 in the New York Times, and “ ‘Juicy Bars’ Said to be Havens for Prostitution Aimed at U.S. Military” was featured in the September 9, 2009 issue of the Stars and Stripes, a military newspaper funded by the U.S. Department of Defense.^{각주37)} Both articles rest on the testimonies of former and current camp town women, as well as reporters’ firsthand experiences, with little government or military admission of complicity.

36. Sang-hun Choe. “Ex-Prostitutes Say South Korea and U.S. Enabled Sex Trade Near Bases,” New York Times, January 7, 2009, Asia Pacific section, World edition, http://www.nytimes.com/2009/01/08/world/asia/08korea.html?_r=2&pagewanted=1&sq=Katharine%20Moon&st=nyt&scp=1.

Jon Rabirot and Hae-rym Hwang. “ ‘Juicy Bars’ Said to be Havens for Prostitution Aimed at U.S. Military,” Stars and Stripes, September 9, 2009, News section, Pacific edition, <http://www.stripes.com/article.asp?section=104&article=64633>.

37. Sang-hun Choe. “Ex-Prostitutes Say South Korea and U.S. Enabled Sex Trade Near Bases,” New York Times, January 7, 2009, Asia Pacific section, World edition, http://www.nytimes.com/2009/01/08/world/asia/08korea.html?_r=2&pagewanted=1&sq=Katharine%20Moon&st=nyt&scp=1.

Jon Rabirot and Hae-rym Hwang. “ ‘Juicy Bars’ Said to be Havens for Prostitution Aimed at U.S. Military,” Stars and Stripes, September 9, 2009, News section, Pacific edition, <http://www.stripes.com/article.asp?section=104&article=64633>.

대중의 생각과 달리 사실은 기지촌이 숨어 있지 않다. 기지촌 성매매는 완벽하게 숨겨 있지 않고 한국과 미국 정부들은 이런 착취에 대해서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지촌 성매매의 버팀을 가능하게도 한다. 한국 정부는 기지촌을 관광특별지역이라고 명시하니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정한 관광촉진 정책에 의해 기지촌이 감세를 받는 뜻이다.^{각주38)} 미국 국무부 영사국의 공식적인 웹사이트에는 한국 E-6비자를 받기 위해 부정적인 HIV/AIDS 검사 결과가 필요하다고 써 있다.^{각주39)} 출입국 관리 사무소 직원이 전염성의 병을 걸린 사람들에게 입국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는 한국 이민법의 11쪽을 인용해서 이 웹사이트는 가수, 무용수, 다른 연예인 노동자인 E-6비자 지원자들이 음성 판정의 HIV/AIDS 상태를 시험해야 한다는 말이다. HIV/AIDS는 대부분 성을 통해서 전달되는 병이어서 이 특수한 입국 필요 조건은 외국 연예인들이 일 때문에 위험한 성적인 행동을 할 것이란 상황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자백과 미국 정부의 인식을 표현한다.

Flying in the face of popular assumptions, camp towns are not hiding. The camp town sex trade is not masterfully concealed, and regardless of the claimed observance of anti-prostitution policies, the Korean and American governments not only know about this exploitation but also facilitate its persistence. The Korean government sets aside many of these camp towns as “special tourism zones,” which signify the receipt of tax cuts approved by the Tourism Promotion Act regulat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각주40)} The U.S. Department of State’s Bureau of Consular Affairs lists the submission of a negative HIV/AIDS test result as a requirement for the acceptance of E-6 visa applicants to South Korea on its official website.^{각주41)} Citing Section 11 of the Korean Immigration Law, which states that “an immigration officer has the right to deny entry to those who

38. Ibid, 1.

39. Bureau of Consular Affairs, “Korea, Republic of: Country Specific Information,” U.S. Department of State, http://travel.state.gov/travel/cis_pa_tw/cis/cis_1018.html.

40. Ibid, 1.

41. Bureau of Consular Affairs, “Korea, Republic of: Country Specific Information,” U.S. Department of State, http://travel.state.gov/travel/cis_pa_tw/cis/cis_1018.html.

may have communicable diseases,” the site asserts only E-6 applicants, defined as “singers, dancers, or other entertainment workers,” must prove their negative HIV/AIDS status. Since HIV/AIDS is primarily transmitted through sexual intercourse, this specific entry requirement implicates the Korean government’s admission and the U.S. government’s awareness that these foreign entertainers will engage in risky sexual activity through the context of their work.

그 추운 1월 밤에, 사회적 평등을 위해 한국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한 아일랜드의 수녀가 기지촌을 몇 년 동안 방문하였지만 처음으로 본 간판에 대한 조용한 불신감을 나에게 알려줬다. 간판은 “한미우호 대광장”이라고 써 있었다. 그녀는 “여기를 그렇게 부른다”라고 얘기하였다.

At the end of that cold January night, an Irish nun, long advocating for social equality in Korea, shared with me her own quiet disbelief at a sign she had seen for the first time in her years of coming to this camp town. It read, “Korean-American Friendship Plaza.” She said, “That’s what they call this pl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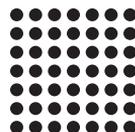
두레방상담시례집 **아메리칸 앨리의 여성들**



제1부

한국에서 겪은 나의 잊을 수 없는 경험

-
- 모니카 온 세상 사람들은 평등하다 _ 41
- 피비 한국에서 겪은 나의 잊을 수 없는 경험 _ 45
- 제니스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 내 몸을 이용한다 _ 54
- 앤 그러나 나에게서는 선택권이 없었다 _ 56
- 로리 나는 그에게 양육비를 받고 싶다 _ 59
- 마리아 나만이 집안의 유일한 노동자였다 _ 60
- 진 인신매매의 뒷에 걸리다 _ 64



모니카 : 온 세상 사람들은 평등하다.

평화가 함께하시기를 빕니다. 나는 한국에서의 나의 삶과 나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약간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나를 소개하자면, 나는 모니카이며 미혼이고 필리핀 여성입니다. 나는 1974년 12월 필리핀의 루세나 시의 근처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나에게는 언니와 여동생 두 자매가 있으며 나는 둘째입니다. 나의 두 자매는 이미 결혼을 했으며 자신들의 가족들과 함께 삽니다. 내게는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는 심장병으로 지난 2004년 9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모든 것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다 끝내지 않은 많은 계획들을 밟아셨는데 이제 나와 어머니가 서로 도와가며 이 모든 것을 끝내야했습니다. 나는 이미 5년 전에 한국 오산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전에 일하면서 나는 좋은 경험을 많이 했으며, 나와 매니저는 나의 계약서에 양쪽이 다 유익한 협약을 했었기 때문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이 끝났을 때 나는 필리핀으로 아예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4년 동안 일을 중단했고 어머니의 작은 논에서 일을 도왔습니다. 때로는 좋은 수확을 얻을 때가 있었지만 아주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매 3개월마다 벼를 수확하는데, 홍수와 폭풍이 오는 때는 일하는 데 몹시 어려웠습니다.

2004년 10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나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집의 공사가 다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여서 나는 집을 다 짓고 싶었습

니다. 하지만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다시 일자리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마닐라의 S 파워 기획사에서 다시 한 번 한국에서의 일자리를 지원했습니다. 저는 S 파워에서 가수로서 오디션을 받았고 지난 11월에 저의 VTR이 통과되었습니다.

우리 일행은 지난 2004년 12월 마닐라를 떠나 인천으로 들어오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리고 그해 23일에는 일을 시작하였고 크리스마스와 저의 생일을 한국에서 보냈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홀로 두고 멀리 떠나는 것이 몹시 슬펐지만 필리핀으로 돈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일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M 클럽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004년 12월 나의 T 기획사는 우리를 M 클럽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나는 이미 동두천의 L 클럽에 출연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네 명의 가수로 이루어진 그룹이었는데 우리의 기획사는 우리를 M 클럽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왜 우리를 L 클럽으로 데려가지 않고 M 클럽으로 데리고 온 건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M 클럽에서 5시 30분부터 밤 12시까지 술 판매하는 일을 했습니다. 노래는 10분 동안 하고 그 다음에는 술을 판매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한 달에 두 번 우리에게 휴일을 주었습니다. 첫 달의 월급날 우리는 월급을 받지 못했는데 그들은 그 이유가 우리가 사용한 비행기 티켓과 다른 절차의 수수료로 지불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2005년 2월 23일은 한국에서의 두 번째 달이었는데 저는 월급을 완전히 받았고, 매주 술 판매에 대한 저의 급료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한 잔에 20달러를 받고 술을 판매하는데, 4달러만이 저의 급료로 떨어졌습니다. 한 달 동안에 저는 150잔을 팔았으며, 지난 달 4월 23일 저는 175잔을 팔았습니다. 나는 술을 많이 팔아서 더 많은 급료를 받고 싶었기 때문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들은 매주 우리가 판매하는 술에 따른 급료를 주었습니다. 나는 더 많은 돈을 받을 때마다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집 짓는 것을 완성하기 위해 필리핀으로 돈을 보냈습니다. 클럽에서 일하는 것은 몹시 어려우며 저를 지치게 했고 술을 판매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나는 클럽에 많은 친구들이 있으며, 지난 2004년 12월에 M 클럽에서 나의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내가 그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클럽에서 큰 모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4개월 동안 그를 알고 지냈는데, 점차 그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3월에 일하면서 휴일이 되었을 때 나는 그와 데이트를 하면서 우연하게 어떤 일이 일어났지만 우리는 이것이 크게 중요하거나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남자친구를 사랑하고 그도 역시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생리를 하고 있지 않은 이유를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4월 24일까지 그러다가 확실히 임신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이것에 대해 남자친구에게 물어보았더니 그는 아기를 기르라고 말했으며 돌아오는 6월에 6개월간의 클럽에서의 계약이 완료되면 필리핀으로 돌아가서 나와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T 기획사에게 이 사실에 대해 정직하게 말하고자 했고 그들이 저를 도와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임신했다고 말한 후부터 그들은 내가 일을 그만두기를 원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6개월 계약을 다 마치고 6월에 일을 끝낼 수 있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간청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으며 계약을 완료하지 못했다고 내게 3,000달러를 지불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그들과 말하고 상대하는 것은 몹시 나를 어렵게 했습니다. 나는 이러한 사실들을 남자친구와 이야기했고 그는 이에 대해 보고서를 만들어 저를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나의 T 기획사가 나의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그들은 내가 3,000달러를 지불할 수 없다면 그냥 다시 일을 하라고 하면서 임신한 아이를 '유산' 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무서워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는 도움이 필요하며 필리핀으로 돌아가 나의 어머니를 다시 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어머니는 지금 몹시 나에게 걱정할 것입니다. 어머니는 내게 기도하라고 하시며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모니카야가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말하셨을 때 나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기회를 빌어 이곳으로 나를 데려온 두레방에서 일하는 미스 심과 모든 착한 목자 수녀님들에게 나에게 대한

모든 지원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여성이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 나라와 다른 민족인 이방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온 세상 사람들이 평등하다는 것은 믿습니다. 나는 인간으로서 우리들 각자가 살아야 할 자유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내가 임신하고 있는 아기를 낳아 그 자유를 주고 싶습니다.

나는 완전한 크리스천은 아니지만 좋은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 모든 것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직하고 싶으며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 항상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청합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을 기대하며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관심에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 더욱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피비 : 한국에서 겪은 나의 잊을 수 없는 경험.

안녕하세요. 저는 피비입니다. 저는 1983년 10월 필리핀의 북쪽지방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7남 3녀 중 첫째로 부모님을 포함하여 12명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가족 출신이기 때문에 꿈꾸던 대학 진학의 기회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 고향을 떠나 혼자서 마닐라에 가서 직장을 찾았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부모님이나 동생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마닐라에 있을 때는 서로 다른 여러 백화점에서 판매원으로 일했습니다. 제가 버는 돈은 집에 있는 부모님께 보내야 했기 때문에 낮은 급여로 혼자서 살 수 있는 집까지 얻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닐라에서는 친척집에 얹혀살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한국에 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필리핀에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다는 한국이라는 곳에 대해서는 그 전에 다른 친구를 통해서 들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기획사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신문에서 찾아 주었습니다. 저는 그 기획사에 전화를 했고, 어떤 방법으로 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곳에 전화했을 때 그곳 직원 중 한 명이 “네가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다면 노래 두 곡을 준비해 와서 사무실에서 오디션을 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무실 주소를 가르쳐 주었고, 저는 그날 바로 그 기획사에 가서 오디션을 보았습니다.

매니저에게 오디션을 본 후 그는 VTR을 찍기 위해 다음에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나가는 것이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VTR(개인 스튜디오를 말합니다. 그들은 끼를 가진 그 노래를 녹화합니다)을 위해서 다시 찾아갔습니다. 12월의 첫번째 주에 VTR을 다 마쳤고, 그들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VTR에 합격하면 그것은 쉽게 한국으로 가는 비자를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기획사에게서 VTR에 합격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비자가 나왔으니 준비를 하고 사무실에 와서 계약서에 사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하러 갔을 때 그들은 굉장히 서두르며 사인하기를 종용했고, 제 임금과 공제액에 대해서만 아주 간단히 설명해 주었기 때문에 저는 계약서를 제대로 읽고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계약서상에 있는 제 임금이 600달러이라고 적힌 것을 보았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사인하기를 서둘렀기 때문에 나머지는 모두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가 한 달에 400달러의 임금을 받게 될 것이고, 한국으로 가는 데 지출한 경비는 첫번째 달 월급으로 제한한다고 했습니다.

또 그들은 제가 받게 될 임금을 매달이 아닌, 1년의 계약 기간이 모두 만료된 이후에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매달 월급을 주지 않으면 집에 보내 주어야 하는 돈은 어찌하느냐고. 그랬더니 그들은 한국에 가면 그 돈을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말한 쉬운 방법은 손님들에게 주스를 팔아서 얻게 되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고, 그들은 아무 걱정하지 말라며 제가 받는 월급에서 빌려 쓰는 방법이 있고, 급한 일이 생기면 그때는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어요, 노력해보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저는 제가 하게 되는 일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들은 공연을 하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끔 손님들을 즐겁게 해주는 일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람들 혹은 손님들을 즐겁게 하는 일 또한 제가 하게 될 일 중의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필리핀을 떠났고, 2007년 12월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제 기획사 사장(혹은 매니저)인 Mr.송이 공항으로 마중을 나왔고, 그날 바로 저를 Y 클럽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Y 클럽에 처음 갔을 때, 저는 무대 위에서 춤추는 여성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저 일을 내가 하게 되는 것이냐고 Mr.송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는 클럽의 매니저와 얼마 동안의 이야기를 나눈 후에 그가 떠났습니다.

나는 조용히 사람들과 클럽 안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생각을 하면서 나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원했던 공연과 노래, 춤은 대체 무엇이었나? 그러고 난 다음 나는 클럽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클럽에서 일하면서 어떻게 돈을 모으는지 함께 일하는 여성들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들은 주스를 파는 것과 함께 “바파인(barfine)”이 필요할 것이라 했습니다. 바파인은 손님들이 원할 때 하룻밤에 200달러에서 300달러를 내면 언제든지 함께 클럽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때 대부분은 주변 모텔에 가서 그들과 성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종류의 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기획사의 사장을 통해서도 전혀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저 손님들을 즐겁게 해주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노력해 보자.’ 나는 어차피 이미 이곳에 와 있고, 내 일을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클럽에서 일하는 첫날, 무대 위에서 스트리퍼처럼 춤을 추어야 한다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다시 나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노력하면 돼.’ 나는 일을 원했습니다. 우리는 주중에는 저녁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주말에는 새벽 3시까지 일했습니다. 하지만 첫 달에는 한 번도 손님과 함께 나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클럽 안에서 손님들을 즐겁게 해주고 춤을 출 뿐이었습니다. 나는 여러 유형의 손님들을 상대했습니다. 미국인 공군(주중에는 자정까지, 주말에는 새벽 1시까지), 필리핀 공군, 귀영시간(자정이나 새벽 1시)이 지난 후에는 한국인 손님도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다른 태도로 우리를 대합니다. 어떤 이들은 좋지만, 어떤 이들은 불쾌하기도 합니다. 나는 이 일을 하면서 다른 손님들에게서 서로 다른 몇 가지의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내가 정말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개인적인 몸의 부위(음부)나 가슴 등을 만진다거나, 입술이나 다른 곳에 키스하기를 강요하기도 합니다. 이런 괴롭힘은 정말 끔찍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옳지 않은 것임을 알지만, 이것들 역시 내 일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달은 이런 일을 해야 한다는 것 때문에 매일 밤 울었습니다. 그러나 내 가족을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내 가족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그러니 더욱더 노력하면 이런 일도 참고 배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 달에 클럽의 매니저가 “네가 만약 더 많은 돈을 모으고 싶다면, 그리고 할당된 주스 양을 채우고 싶다면 손님들과 함께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돈을 더 벌 수 있고, 주스 할당량도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나는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그 일이 나에게 너무 힘든 일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는 그래도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손님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열흘에 100잔의 주스를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주스의 할당량을 채우면 300달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바파인을 위해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할당량을 채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클럽 안에서 주스를 파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몇몇 손님들은 단순히 클럽 안에서 춤을 추고 우리와 얘기를 나누는 것에만 계속해서 돈을 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손님들은 여자들과의 성관계를 원합니다. 그것은 클럽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에게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큰 돈을 얻는 대신에 우리 자신을 팔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존중과 존엄을 잃어버린 나를 발견할 때면 나는 내 자신이 너무 싫어집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부모님이 아신다면 분명 나를 싫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손님과 함께 나가서 성관계를 맺는 동안 저는 눈을 꼭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빨리 끝내고 나를 보내주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가슴

이 너무 아팠습니다. 손님과 나갈 때마다 제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를 달래며 약속했습니다. 6개월만 이 일을 하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다시 이곳에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임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직 아기를 낳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슬펐습니다. 하지만 낙태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낙태를 원하지도 동의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매니저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만한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말하면 아기를 낙태시키거나 다른 짓을 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니저나 기획사에 말하기 전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당시에 나는 생각할 것들이 너무 많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할 수 없는 문제들 때문에 늘 아팠습니다. 주변의 여성들이 나에게 낙태를 권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아직 미혼이고, 특히 필리핀에서의 삶은 너무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녀들이 내 아기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녀들의 얘기를 듣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수차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의료진찰을 하면서 내가 질염 같은 것에 감염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질병이 아기에게 해를 끼칠지도 모르는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나는 왜 이런 것에 감염되었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다른 손님과 바파인을 나갔을 때 아마 그 사람으로부터 감염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누구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콘돔과 같은 피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약을 처방해 주었고, 7일을 복용하고 난 이후에 다시 보자고 했지만, 7일 후에도 여전히 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약을 7일간 복용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감염은 낫지 않아 슬펐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검사를 받기 위해 개인병원에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내가 가진 질병이 아기에게 위협한지, 어떤 영향이 미칠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는 달랐습니다. 의사는 저에게 미코플라스마(mycoplasma)와 HPV 58이 있지만 질염은 없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약을 처방받았고, 치료도 받았습니다. 의사는 곧 치유될 것이라 말하면서, 그렇지만 충분히 쉬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내 남자친구에게도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그의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내 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내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질병을 어디서 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늘 손님들과 나갈 때면 콘돔과 같은 피임을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매우 우울해져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지 자문했습니다.

6월 첫째 주에 기획사 사장이 클럽에 와서 내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가져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고 물었더니 비자를 연장하기 위함이라고 해서 나는 그것들을 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나는 그날 기획사 사장과 얘기하기를 원했지만 그는 바쁘다고 하면서 다음에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나는 요즘 제가 처한 문제들을 그에게 말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6월의 둘째 주가 되었습니다. 사장은 나에게 전화를 해서 나와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장은 내 아파트로 나를 데리러 왔고, 그의 사무실이 아닌 낯선 곳으로 나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가 나에게 처음 건넨 말이 “너 임신했니?”여서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눈물이 났습니다.

사장은 내가 아직 계약기간이 많이 남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아주 큰 문젯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시 클럽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낙태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낙태를 원하지 않는다고 확실하게 말하면서, 6개월의 계약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아기를 낳고 다시 한국에 돌아와 나머지 계약기간 6개월을 채우면 안 되겠냐고 물었지만 그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는 아기의 아버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만약 내가 아기의 아버지와 결혼을 한다면 그것이 나를 도울 수는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아기의 아버지가 자기에게 계약서상의 돈을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가 동의할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아기의 아버지는 아

직 이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남자친구에게 돈을 내줄 수 있는지 물어보겠다고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장에게 만약 남자친구가 돈을 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는 낙테 말고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남자친구에게 말할 수 있도록 시간 여유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그것에 대해서는 사무실에서 남자친구와 나에게 다시 얘기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남자친구와 함께 사무실(B 연예기획사)에 갔습니다. 내 남자친구는 얼마를 내야 하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계약상 나머지 6개월치인 4,000달러를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높은 액수가 계산이 되어 나올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회사가 클럽으로부터 내 몫으로 받는 1100달러 중에서 내가 갖는 400달러를 제외한 700달러가 회사 몫이기 때문에 계약서상의 나머지 6개월치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 남자친구는 너무 비싸다며 그 정도의 돈을 지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알았으니 얼마를 낼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를 원하는지 알 수 없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매니저는 다른 두 가지 선택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3,500달러에서 4,000달러를 내면 내 계약서와 여권, 외국인 등록증을 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2,500달러를 내면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을 주겠지만 계약서는 그대로 매니저인 그가 가지고 있으며, 사업장 이탈로 간주하고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동안의 나의 임금에 대해서 물어보았을 때, 그는 임신으로 문제를 일으킨 벌금으로 임금은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왜냐고 물었습니다. 그것은 내 돈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동안 그렇게 일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좋아, 4,000달러를 내면 네 임금을 주지.”라고 했습니다. 내 남자친구는 그렇게 많은 돈을 내고도 여전히 도망자의 신세라면 어째서 돈을 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매니저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비록 기획사에는 도망쳤다고 말하겠지만 출입국 사무소에 신고하지는 않을 테니 여전히 6개월의 비자는 가지고 있게 되는 셈이라고 말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니저가 왜 계약서를 돌려주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돈을 내고도 도망친 것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매니저는 이것은 옵션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4,000달러를 다 받지 않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4,000달러를 너무 큰 돈이기 때문에 옵션을 주어서 깎아 주는 방법으로 돕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협상 자체가 클럽 안에서조차 비밀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와 남자친구는 그가 이러한 협상으로 돈을 원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협상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매니저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할지 안할지 그것을 어떻게 보장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매니저는 내가 도망쳤다는 사실을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고하지 않는다고 약속한다고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 약속을 받아들이겠지만 그 많은 돈을 구하는 동안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매니저는 얼마간의 기한을 허락했습니다.

그는 전체 벌 돈의 반인 1,250달러를 7월 3일까지 내면 외국인등록증을 주고, 나머지 반을 7월 마지막 주까지 내면 여권을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는 돌려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와 남자친구는 이 협상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받지 못함으로써 매니저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나의 작업장 이탈 신고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돈을 지불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서 없이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만을 나에게 팔면서 2,500달러가 그가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5개월 동안 일한 나의 급여를 받지 못할 것이고, 여전히 도망자 신분이라는 결과가 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매니저에게 알겠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보장이나 계약서 없이도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남자친구는 내 모든 것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NGO 단체인 두레방을 만났고, 그들에게 내 상황에 대

한 조인을 구했습니다. 나는 기획사에서 매니저가 나에게 원하는 것에 대한 권리가 그에
게 있는지, 그리고 내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과 계약서를 기획사로부터 받을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그런 권리가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만나게 된
것을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사례가 잘 해결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NGO 단체의 건투를 빕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주자
들을 더욱더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클럽가의 풍경



제니스 :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 내 몸을 이용한다.

안녕하세요. 제니스입니다. 나를 도와주셔서 고맙다. 나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머물 장소가 없어서 여전히 지혜씨 집에서 살고 있다. 나는 두레방과 지혜씨를 만나게 되어서 너무 고맙다. 나의 아기가아버지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지만 두레방이 나를 도와주었기 때문이다.

한국에 들어와 클럽에서 일할 때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주저하지 않았다. 하지만 클럽에서의 일은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았다. 특히 그들은 내 몸을 팔고 손님들에게 돈을 받는다. 오직 150 달러에 손님들과 나가서 밤을 지낸다.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 내 몸을 이용한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 나는 그래서 도망 나왔다.

텍저리 클럽은 내가 아는 한 한국 최고의 나쁜 지역이다. 나는 2년 동안 도망 다녔다. 그리고 남자친구를 만나 임신을 했다. 지금은 아기가아버지가 없이 임신 중이다. 내가 클럽에서 일할 때 지금의 아기가아버지를 만났다. 우리는 6개월간 같이 살았는데 그때 아기를 가졌다. 하지만 아기가아버지에게 임신했다는 사실을 말한 후 그는 나에게 아무 말 없이 나를 떠났다. 그가 나를 도와주지 않더라도 나는 아기에 대한 도움은 받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그의 아기로 보려고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나와 그의 아기를 쓰레기처럼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기아버지가 떠난 후 나는 많이 울었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 나는 아기와 함께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항상 생각을 많이 했다. 예를 들면 아기를 위해 집값을 지불해야 하고 조금의 음식을 사야하고, 조금의 물건을 사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 병원에 가서 언제 아이를 분만해야 할지 등등 많은 고민이 있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나는 너무나 지친 상태이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신에게 기도한다. 어느 날 나를 도와줄 사람이 나타나 아기의 출산을 도와주는 기도를 한다. 그리고 지금 나는 지혜씨를 만났다. 그녀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었다. 만약 지혜씨와 두레방이 없었다면 나는 아기와 함께 무엇을 해야 할지 정말로 몰랐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나는 지혜씨네 집에서 그녀의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다. 그들은 나를 돕고 정말 고맙다.

앤 : 그러나 나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내 이름은 앤이다. 나는 필리핀에서 예술홍행시증으로 한국으로 왔다. 나는 2007년 4월 한국에 도착해서 즉시 일을 시작하였다. 나는 동두천에 있는 J 바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나의 기획사 매니저는 한국의 클럽에서 가수로 일할 것이라 했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돈을 벌면 필리핀에 있는 가족들을 부양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 되어서 좋았다.

그러나 첫번째 일을 하고 나서 나의 일이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나는 연예인으로 손님과 클럽을 위해서 일을 하였다. 이런 상황이 나를 슬프고 우울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나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왜냐하면 필리핀에 있는 가족을 부양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와 세 명의 여성들은 매일 밤마다 긴 시간 동안 일을 하였다. 아주 적은 시간 동안만 잠을 자고 쉬었다. 손님들이 돈을 냈기 때문에 나는 매일 밤 손님 옆에 앉고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을 즐겁게 하도록 강요받았다. 그 시간동안 나는 성희롱의 피해자였다.

어느 날 밤 한 손님이 거의 나를 강간하려고 했다. 그 손님은 나의 가슴을 잡았다. 나는 도와달라고 소리를 질렀고 다른 여성들이 나에게서 그 손님을 밀었다. 그 손님은 곧 클럽에서 나갔다. 나는 이런 상황을 사장에게 어렵게 말했다. 그러나 그는 일의 한 부분이라고 하면서 내 말을 무시하였다. 그 시점에서 나는 일을 나가는 것이 무서웠고 계속 일

하는 것은 내 인생이 위험해질 것이라고 느꼈다. 그 사건 이후 나는 더 일하도록 강요되었다. 나는 7개월 동안만 일한다고 하였고, 그래서 나의 계약서가 끝나면 자유롭게 집에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 날을 기다렸다. 내가 이런 말을 매니저에게 했을 때 그는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어서 계속 바에서 일할 수 있다고 하였다. 나는 그곳에서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의 안전에 대해 무서웠기 때문이다.

나는 일을 그만두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2007년 9월 도망 나왔다. 나는 친구 집에서 머물면서 공장의 일자리를 알아보았다. 그렇지만 여성은 공장에 들어가기 어려웠다. 그래서 나는 나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나는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필요했다. 그래서 다시 매니저에게 연락을 하였다. 나는 몇 명의 친구들이 군산의 미군전용 클럽에서 일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매니저에게 군산에서 일을 할 수 있는지 물어보았고 그는 가능하다고 했다. 그렇게 매니저와 동두천에서 만났고 그는 나를 차로 군산 클럽에 데려다 주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일을 시작하였다. 군산 클럽에서의 대우는 동두천에서의 대우보다 좋았다. 그래서 좋은 대우에 좋았고 때때로 클럽 안에서 노래도 불렀다.

한 달 동안 일하고 월급을 받고 일주일이 지나갔을 즈음에 나의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다. 그것은 나의 인생 전체를 힘들게 하였다. 나는 오래 전에 무릎을 수술한 적이 있다. 그 무릎의 고통은 나를 걷지도 못하게 하고 일도 못하게 하였다. 나는 걱정이 되었다. 나는 사장님이 나의 건강문제로 나를 필리핀으로 돌려보내겠다는 말을 들었다. 비록 나는 열 달 동안 일을 하였지만 나의 세 아들이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충분한 돈을 벌지 못했다. 매니저는 나를 다시 동두천으로 보내려고 하였다.

그래서 나는 또 도망 나왔다. 나의 친구가 한 옷가게에 일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나는 그곳에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다. 나의 월급은 좋았다. 그리고 나는 충분한 돈을 가족에게 보낼 수 있었다. 비록 나는 좋은 직장이 있고 지금 상황이 행복하지만 내가 클럽으로부터 도망 나올 때 매니저는 내 여권을 가지고 있었다. 여권을 돌려받기 위해

그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나는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고 충분한 돈을 벌어서 나의 아이들에게 보낸다. 그리고 필리핀 집으로 갈 수 있는 비행기 티켓도 살 수 있다. 하지만 여권 없이 필리핀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이 나를 매일 슬프게 만들었고 나의 아이들이 보고 싶어 매일 울었다. 나의 소망은 여권을 만들어 다시 필리핀 집으로 가는 것이다. 나는 두레방에게 물어보았고 나의 상황을 글로 썼다. 이 글을 읽어 보고 나의 상황에 대해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다. 고맙습니다.

로리 : 나는 그에게 양육비를 받고 싶다.

나는 로리이다. A의 친구이다. A가 두레방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나는 지난 2006년 3월에 필리핀에서 한국에 가수로 왔다. 하지만 가수로 일하는 대신 나는 술 파는 여자 또는 성매매여성 중 하나로 살고 있다. 그들은 가수 대신 성매매여성으로 일하는 것을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그들은 동두천 텍걸이의 한 클럽에서 나에게 일을 시켰다. 나는 그곳에서 2개월 일을 하고 도망 나왔다. 왜냐하면 만약 손님이 돈을 지불 하면 그 손님과 나의 하룻밤은 의무였다. 그 손님들은 나와 함께 있는 잠자리를 즐거워 한다. 그때 내가 도망가면 그들은 나를 찾아 그들이 원하는 장소로 보낸다. 그러나 그들을 만나는 것이 무서워 보지 못했다.

나의 남자친구는 미군이다. 그와 사랑을 느낀다. 나는 그와 약 9개월 정도 함께 지냈다. 그가 나를 사랑하는 느낌을 받았다. 후에 우리는 아기를 가지게 되었다. 지금 임신한 상태이다. 나는 그가 실제로 아기를 원한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그가 나에게 아이를 원한다고 말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나를 떠나 다른 여자와 다른 곳으로 갔다. 나는 그에게 양육비를 받고 싶다. 그러나 그는 나에게 한 푼도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아기가 아니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나는 2008년 2월 12일 출산예정일이다.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두레방의 도움이 필요하다. 나는 그래도 여전히 행운아이다. 나는 A를 만났고 그녀에게서 두레방을 소개받았기 때문이다. 나를 도와주기를 희망한다. 정말 고맙습니다.

마리아 : 나만이 집안의 유일한 노동자였다.

내 이름은 마리아이며 필리핀의 바콜로드에서 태어났다. 나는 형제 중 맏이이며 유일한 딸이다. 아버지가 다른 3살, 7살, 그리고 9살 된 남동생들이 있다. 어머니는 무직이시고 아버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며 동생들 또한 마찬가지이다. 나와 세 남동생들은 이모가 길러주셨으며 이모는 네 명의 아들과 한 명의 딸이 있는데 딸은 잃어버려 지금까지 찾지 못하고 있다. 이모의 남편은 건설노동자이시고 이모는 산파이신데 고혈압으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고 계셔서 내가 집안의 유일한 노동자로 여러 가지 일을 하였다. 가정부로 일하기도 했으며, 다른 사람의 빨래를 해주기도 했고, 거리에서 꽃을 팔거나 남의 집을 청소해주기도 하였다. 팜팡가에 가기 전에는 신발가게의 판매원으로 일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었기 때문에 나는 좋은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웠다. 그것이 내가 동생들을 기르고 계시던 이모를 돕는 것이 힘들었던 이유이다. 나는 팜팡가에서 남자친구를 만났으며 다니엘이라는 지금은 6개월이 된 첫 아들을 낳았다. 그러나 남자친구의 집안에서 나와 내 집안이 돈이 없다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여 결혼을 할 수 없었고 나는 아기를 이모에게 맡기고 마닐라로 돈을 벌러 가야만 했다.

마닐라의 클럽에서 나는 2년간 일을 하였는데 클럽 매니저는 레스토랑과 클럽을 가지고 있는 여자였다. 음료 하나당 나는 50페소를 벌었고(1달러), 일주일에 500페소(10달러 정도)를 벌 수 있었다. 봉급을 받을 때마다 나는 그 돈을 내 아들과 동생들을 위해 이모에게 부쳐드렸다. 그러던 중 매니저가 나에게 '바비'라는 기획사를 소개시켜 주며 한국에 가보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하였다. 바비는 많은 여자들을 데리고 있었으며 그들을 한국에 보내는 남자였다. 바비는 내게 한국에서 2년간 체류할 수 있는 예술홍행사증을 얻어 주었으며 나는 더 많이 가족들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 기뻐했다.

2003년 11월, 나는 3명의 다른 여자들과 함께 이곳 한국에 도착하였다. 우리는 동두천의 H 클럽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나는 내 전 남편인 M을 만나기 전까지 그 곳에서 1년 3개월을 일을 하였다. 나는 클럽에서 주스걸로 일을 할 때 그를 만났으며 그는 좋은 사람처럼 보였다. 그가 내 아들을 비롯한 나의 과거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가족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마이클과 결혼하기로 했다. 나는 H 클럽의 매니저와 한국의 기획사에게 결혼을 해도 되냐고 물었고 그들은 괜찮다고 하며 클럽에서 나가는 서류만 작성하면 된다고 하였다.

우리는 2004년 3월 결혼을 하였으며 동두천의 턱걸이에서 살았다. 그러나 결혼생활은 좋지 않았다. 전 남편은 계급이 E-6라 돈을 많이 벌었지만 나에게서는 1달러도 주지 않았으며 부인으로서의 권리를 하나도 보장해 주지 않았다. 심지어 그는 자기 없이는 나를 집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게 하였다. 미군부대에서 그를 4개월간 공부를 시키기 위해 미국으로 보냈을 때 그는 임신한 상태였던 나를 필리핀으로 돌려보냈다. 나는 필리핀에서 4개월을 지냈고 그는 15일마다 200달러씩 나에게 생활비를 주었다. 4개월 후 2004년 9월 임신 6개월째였던 나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고, 27일 전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 친구 집에서 그를 기다렸다.

전 남편은 나에게 캠프 케이시에서 함께 살자고 하였으며 전 남편을 보기 위해 나는 캠프 케이시로 갔다. 나는 H 클럽에서 일하는 친구가 2시에 돌아오기 때문에 친구 집의 열쇠를 가지고 간 상태였다.

전 남편은 임신한 상태의 나를 보고 성관계를 하고 싶다며 캠프 케이시의 막사로 가자고 하였다. 임신 7개월째였던 나는 배가 너무 불러 성관계가 고통스럽고, 또 친구에게 열쇠를 가져다주어야 하기 때문에 가지 못한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는 내가 성관계를 거부하는 것에 대해 화를 냈고 그의 막사로 돌아갔으며 나는 나의 친구 집으로 돌아갔다.

다음날 우리는 다시 만났고 캠프 케이시 안의 가게에서 그는 나에게 재킷을 사주었다. 그 날도 헤어진 후 그는 그의 막사로, 나는 친구 집으로 다시 돌아갔다. 다음날 우리는 다시 만났고, 나는 그에게 집을 구해줄 거냐고 물었지만, 그는 내가 성관계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왜 내가 너에게 집을 구해 주냐며 화를 내었다. 나는 임신 중 성관계가 고통스러워서 그렇다고 말을 했으나 그는 화를 내며 자신의 막사로 돌아가버렸고 나는 다시 친구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는 나에게 전화를 하여 나와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하였다. 나는 다시 잘해보려 했으나 그는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혼을 하고 싶다고 했다. 내가 아이는 어떻게 하느냐고 하자 그는 자신이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하였다. 나는 그의 상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그 사람 역시 나의 전 남편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을 원한다고 말하였다. 나는 울면서 친구 집으로 돌아갔고 당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다.

다음날 나와 전 남편은 이혼 절차를 밟으러 한국 법정으로 갔으며 그는 한국인 카투사 한 명을 통역을 위해 데리고 왔다. 나는 이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고 임신한 상태였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다. 우리는 이혼서류에 사인을 했고 나는 울면서 동두천으로 돌아왔다. 나는 친구에게 내가 한동안 그 집에서 지낼 수 있겠느냐 물었고 나는 아기를 낳을 때까지 그곳에서 지내게 되었다.

나는 둘째 아이를 미군 병원인 용산 병원에서 낳았으며 언니는 나와 내 아이를 돌보아주었다. 퇴원 후 나는 내 언니 집에서 지냈다. 언니는 문신가게에서 일을 하였는데, 친자확인검사에 대해 물어보았다. 그의 상관이 친자확인검사 기관에 전화를 하였고 나와 한국 여자 한 명은 친자확인검사를 하기 위해 캠프 케이시로 갔다. 나는 미군부대에 들어갈 수 있는 ID카드가 없었기 때문에 1st sergeant(중사 계급)인 언니의 친구가 우리를 들

어오게 해주었다. 우리는 군부대 내의 법률사무소로 갔으나 내 전 남편이 둘째아기가 자신의 아기가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양육비 지원을 받기 위한 친자확인검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법률사무소에서는 또한 내 전 남편이 6월 16일에 미국으로 떠난다고 하자 내게 만일 변호사가 있다면 그를 다시 한국으로 데려올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내 아기는 겨우 5개월이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것이 내가 지금 도움을 요청하는 이유이다. 감사합니다.

진 : 인신매매의 뎀에 걸리다.

일도 하고 미용학원을 다닐 목적을 갖고 2008년 9월에 한국에 입국했다. 우즈베키스탄의 한 음식점에서 웨이트리스(음식 갖다 주는 사람)로 일을 했다. 김이리나와 10년 동안 서로 연락을 하면서 지낸 사이였다. 나는 딸을 낳았으나 이후에 내 남편이 집을 나갔다. 그러자 김이리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공장에서 일을 하거나 레스토랑에서 웨이트리스로 일을 하거나 또는 한국으로 가라고 했다. 그런데 한국에 체류비자 없이 갈 수는 없었다. 그녀는 법적으로 문제없이 한국인과 위장결혼을 해서 한국에 입국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을 해서 나는 그것이 많이 불안했지만 이리나가 말을 잘 해서 안심시켜서 나는 한국인 김씨와 결혼을 하기로 동의했다.

이리나가 혼자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최 씨와 같이 그런 일을 했으며 최씨가 한국에서 남자를 찾고 비행기 비용을 냈다. 한국에 오기 전에 들어간 돈을 350만원 나눠서 갚아야 된다고 했다. 한국에 도착하고 나서 공항 출구에서 최씨와 김씨가 우리를 마중했다. 공항에서 밖으로 나갈 때 김씨가 자동차에 혼자 타고 있었고 우리는 나와 두 동료여성과 3명이 같이 최씨의 자동차에 탔다. 최씨는 우리에게 여권을 달라고 했고 내가 왜 그러느냐고 물어보니 외국인등록증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했다. 나는 최씨를 처음 타슈켄트에서 만나서 그렇지 별로 무섭지 않았다.

여권을 갖고 우리는 서울로 갔고 거기에서 사장님이란 여자를 만나서 우리를 두고 최씨는 우리를 떠났다. 우리는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면서 공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우리가 잠을 잘 곳을 보여 줄 때 우리는 충격을 받았다. 2층처럼 된 방이라서 서서 있을 수 없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한다고 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오해가 생긴 줄 알고 나는 최씨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는 안 받았다. 우리는 거기에서 마사지를 한 후에 손님 과 성관계를 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 나서 히스테리(울면서 몸을 떨었다)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최씨가 사장님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여 우리가 일을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긴다고 우리를 위협했다. 3일 뒤에는 우즈벡에서 이리나와 다른 여성 한 명이 한국에 왔으며 이리나는 우리와 만날 때 위장결혼 값과 들어간 돈 1,850만원을 갚아야 된다고 했다. 내가 그런 일을 못하겠다고 하니 이리나가 그 일을 안 해도 타슈켄트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서 우리 딸이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게 한다고 협박했다. 그리고 이리나가 다른 쪽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우리 단 둘이 있을 때 조심하지 않으면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했다.

최씨는 나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창녀촌에 갖다 주고 말을 듣지 않으면 거기에 판다고 했다. 나는 핸드폰이 없어서 집으로 전화를 못 하였다. (나중에 이리나가 사줬다.) 나는 그곳에서 2008년 11월 9일부터 2008년 12월 21일까지 일을 했으며 한국어도 모르고 여권도 없고 건물 안의 어느 곳이든지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도망을 못 갔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도망을 가도 우리말을 믿는 사람이 없을까봐 겁이 났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안산에 있는 “K 안마”(마사지)로 옮겨 놓았다. 우리는 그곳에서 2008년 12월 22일부터 2008년 12월 29일까지 일을 했다. 첫 가게도 그렇고 두 번째 가게도 그래서 우리는 돈을 받지 않았고 이리나와 최씨가 받았으며 그 사람들은 항상 둘이서 우리를 감시하며 업소를 왔다 갔다 했다.

담배와 생리대 등을 살 때 돈을 약 30~40만원 받았지만 우리가 직접 사러 가게에 가지 않았고 이리나나 웨이터들이 사다가 우리들에게 건네주었다.

그곳에서 일을 하는 동안 내가 한국인과 결혼을 한 친구의 전화번호를 찾아서 전화를 했다. 처음은 너무 창피스럽고 더러운 느낌이 들어서 친구에게 어디에서 일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말을 안 했다. 그런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결국 이야기를 해 버렸다.

그러자 우리 친구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나서 2008년 12월 30일 아침에 경찰들이 와서 우리를 거기에서 해방시켰다. 경찰서에서 우리는 조사를 받고 여권을 받고 (어떻게 여권을 경찰들이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우리를 놓아(풀어)줬다.

우리가 서울에 온 지 이틀 후 K 안마에서 번 돈을 받아서 친구들이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나는 성매매 전과기록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안 돌아가고 친구 집에 있었다. (원고가 없으면 범죄 사실이 없는 것으로 생각함.) 나는 친구 집에서 한 달 동안 살다가 두레방에 도와달라고 하였고 현재는 쉼터에서 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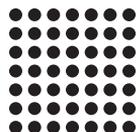
두레방상담시례집 **아메리칸 앨리의 여성들**



제2부

아메리칸 앨리에서 그녀들을 만나다

애슐리	그녀는 그저 파출부였다 _	69
안	짐처럼 무거운 어머니의 병원비 _	71
조셀	아들과의 이별을 감수하며 선택한 한국 _	73
한나	이제 더 이상 머물 곳이 없다 _	75
누피	감옥 같았던 그녀의 한국 생활 _	77
디에나	우연한 만남, 갑작스런 이별 _	81
오나	그의 아기를 가졌다. 하지만 그녀는 버려졌다 _	84
리디아	두려움과 거짓으로 얼룩진 한국 생활 _	86
지나	간판불이 꺼지는 새벽, 남모르게 울었다 _	89
유니	행복할 것만 같았던 그녀의 결혼 생활 _	95
엘, 폴리, 필리	같은 삶을 산 세 친구들 _	98
네이비	그들은 원래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 _	103
그레이스	구출과 함께 쉼터가 필요했던 그녀 _	105
줄리	집으로 가고 싶었으나, “집으로 돌려보내졌다” _	108
티나	짧았던 결혼 생활, 힘들었던 이혼 과정 _	110



애슐리 : 그녀는 그저 파출부였다.

우리는 애슐리를 그녀의 친구 아파트에서 만났다. 그녀는 두 명의 필리핀 친구들과 살고 있었다. 애슐리는 필리핀 민다나오 근처에 있는 작은 도시에서 살았으며, 부모님과 형제 13명이 있다. 어머니와 여형제들은 바느질과 파출부 일로 남자형제들은 수리 등의 일로 벌이를 하고 있다고 하였다. 아버지는 일정하게 하는 일 없이 간간이 남의 농사일을 거 들고 있으며 매일 술로 보낸다고 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한국에 가면 가수로 일하며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을 동네 이모를 통해 알게 되었다.

애슐리는 기획사를 통해 오디션을 보고 2004년 10월 예술홍행사중으로 한국으로 왔다. 한국에 도착한 후 동두천의 한 클럽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녀는 클럽에서 2개월 동안 일하였다. 클럽에서는 주스판매 실적이 좋지 못하여서 클럽 사장은 애슐리를 다시 필리핀으로 되돌려 보내려고 하여 클럽에서 도망쳐서 옷가게에서 일을 하였다. 그리고 캠프 케이시에서 근무하는 미군을 만나서 결혼을 하였고, 16개월 된 딸을 키우고 있었다.

애슐리 남편은 6월에는 군 복무를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남편은 애슐리에게 딸은 자기가 데려갈 것이라고 하였으며 애슐리가 자신은 딸과 절대 떨어질 수 없다고 하자 애슐리도 함께 가자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애슐리는 한국에서도 남편에게 아내로서의 올바른 대접이 아닌 파출부 같은 대접을 받으며 살았기 때문에 미국에 가면 더욱 힘들 거라고 생각하여 거부하고, 남편에게 자신은 딸과 함께 필리핀으로 갈 거라고 하였다.

그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 상의했던 날에 애슐리와 남편은 크게 다투었다. 그때 남편은 애슐리에게 폭언을 하며 벽에 밀쳤고 아파트 주위를 돌며 그녀를 끌고 다녔다. 그로 인

하여 내가 만날 당시 애슐리에게는 몸에 타박상이 남아 있었다. 그 전에도 애슐리는 남편으로부터 싸울 때마다 구타를 당했으며, 딸을 미국으로 데리고 가고 애슐리는 길거리로 나가 혼자서 살리는 식의 협박과 학대를 받아왔다고 하였다. 또한 남편은 애슐리에게 가족수당 등을 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돈을 주지 않았고 생활비를 주지도 않았다. 그런 상황들이 더욱더 애슐리를 남편으로부터 벗어나고 싶게 하였다. 애슐리는 남편과의 이혼을 원하고 있었지만, 남편이 거절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남편과의 결혼생활을 계속할 마음이 전혀 없었다.

애슐리의 SOFA 비자는 6월 9일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원래 비자는 2월 9일 전에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6월 9일까지 연장을 할 수 있었다. 또한 미군은 5월 9일, 애슐리를 그녀가 거주하고 있던 남편의 집에서 퇴거를 시켰다. 마땅히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없었던 애슐리는 자신의 친구들의 집에서 같이 머물게 되었다.

애슐리는 일자리와 비자 문제가 해결된다면 한국에서 머물고 싶었지만, 딸을 키우면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과 비자를 연장시키는 방법을 알지 못하였고 주변사람들도 더 이상 비자 연장이 어려울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 비자가 만료되면 필리핀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자신의 딸을 보살피기 위해 저축한 약간의 돈을 겨우 가지고 있었을 뿐. 돌아갈 비행기 표를 구입할 수 있는 돈이 전혀 없었다. 그리고 애슐리의 남편은 딸을 데리고 미국으로 가고 싶어 할 뿐, 본인도 빚이 많기 때문에 애슐리에게 줄 돈이 전혀 없다고 말하였다.

두레방에서는 귀국지원을 하기 위해 안산에 있는 외국인이주여성쉼터인 '엘피스의 집'으로 애슐리를 연계하기로 하였다. 5월 30일, 나는 의정부역에서 그녀와 딸을 만나서 지하철로 '엘피스의 집'으로 갔다. '엘피스의 집'에 도착하여 수녀님과 인사를 나눈 후 애슐리의 상황에 대하여 수녀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후 필리핀 신부님이 오셔서 애슐리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애슐리는 쉼터에서 머무르며 신체적 휴식과 심리적 안정을 취한 후에 쉼터로부터 귀국을 위한 필리핀행 비행기표를 지원받고 그녀가 원하던 대로 자녀와 함께 며칠 후에는 필리핀으로 돌아갔다.

안: 짐처럼 무거운 어머니의 병원비.

2008년 1월, 한 통의 전화에 담긴 다급한 목소리를 통해 나와 안과의 만남은 시작되었다. 안은 미군인 남편과 18개월 된 딸과 함께 살고 있었다. 남편이 미군이기는 하지만 월급이 적어서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생활하기가 힘들었다. 안은 어린 딸을 어머니께서 돌보아주시면 베이비시터 비용 없이 안이 나가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남편과 상의를 하고 필리핀에 계신 어머니를 2007년 9월에 초대하였다.

그러나 원래 천식이 있었던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동네 병원으로 갔더니 큰 병원에서의 진료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병원에서는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판정이 나왔고 산소호흡기가 없이 스스로 호흡하기가 힘들다고 하였다. 체내 혈액 수치도 낮아서 병원에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여서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비가 많이 나오게 되었다. 안은 생활이 힘들어서 어머니를 초대하여 같이 살게 되었는데 어머니께서 편찮으셔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어 병원비 때문에 생활이 더 어렵다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하였다.

안의 필리핀 식구들 역시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어머니의 병원비를 해결할 수 없다고 하였고, 남편의 월급으로는 어린 자녀 양육비 등 생활비로도 부족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병원 입원이 한두 차례가 아니었고, 이전의 병원비로 인하여 남편이 대출까지 받은 상황이라 더 이상 빌릴 수도 없다고 하였다. 게다가 그 당시 안은 둘째아이를 임신 중이라고 내게 말하였다. 그러나 안은 현재 생활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중절수술을 원한다고 하였다. 그 말을 하는 안은 매우 슬퍼 보였다.

필리핀은 가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중절수술을 하지 않는다. 나는 그런 문화에서 살아온

얀이 중절수술을 결심하기까지 얀의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상황들이 얀을 얼마나 몰아붙였는지 알 수 있었다. 나는 입원중인 병원의 사회사업팀과 얀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혜택을 받을 길이 있을지 논의하였다. 어머니의 병원비는 외국인이라서 의료보험 적용도 안 되기 때문에 얀이 해결해야 할 병원비는 1천만원에 육박해 있었다. 또한 산소호흡기 없이는 호흡도 불가능했으므로 퇴원을 할 형편도 못되고, 필리핀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비행기를 타실 수도 없는 체력이었다. 다행히 얀의 어려운 상황을 병원에서도 이해하였고 사회사업 팀에서는 지원을 해주기로 결정하여 턱없이 높아져 있던 의료비 중 많은 부분을 감면을 받았고, 두레방에서도 병원비 일부를 지원하였다.

이후 적절한 치료로 체력을 많이 회복하신 얀의 어머니는 얀의 집으로 모셔가서 통원치료가 가능한 수준이 되었으며, 산소호흡기 문제는 빌리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얼마 후 얀은 어머니께서 퇴원을 하여서 필리핀으로 돌아가셔서 집에서 치료를 받으시기로 하셨다며 소식을 전해왔다. 얀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실려 있었다. 그리고 얼마 후 얀은 어머니와 딸을 돌보느라 시간이 많이 지나, 임신 중인 아기가 많이 자란 상태 되어 그냥 낳기로 하였다며 내게 소식을 전해왔다.

조셀 : 아들과의 이별을 감수하며 선택한 한국.

조셀은 2009년 7월 클럽을 이탈하였고 필리핀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두레방으로 전화를 하였다. 한국에 오기 전, 조셀은 필리핀에서 동네 식당에서 일을 하거나 밴드에서 1년 동안 노래를 부르며 생활하고 있었다. 이모의 소개로 기획사에서 한국에서 일할 기수를 구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2009년 2월, 기획사를 방문하여 사장인 김씨를 만나서 오디션을 보고 VTR을 만들고 비자신청을 하고 한국에 올 준비를 하였다. 2009년 4월 한국으로 왔다.

공항에서 Mr.J를 만났고 동두천에 도착하자마자 여권을 빼앗겼다. 통장을 만들고 싶어서 여권을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하여 물어보자 여권 사본만 주었다. 동두천에 도착한 첫날, 매니저로부터 손님 접대하는 법과 클럽 내에서의 옷차림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었다. 손님 앞에서 춤을 추거나 술을 따르고, 짧은 옷차림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셀은 무척 충격을 받았었다고 했다. 한국에서 술집여자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고 했다. 클럽에서 일한 처음 달은 월급을 받지 못하였고, 5, 6월에 계약서와는 다른 38만 원만 받았다. 그러나 기획사 사장은 조셀에게 월급을 받을 때마다 다른 금액의 월급이 적힌 계약서에 서명을 하라고 했고 거기에는 128만원의 월급을 받는다고 나와 있었다. 조셀은 차이가 나는 90만원은 사우나 멤버십, 외국인등록카드, 한국에 오기 전에 받았던 검진, 매니저 수당을 갚는 것이라고만 생각했다.

클럽에서 조셀은 한 잔의 주스를 팔고 1,500원을 받았다. 한 달에 250잔이라는 할당이 있었지만 다 채우지 못하였다. 그럴 때마다 클럽주인의 아들은 소리를 질렀으나 다행히 신체적 폭행은 없었다. 그러나 손님들에게 좀 더 육체적으로 다가가려는 조언을 들었

고 정신적으로 불쾌함을 느꼈다고 한다. 조셀은 필리핀에 있는 아들이 심하게 아프다고 하여 필리핀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필리핀에 계신 이모와 통화를 하여 클럽 생활에 대하여 말하였더니 이모는 조셀에게 일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설득을 하였다.

조셀은 필리핀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고 클럽 쉬는 시간을 틈타 도망갈 준비를 하였다. 소지품을 조금씩 꾸러서 나갈 때마다 목욕탕 시물함에 두었다. 그 후 친구 남편이 도와주어서 클럽에서 도망쳐 나왔다. 그러나 일하는 동안 받았던 월급은 버는 대로 거의 필리핀으로 보내었고 생활비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축을 하기도 어려워 조셀은 필리핀으로 돌아갈 비행기표 값이 없었다. 그리하여 조셀은 필리핀으로 돌아갈 비용이 없어서 친구 집에서 머물고 있었다. 또한 필리핀에서 서명한 계약서에는 처음 석 달 이전에 일을 그만두게 되면 6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사장인 김씨가 다시 자신을 찾아내서 벌금을 내게 할까봐 무섭다고 하였다.

조셀은 친구 집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것 같아서 다른 안전한 공간으로 가고 싶고 빨리 필리핀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였다. 두레방은 조셀에게 쉼터를 연계해 주었고 귀국 전까지는 안전하게 쉼터에서 머물기로 하였다.

한나 : 이제 더 이상 머물 곳이 없다.

한나는 2004년 6월 예술흥행시증으로 한국에 입국하였다. 필리핀에는 두 명의 여형제, 어머니가 살고 있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별거하여 아버지와는 연락을 하지 않고 있다. 한나는 필리핀에서 미용사로 일하였고 일본식 가라오케에서도 일하였다. 필리핀에서 친구를 통하여 월급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말과 함께 기획사를 알게 되었다. 기획사에서 는 일본과 한국을 갈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일본은 1년 동안 연수를 받아야 하고, 한국은 두 달 동안 연수를 받으면 갈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에 한나는 한국행을 택했다.

한국에 온 한나는 동두천에 있는 미군전용클럽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클럽에서는 주인의 성매매 강요가 있었지만 한나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계속되는 성매매 강요로 인하여 2006년 5월 클럽을 도망쳐 나왔다. 클럽에서 나올 당시 한나의 계약은 만료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클럽을 나와서 핸드폰판매가게에서 일하며 지내었다. 그 후 미군인 남편을 친구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 친절하게 잘 해주어서 같이 살게 되었다.

한나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두 명의 자녀를 두었으며, 남편은 한나가 둘째아이를 임신 중에 미군부대 내에서 기물을 파손하여 미군부대에서 쫓겨났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남편과 연락을 계속하고 있었지만 남편은 미국에서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돈도 없다며 자녀양육비, 생활비 등을 전혀 보내주지 않았고 자기도 여의치 못한 상황이라는 말만 하였다.

한나는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둘째아이를 출산하였다. 병원에서는 한나가 병원비를 지불 하지 못하자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대신 한나의 여권을 압수하였다. 한나는 한국에서 혼자 아이 두 명을 키우며 일을 할 수가 없고 생활하기 힘들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필리핀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였다. 그러나 병원에 아이의 출산 비용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어

서 여권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다. 한나는 남편으로부터 거의 생활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 그나마 아르바이트로 번 돈은 베이비시터 월급을 주고나면 아기용품을 사기에도 힘겨운 상황이었다. 현재 집세 낼 돈이 없어서 친구 집에서 같이 살고 있지만 친구도 아기를 키우고 있고 한나에게도 아기가 두 명 있기 때문에 친구 집에서도 달가워하지 않아 곧 나가야 할 상황이었다.

10월 말경 내게 한나에게서 전화가 왔다. 친구 집에 머물고 있는데 아기 두 명과 같이 지내다 보니 친구가 불편해 하며 한나에게 나가달라고 말하였다고 했다. 자신은 이제 더 이상 머물 곳이 없다고 슬픈 목소리로 말해왔다. 자신은 한국에서의 생활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필리핀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였다.

나는 11월 안산의 '엘피스의 집'으로 연락해서 한나를 맡아주실 수 있는지 부탁하였다. '엘피스의 집'도 워낙 자그마한데다가 심터가 필요한 이주여성들로 넘쳐났기 때문에 아기가 둘이나 있는 한나가 갈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 다행히도 이러한 악조건을 받아들여기로 결정한 '엘피스의 집'의 담당수녀님 덕분에 우리는 한나와 두 아기를 연계로 하였다.

또한 병원비 해결을 못하여 돌려받지 못했던 한나의 여권을 찾아주기 위해 나는 그 병원의 사회복지 팀에게 납득할 만한 상황을 설명하였고, 담당자는 여권을 돌려주었다.

11월 우리는 동두천 보산동에서부터 한나와 그의 자녀 두 명을 태우고 안산 '엘피스의 집'으로 갔다. '엘피스의 집'에 도착한 후 나는 담당수녀님과 그녀의 필리핀으로 돌아가는 문제 등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였다. 그리고 한나의 자녀 두 명은 여권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필리핀 대사관으로 동행해서 여권을 만들어주기로 하였다. 필리핀대사관 동행은 '엘피스의 집'에서 해주기로 하였고, 자녀들의 여권이 발급되면 필리핀으로 돌아가기로 하였다.

이후 한나와 두 아기는 '엘피스의 집'의 도움으로 무사히 필리핀으로 돌아갔다.

애밀리 : 감옥 같았던 그녀의 한국 생활.

큰 눈과 갈색 빛의 파마머리를 가진 애밀리는 의정부의 J 클럽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늘 J 클럽에서 일하고 있는 다른 친구들과 같이 두레방을 찾았다. 애밀리는 올 때마다 두레방의 정문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옆문으로 노크를 해 왔다. 주인이 두레방에 드나드는 것을 싫어하는데 주민들이 밀고해서 두레방에 다니는 것이 발각될까 염려해서였다.

애밀리는 2009년 봄에 왔다. 애밀리는 오자마자 클럽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다. 보통은 12시까지 일을 하였고 주말에는 새벽 3시까지 일을 하였다. 클럽에서는 미군들에게 주스를 팔아야 했다. 하지만 손님인 미군이 많이 없어서 주스를 팔지 못해서 클럽 주인은 그 화풀이를 애밀리와 같이 일하는 여성들에게 하였다.

J 클럽의 클럽 주인은 미군과의 성매매를 시키지는 않았지만 클럽 주인의 한국 친구들이라고 오는 남성들과의 성매매를 애밀리에게 강요하였다. 애밀리는 무섭게 소리치는 마마상과 클럽 주인에 의해 클럽 주인의 친구와 밖으로 나갔다. 그 친구에게 클럽 주인이 돈을 받는지는 잘 알지 못했다.

옆문으로 또 노크 소리가 들렸다. 어김없이 밝은 미소를 머금고 애밀리가 서 있었다. 애밀리는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배가 아프고 구역질이 난다고 하였다. 위궤양이라고 생각한 그때 애밀리는 자궁 쪽을 가리키면서 산부인과를 가기를 원했다. 애밀리는 클럽 주인의 친구와 성매매를 한 후 임신이 된 것 같아 검사를 해본 적이 있으나 다행히 임신은 아니었다고 하였다. 애밀리는 전부터 계속해서 피임약을 복용하였고 의사는 피임약 부작용으로 위에 무리가 생겨 아프거나 울렁거릴 수 있다고 하였다. 의사는 우선 위장약과 함

께 복용하고 그래도 계속 아프게 되면 그때는 피임약을 끊도록 처방하였다.

에밀리는 클럽에서 계속해서 손님에게 주스를 팔기 위해 매일같이 단 주스를 마시는 애밀리는 치아에 이상이 생겼다. 매일 치과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날이 종종 있었다. 나는 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지 애밀리에게 물었다. 그녀는 클럽 주인의 집에서 살고 있는데 클럽 주인이 허락을 하지 않으면 나갈 수 없다고 하였다. 잠깐 동네에 나가는 것은 허락을 해주는데 버스를 타고 나가는 거리는 허락해 주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래서 애밀리는 겨우 치아 치료를 하나 마쳤다. 앞으로도 몇 개의 치아를 더 치료받아야 하지만 확실하게 약속을 정하지 못하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였다. 나는 그녀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녀에게서 먼저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겠다고 하였다.

어느 날 매우 쌀쌀한 초겨울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핫팬츠에 민소매를 입고 나타난 애밀리를 보며 매우 놀랐다. 애밀리는 먹을 것이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후원으로 들어온 라면을 주었고 겨울이 다가오고 있지만 적당한 옷이 없는 애밀리에게 겨울옷들을 챙겨 주었다. 그리고 며칠 후 다시 노크 소리와 함께 애밀리는 친구들과 먹을 것이 없다며 두레방을 찾았다. 클럽 주인은 하루에 한 끼만 양배추로 된 밥을 주었고 그 외엔 주지 않는다고 하였다. 우리가 준 라면은 이미 먹은 지 오래되었다고 하여 남은 라면을 더 주었다.

클럽에서 같이 일하는 여성의 남자친구가 클럽에서 소란을 피웠다고 하였다. 그 여성은 다른 클럽으로 옮겨졌고 그 때 이후, 클럽 주인의 더 간섭이 심해져 애밀리는 밖으로 산책조차 나오기가 힘들게 되었다. 만약 물건을 사러 밖으로 나간다면 클럽 주인은 허락을 해주면서 여성들을 따라 나온다고 하였다. 그래서 애밀리는 틈틈이 클럽 주인이 낮잠을 잘 때 밖으로 나와 두레방에 오곤 하였다.

어느 날 문자가 하나 왔다. 애밀리 자신의 짐을 조금씩 두레방 앞에 두겠다고 자신들을 쉼터로 옮겨 주었으면 한다는 연락이었다. 성매매가 있고 감옥과 같은 생활을 하는 그곳에서부터 나오고 싶다고 결정하게 된 것이다. 애밀리의 큰 짐들은 미군 친구들의 도움으

로 겨우 옮길 수 있었다. 그리고 다음날 애밀리와 같이 일한 친구와 함께 두레방의 쉼터로 옮겨졌다. 나는 겁에 질려 창백해진 애밀리의 얼굴을 보며 쉼터에서 조금은 안정을 되찾았으면 하고 생각하였다.

다음날 쉼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애밀리가 입원을 하였다는 것이었다. 신장 쪽에 이상이 있다고 하였다. 애밀리는 의정부에 있었을 때도 배가 아프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럴 때마다 병원에 가자고 하였지만 숙소에서 나올 수 없었고 결국은 아픔을 참다가 크게 병이 난 것 같다. 다행히 입원치료를 하면 완쾌가 가능한 병이었다. 클럽으로부터의 작업장 이탈에 대해 출입국에 자진신고를 하려고 하였지만 입원으로 제때 신고를 할 수 없었다. 그리고 1주일 후 나는 쉼터를 찾았다. 건강한 모습의 애밀리가 그곳에 있었다. 우리는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하지만 애밀리는 월급도 받지 못한 상태였다. 그래서 쉼터에서는 월급을 받기 위해 노동부에 진정을 낸 상태였다.

며칠 후 애밀리와 쉼터 활동가가 의정부에 왔고 우리는 곧바로 노동부로 갔다. 노동부에서는 우선 여성들의 진술을 듣기 전에 기획사와 합의를 볼 수 있도록 대면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으나 서로의 진술이 어긋나자 노동부의 진행절차에 따르기로 하였다. 노동부에서는 계약서를 토대로 조사를 할 것이고 기획사 쪽에 그에 합당한 임금을 요구할 것이라고 하였다. 만약 기획사가 임금을 주지 않을 경우 형사입건이 되어 검찰에 송치된 후 기획사는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였다. 그 후에는 개인이 민사소송으로 다시 싸울 수 있다고 하였다. 우리는 기획사와의 대면으로 많은 시간을 소비하였으므로 그날 작업장을 이탈한 이유에 대한 소명을 위해 방문을 하기로 한 출입국은 갈 수 없었다.

일주일 후 다시 의정부를 찾은 애밀리와 쉼터 활동가는 기획사에서 지급하지 않은 한달치의 월급만 받기로 합의하고 노동청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기획사로부터 압수된 여권과 한 달 월급을 받은 애밀리는 서둘러 의정부 출입국으로 향하였다. 하지만 의정부 출입국은 양주로의 이전 준비로 바빠서 업무를 할 수 없었다. 이를 후 우리는 다시 만나서 이전된 양주 출입국사무소를 찾았다.

그러나 소명의 기회를 받고자 찾은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소송 같은 객관적인 사실이 있어야만 애밀리의 소명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하면서 애밀리의 진술조차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 우리는 담당자에게 기획사들의 고용관계의 문제점들과 이런 문제점들이 되풀이 되는 점을 이야기하며, 출입국사무소에서는 그 기획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득을 하였다. 이에 비로소 담당자는 애밀리의 진술서를 받았다.

애밀리는 침터로 돌아가 앞으로의 계획을 상담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녀는 클럽 주인으로부터 받은 성매매 강요와 클럽의 성매매에 대해 이야기하였지만 그대로 방관한 기획사 모두가 처벌을 받으므로 더 이상 애밀리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나는 애밀리의 희망이 담긴 목소리에서 그 어떤 날에도 듣지 못했던 힘을 느꼈다.

어렵게 소송을 결정한 애밀리가 이후 승소할 수 있는 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두레방에서는 응원을 할 것이다.

디에나 : 우연한 만남, 갑작스런 이별.

아웃리치 나가던 날 동두천에서 좁은 골목에서 평안한 핑크색 트레이닝 바지를 입고도 편안하게 걷지 못하는 한 필리핀 여성을 보았다. 그리고 나서 두레방을 홍보하기위한 리플렛을 가게에 비치하는 바람에 한 옷가게를 들어갔다. 그곳에 골목에서 우연히 보았던 여성을 있었다. 그 여성의 이름은 디에나이였다. 옷가게 사장은 디에나의 다리에 대한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면서 디에나의 다리에 대해서 도와 줄 수 도와주길 바라였다. 디에나는 다리를 반듯하게 펴지도 못하고 끌고 다니는 듯하였다. 통증이 심하고 상태가 무척 심각해 보여 나는 다음날로 그녀와 병원으로 동행하였다.

우리는 의정부에 있는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았다. 엑스레이를 찍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디에나는 걱정되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의사는 우선 약으로 치료를 하기로 하고 3주 후에 다시 병원을 찾기로 하였다. 정확한 결과를 얻지는 못하였지만 디에나는 약으로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디에나가 쉬는 날, 점심을 들고 그녀의 집에 방문하였다. 점심을 나누며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그녀의 다리가 아프게 된 사연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디에나는 필리핀에 아이들이 세 명이 있다. 그 아이들을 위해 한국행을 택하였다고 한다. 디에나는 필리핀에서 밴드로 활동했고, 아주 멋진 목소리를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한국에서 가수로서의 활동을 기대하며 왔다고 하였다.

하지만 디에나의 예상과는 달리 그녀는 미군기지 주변의 미군전용 클럽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디에나의 여권은 매니저가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두 달 정도를 일하는 동안 디에나가 좋아하는 노래는 부를 수 없었고 주인은 그저 주스 파는 것과 생매매만을

강요하였다. 그 강요가 싫어서 친구의 도움으로 클럽을 나왔다. 하지만 해외에서의 경험이 처음인 한국에서의 생활은 너무나 무서웠다. 그러나 딱히 돈벌이를 찾지 못하게 되자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 다시 클럽으로 돌아가야만 하였다.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간 기획사에서는 디에나를 군산에 있는 미군전용클럽으로 보냈다. 처음 클럽에서 도망쳐 나왔을 때 무리하여 디에나는 무릎이 아픈 상태였다. 군산 클럽에서 일하면서 점점 악화되었지만 매니저는 디에나의 상황을 외면하였고, 주스판매에 성과가 별로 없자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에나를 필리핀으로 돌려보내려고 하였다. 그래서 디에나는 다시 한 번 클럽에서 도망을 나왔다. 다행히 필리핀 친구의 도움으로 그 친구와 같이 살게 되었다.

보산동으로 오게 된 디에나는 옷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전에 일했었던 클럽의 주인이 옷가게 앞을 지나가면 디에나는 화장실이나 옷 무더기 속으로 숨곤 하였다. 그렇게 불안한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일을 하고 있었다.

3주 후 다시 찾은 병원에서는 한 달 정도의 약을 지어주기만 하였다. 그러나 3주 동안 약을 먹어도 계속 아팠으므로 한 달 정도를 먹어도 계속 아플 것만 같았다. 그래서 다시 3주 정도만 약을 먹기로 하였다. 그녀는 내게 일주일에 한 번씩 너무 많이 아프다고 문자를 보내왔다. 약을 먹고 있지만 왜 아픈지 알 수 없다고 하였다. 나는 더 큰 병원으로 디에나를 데리고 갔다.

다행히도 그곳은 무릎 전문 의사분이 있었고 꼼꼼하게 디에나의 다리를 살펴보았다. 의사는 엑스레이 상에서는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MRI 검사를 해봐서 더 자세한 원인을 알아보자고 하였다. 그러나 MRI 검사에서도 이상이 없었고 그 점을 의사도 이상하게 느끼는 듯하였다. 그러다 의사는 디에나의 다리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주입시키고 관절 운동을 시켜 보자고 하였다.

그리고 일주일 후 디에나는 내게 다리가 잘 구부려진다면 기쁨에 찬 문자를 주었다.

그리고 다시 찾은 병원에서 디에나의 나아진 다리 상태를 보며 의사는 자기 일인 것처럼 기뻐하였다. 병원에서 나오자 디에나는 기쁜 마음에 노래도 흥얼거리고 있었다. 나 또한 그 모습에 무척 기뻐했다.

디에나는 수많은 검사 때문에 무척 피곤했을 텐데 자기 자신보다 나를 더 챙겨주는 따뜻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 힘든 환경에서도 밝은 모습과 희망을 잃지 않은 디에나는 자신의 아이들을 위해 낮에는 옷가게에서 일하고 밤에는 레스토랑에서 밴드 활동으로 일을 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디에나가 출입국관리소에 체포되었다고 디에나의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친구는 서툰 한국어말로 디에나가 의정부 출입국사무소에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나는 너무나 놀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 고민하며 여기저기 전화를 했지만, 그녀를 나오게 할 방법은 어디에도 없었다. 체류기간을 넘긴 디에나는 그저 보호소로 넘겨졌다가 필리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다행히 일하던 옷가게 사장이 돌아가는 비행기 티켓을 사주어서 화성보호소에서 오래 머물지 않고 곧장 필리핀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보호소의 공중전화로 디에나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나에게 안부를 전해왔다.

그렇게 한국에서 자리를 잡고 행복을 느낄 때쯤, 디에나는 필리핀으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야만 했다.

오나 : 그의 아기를 가졌다. 하지만, 그녀는 버려졌다.

오나는 1975년 2월생으로 필리핀에서 왔다. 오나는 필리핀에서 결혼을 하여 아들 한 명을 낳았고, 남편과의 이혼 후에는 오나가 아이를 키워왔다. 남편은 이혼 후 경제적인 지원을 조금씩 해 주었으나, 다른 여자를 만나 재혼을 한 후부터는 지원을 해 주지 않았다. 때문에 17세 된 아이를 키우기 위해 돈을 벌어야 했던 오나는 한국에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2008년 2월 오나는 어머니에게 아이를 맡기고 예술홍행사증으로 한국으로 왔고, 도착하자마자 동두천에 있는 P 클럽에서 일을 시작했다. 연예인으로서 노래만 부를 줄 알았던 오나는 클럽에서 성매매를 강요하는 것에 매우 놀랐고 싫었지만, 월급은 너무 적었고, 주스 판매도 쉽지 않아 성매매를 하지 않으면 돈을 벌기 어려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하게 되었다. 또한 클럽에서는 여성들에게 일주일에 50잔의 주스 할당량을 주었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외출을 할 수 없었다. 클럽의 2, 3, 4층에 여성들의 숙소가 있었는데, 항상 외부에서 잠가둬서 외출하는 것이 어려웠고, 주스 할당량을 채운 여성들만 오전에 1시간 정도씩만 외출이 가능했다. 성매매 강요와 주스 할당량이 버거웠던 오나는 친구의 도움으로 클럽에서 일한 지 7개월 만에 탈출하였다. 클럽에서 탈출한 후 오나는 한 술집에서 가수로 일을 하였는데, 그곳에서는 월급과 팁을 주었고 성매매를 강요하지는 않았다.

2008년 10월경에 가수로 일을 하고 있을 때 지금 오나의 아기가 아버지를 만나서 사귀게 되었고, 2009년 1월에 임신을 하게 되었다. 이 사실을 아기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자, 모든 지원을 다 해 줄 테니 아기를 낳으라고 하여 오나는 아기를 낳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임신 7개월째부터 아기 아버지가 경제적 지원을 끊었고, 연락도 잘 하지 않았다. 8개월 만에 아기를 출산하게 된 오나는 아기가 예정일보다 2개월이나 먼저 나와 인큐베이터에 두어야만 했다. 조산으로 인하여 병원비가 많이 나왔는데, 아기의 아버지가 병원비를 내 주지 않아 미군과 함께 살고 있는 제일 친한 친구에게 돈을 빌려 병원비를 내었다. 현재 오나는 미군 남자친구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클럽에서 일을 할 때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이다. 동거중인 미군 친구는 작년에 아내와 이혼하고 부대 근처 빌라에서 4세 된 아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 출근을 하면 아이를 돌보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오나가 함께 살면서 아이를 돌보아주고 있다. 때문에 방세나 생활비는 모두 미군 친구가 부담하고 있고, 오나의 아기에게 필요한 우유, 기저귀 등은 필리핀 친구가 조금씩 지원해 주고 있다. 지금은 동거중인 미군 친구가 도움을 주고 있지만, 나중에 그 친구의 마음이 변하여 집을 나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나는 두려워하고 있다.

오나는 2010년 8~9월경 아기의 아버지가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인데 그 전에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 오나는 출산 후부터 지금까지 아기의 아버지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 아기의 미국 여권과 시민권을 만들어 달라는 오나의 요구에도 그는 해 주겠다고 말만 할 뿐,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그녀는 아기 아버지의 친자확인검사 자료는 없지만, 임신했을 때 아기 아버지와 함께 춤을 추면서 찍은 동영상 자료가 있고, 병원에서 아기를 출산했을 때 출생증명서에 아기 아버지의 이름과 서명이 들어 있는 서류를 가지고 있다. 또한 아기 아버지의 미국 주소와 본명, 사회보장번호 등을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나는 아기 아버지의 미국 주소지에 있는 자녀양육지원센터를 찾아서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기로 하였다.

현재 오나는 아기의 아버지와 이메일로 연락을 하면서 계속해서 아기에게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두레방에서는 아기 아버지의 미국 주소지가 있는 자녀양육지원센터를 찾아내어 이러한 사례의 여성에게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를 메일을 보낸 후 답신을 기다리고 있다.

리디아 : 두려움과 거짓으로 얼룩진 한국 생활.

2008년 12월 30일 안산 마사지 리디아를 포함한 4명의 감금된 우즈베키스탄 여성들이 안산 단원 경찰서 경찰들을 통해 구출되었다. 나머지 3명은 본국으로 돌아갔고, 리디아는 두 명의 브로커들이 처벌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아무도 의지할 곳 없는 한국에서, 간신히 숙식만 할 수 있도록 친구의 도움을 받게 되었다.

본국으로 돌아간 여성들도 리디아처럼, 자신들을 철저히 속이고, 성매매를 시켰던, 현지인 김이리나와 한국인 조씨가 처벌되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지만, 당장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없어,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리디아가 대신 전해주었다. 그 후, 2월 1일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그들(조씨와 김이리나, 김이리나는 이미 출국한 상황) 모두가 '기소중지' 되었다는 결과에 매우 실망한 리디아는 한국인 친구의 도움으로 두레방에 지원을 요청하게 되었다. 그 외의 사건 연루자인, 서류상의 배우자 김씨는, 위장결혼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며, 이미 리디아를 실종신고(결혼중개업자인 조씨의 지시에 따라)까지 한 상태였다. 또한 리디아가 구조된 성매매업소의 클럽 주인은 일급 장애인이기 때문에, 구속 여부를 검찰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정작 친구에게 전화하여,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한 리디아는, '성매매 피해자임과 동시에, 피의자'로 형사 입건된 상태였다. 왜냐하면, "위장 결혼까지 감행하여 한국에 불법적으로 입국"한 사실에 대해 스스로 자백했기 때문이었다. 사실, 리디아는 한국에서 미용기술을 배우거나 공장에서 일할 수 있다는 이야기에 한국행을 결정한 것인데, 김이리나는 조씨를 통해 위장결혼의 방법으로, 리디아를 한국으로 입국시켰다. 리디아는 당연히, 자신이 위장 결혼으로 비자를 받게 된 것이라고 알고 있다. 중개업자들의

지시에 따라, 한국인인 김씨를 만나, 결혼 서류를 작성, 제출하는 일을 직접 해야만 한국에 입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리디아는 걱정은 되었지만, 그와 같은 방법이 한국에서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일이고, 김씨와는 한국에서 더 이상 만날 일이 없다는 그들의 설명에 안심할 수 있었다.

리디아는 2008년 11월 F-2-1비자를 받고, 같은 러시아 여성 세 명과 함께 한국에 입국했다. 그녀는 이미 타슈켄트에서 10년 정도 알고 있던 조씨라는 사람, 즉 김이리나를 통해 조씨(현지에서 결혼소개업자로 활동, 김이리나와는 동거하고 있는 사이로 알고 있다)라는 브로커를 만나게 되었다. 그 후 조씨가 위장결혼 할 한국사람인 김씨를 우즈베키스탄에서 만나게 하여, 결혼 절차를 밟도록 해주었다. 그래서 결국 F-2-1비자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리디아는 한국에 입국한 날부터 서울 미아리(휴게텔), 안산(마사지업소) 지역의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게 되었다. 브로커들은 리디아에게 일단, 한국에 오게 되면, 핸드폰을 조립하는 공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취업에 대한 약속을 해주었고, 바에서도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바에서 일하면, 팁을 받으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도 말했다. 특히 리디아는 원래 미용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미용학원도 다니고, 한국의 발전된 미용 도구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한국에 입국하자 그러한 기대는 물론, 자기들만 믿기만 하라고 했던, 이리나와 조씨의 행동도 완전히 바뀌었다. 그들은 리디아와 다른 러시아 여성들을 지하방에 가두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그들에게 설명했다. 그들은 휴게텔과 마사지 하는 곳에서, 마사지가 아닌, 성관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디아는 경찰 단속 때문에, 처음 서울에서 일한 곳에서, 안산 마사지 업소로 옮겨졌다고 했다. 조씨와 김이리나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들을 노예처럼 끌고 다녔다고 말했다.

안산에서도, 서울에서처럼 똑같은 일을 해야 한다고 그들이 리디아에게 설명했다. 고객들과의 성관계는 필수적인 코스였다. 리디아는 “우리들은 울면서, 그들의 설명을 들어야

했고, 그것을 이행해야 했다”고 내게 말하였다.

리디아는 울면서, 성매매를 할 수 없다고 거부했지만, 그럴 때마다, 김이리나는 “딸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협박했고, 심지어 리디아를 어디론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성매매 여성들이 일하는) 데리고 가서, 그곳을 가리키며, “창녀촌에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조씨는 그렇다 쳐도, 김이리나는 여성들과 매우 밀접하게 관리, 통제하면서, “한국에서 성매매 한 사실과, 그로 인해 성병에 걸린 사실 등” 여성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가족들과 친척, 친구들에게 폭로하겠다고, 지속적으로 협박했다. 그들은 처음, 한국에 오기 전, 입국 비용으로, 350만원을 갚으라고 했던 것과는 달리, 빚을 계속해서 늘이기 시작했다. 한국에 온 지 4개월 동안, 리디아는 그들로부터 한 달 생활비(용돈)를 조금씩 받은 것 말고는, 수입은 물론, 1,850만원의 빚까지 떠안게 되었다. 리디아는 한국에서의 4개월 동안의 경험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후회하며, 몸과 마음이 매우 아프다”고 말했다.

두레방은 리디아의 병을 치료하도록 돕고, 위장결혼을 했으나 소송을 통하여 이혼할 수 있도록 법률적인 지원을 하여 주었으며, 리디아가 귀국을 원하였으므로 귀국을 지원하였다.

본국으로 돌아가는 러시아여성



조애나 : 간판불이 꺼지는 새벽, 남모르게 울었다.

필리핀의 남부 가장 비옥하고 큰 섬인 민다나오에서 조애나는 중산층에 속하는 집안의 막내로 태어났다. 조애나는 자신의 공부를 끝마치기 위해 일을 해야만 했다. 건축을 전공한 조애나는 졸업하기 전 한 학기를 남겨두고 집안의 형편으로 잠시 공부를 미뤄야 했다. 일자리가 마닐라보다 더욱 없는 민다나오에서 조애나는 일을 구하기가 너무나 힘이 들었다. 여러 가지 일을 하던 중 밴드 경험이 있는 조애나에게 연예인 매니저가 가수로 일할 것을 제안해 왔고 조애나는 노래에는 자신이 있었던 터라 괜찮은 제안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였다. 며칠 후 마닐라에 있는 기획사에서 연락이 왔다. 노래하는 조애나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자는 제안이었다. 비디오가 통과가 되면 한국에서 가수로 활동할 수 있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조애나는 한 번에 비디오가 통과되었고 2007년 12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조애나는 동두천의 R 클럽으로 갔다. 밴드가 있는 무대를 상상했으나 넓은 스테이지만이 조애나의 눈에 들어왔다.

미군 캠프가 있는 동두천에서는 밤이 되면 미군들에게 웃음을 팔도록 여성들을 억압하는 클럽들이 하나씩 문을 열고 반짝이는 간판에 불을 켜간다. 그 안에 조애나도 있었다. 매일매일 주스를 팔기 위해 조애나를 미군 옆에 앉혔다. 큰 음악에 말소리가 들리지도 않지만 조애나는 미군과 이야기를 하여야만했다. 이렇게 지내면서 조애나는 클럽의 간판불이 꺼지는 새벽 남모르게 울었다. 이런 일을 하게 되리라고는 절대로 생각해보지도 상상해보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주스를 많이 못 파는 날에는 클럽 주인은 소리를 지르면서 조애나와 같이 일하는 여성들에게 욕을 하였다. 손님이 앞에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조애나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였다. 조애나는 클럽 안에서 노래를 하려고 하면 클럽 주인은 시끄럽다며 조애나의 머리

를 잡아당기면서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럴 때마다 조애나는 창피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생겼다. 매번 반복되는 스트레스로 조애나는 자기 전에 또 한 번 울게 되었다.

조애나는 클럽 주인의 집에서 지내야만 했는데 그곳에서 조애나 말고도 같은 클럽의 필리핀여성들과 함께 지내야만 하였다. 클럽 주인은 추운 날에도 그들이 거주하는 방에 난방을 잘하지 않았다. 그래서 조애나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계속 콜록거리는 목감기로 고생을 해야만 했다. 클럽 안 역시 난방기를 켜지 않았는데, 이러한 환경은 짧은 옷을 입고 일해야 하는 조애나에게 건강상의 문제를 가져다주었다. 게다가 클럽 주인은 난방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생필품과 음식을 제공하지 않았고 기획사 또한 제공하지 않았다. 40만원이 조금 넘는 월급을 매달 필리핀의 집으로 보내는 조애나에게는 생필품을 살 돈이 충분하지 않았다. 80만원이 조금 넘는 돈을 받기로 하고 선택한 한국행이었지만 기획사는 수많은 이유로 조애나의 월급을 공제하였다. 그 일부분에 의료보험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기획사에서는 몸이 아파 병원에 갈 일이 있어도 의료비를 제공해 주는 일은 없었다.

그렇게 힘든 클럽 생활을 하며 지내던 중 손님으로 자주 온 미군 중 한 명과 좋은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그 미군은 조애나를 위해 주스를 많이 팔아주었고 조애나의 친구 주스 또한 많이 팔아 주었다. 이러한 좋은 만남은 조애나의 일상생활에서 소소하게 겪게 되는 작은 부분의 스트레스를 날려주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클럽 주인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수시로 조애나가 방에 있는지 확인을 하였다. 그리고 조애나가 밖에 나가는 것을 점점 제재하기 시작하였다. 그때 이후로 조애나는 남자 친구와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하였고 자주 싸우게 되었다. 그리고 몇 달 후 남자친구는 한국에서의 계약을 끝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갔다. 그 후 조애나는 자신의 뱃속에 아기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남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이메일로 전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하지만 조애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자신의 아기라는 자부심에 행복했기 때문이다.

조애나가 임신한 지 3개월이 되어 갈 때쯤 조애나도 기획사와의 계약이 끝나가고 있었다. 하지만 기획사는 조애나와 상의도 없이 계약을 연장하려고 하였다. 그것도 비파인

강요로 소문이 나 있는 클럽으로 조애나를 옮기겠다는 기획사와 클럽 주인의 말을 조애나의 친구가 듣고 조애나에게 알려주었다. 너무나 무서움을 느낀 조애나는 비록 여권이 기획사에 있었지만 포기하고, 짐 또한 포기한 채, 한 달에 한 번 그들에게 허용되는 휴일, 동두천 시내로 쇼핑하러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대로 클럽에서 나왔다.

조애나는 그렇게 2008년 10월 클럽을 도망 나와야만 했다. 쌀쌀한 가을 날씨였으나 다행히 조애나는 동료 필리핀 친구의 집에서 머물 수 있었다. 친구의 집에는 하니라는 또 다른 필리핀 친구도 있었는데 그녀도 바과인이 있는 클럽으로 옮겨진다는 말에 여권과 짐을 포기한 채 도망을 나왔다고 하였다.

내가 조애나를 만난 것은 그즈음이었다. 조애나가 살고 있다는 방을 찾아 허름한 원룸의 문을 두들겼을 때 큰 눈을 가진 조애나가 환하게 나를 맞이 하여주었다. 나는 조애나 뱃속의 아기가 조금은 걱정이 되었다. 조애나는 클럽에 있을 때 딱 한번 아기에 대한 진료를 받아 보았고 그 후에는 받은 적이 없었다고 하였다. 나는 임신한 상태에서 3개월가량 추운 클럽에서 지냈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병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틀 후에 다시 만나 조애나의 검진을 받기로 하였다.

늦은 오전 약속 장소에는 조애나가 먼저 나와 나를 기다려 주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임신 사실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하였고 모든 가족들이 축복해 주고 있다며 행복한 듯이 내게 말하여 나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다. 우리는 조애나가 지내는 집에서 조금은 떨어진 곳에 있는 병원을 찾았다. 전에 진료를 받았던 병원이라고 하였다. 조애나는 전에 초음파로 찍은 아기의 사진을 보여주며 진료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어서 조애나의 순서가 되었고 씩씩한 발걸음으로 들어간 몇 분 후 진료실에서는 울음 섞인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깜짝 놀라 들어간 진료실에서 조애나는 쓰러진 채 비명을 지르며 울고 있었다. 의사는 조애나의 아기가 이미 배속에서 죽어 있었다고 하였다. 의사는 빨리 제거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조애나는 진정이 되지 못하였다. 겨우 그녀를 부축해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갔다. 계속 비명 섞인 울음으로 조애나는 스스로 죽은 아기에 대한 위로를 하고 있었다. 그날 오후에 나는 그녀를 다시 찾아갔다. 빨리 수술을

해야 했기 때문이다. 오후에 다시 찾은 조애나는 수술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조금은 편안해지는듯하였으나 눈물이 조애나의 눈에 가득 차 있었다. 수술은 금방 끝이 났고 진통제로 수술 후유증을 달랠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조애나의 집을 방문하며 조애나와 대화를 많이 함으로써 조애나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하였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서야 나는 조애나의 씩씩한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나는 기획사로부터 받지 못한 여권을 찾자고 제안하였다. 처음에는 겁이 났던 조애나는 새로 만드는 것은 어떠한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하지만 '다시 찾을 수 있다'라는 나의 제안에 용기를 얻고 행동에 옮기기로 하였다.

우리는 출입국사무소를 먼저 가기로 하였다. 우선적으로 클럽에서 피해를 입고 클럽을 이탈한 것에 대한 소명을 하기 위해서이다. 소명에 대한 말을 꺼낸 우리에게 조사과 직원은 무슨 소명이나며 심사과로 내려가 보라는 것이었다. 심사과로 내려간 우리는 명확한 근거 규정을 찾고자 법률책만 둘러다보는 담당자와 대화를 해야 했다. 그리고 심사과 담당자는 여권을 새로 만드는 것이 어떠한지에 대해 조심스럽게 유도하고 있었다.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며 강하게 항의했다. 그러자 심사과 담당자는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직접 기획사에게 전화를 할 수는 있지만 권고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을 하였다. 나는 여권을 압류한 기획사들의 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처벌도 조치도 취하지 않는 출입국사무소의 무책임과 외국인 여성들만 억울한 일을 당하도록 방관하는 그들의 태도가 답답하기만 하였다. 그나마 우리들의 거센 항의로 조사과 담당자가 기획사에게 전화를 해주는 것으로 출입국사무소의 일은 일단락되었다.

며칠 후 조애나는 필리핀 대사관에 가서 상담을 받아 보고 싶다고 하였다. 그래서 찾은 대사관에서는 필리핀인 J 담당관이 조애나를 상담하였다. 조애나는 여권을 빼앗긴 경로와 왜 클럽에서 이탈을 했었는지에 대해 진술서를 썼다. 직원은 조애나 앞에서 매니저에게 전화를 걸었고 조애나의 매니저는 클럽에서 도망갔기 때문에 여권을 돌려 줄 수 없다

고 하였다. 대사관 직원은 매니저를 설득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확실한 해결 방안이 되지 않겠다고 느낀 나는 다시 조애나와 함께 대사관에서의 상담 후 의정부 2청 경찰청 외 사과를 찾아갔다. 여권압류와 관련하여 기획사를 고소하려는 우리에게 경찰은 우선 자신들이 기획사에게 연락을 취해 보겠다고 하였다. 그래서 전화를 받은 매니저는 경찰 앞에서 겁먹었는지 여권을 이미 대사관에 보냈다고 우체국 영수증까지 팩스로 보냈다.

아침에 대사관에 가서 전화를 했을 때는 보내지 않을 거라고 말했던 매니저는 이미 보냈던 것이었다. 대사관에 확인을 하기 위해 전화를 걸자 담당자였던 필리핀 대사관 직원 J는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데 굳이 경찰서를 찾은 것에 대해 우리에게 화를 내었다. 하지만 대사관에서는 조애나의 여권이 도착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후에 조애나가 다시 대사관을 찾아가 여권을 찾기로 하였다. 그날이후 조애나에게서 연락이 왔다. 대사관에서 확인한 결과에 자신의 여권이 있으며, 대사관 직원은 비행기 티켓을 가지고 온다면 여권을 내어주겠다고 하였다. 그녀가 며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2008년 12월 조애나는 남자 친구와 결혼을 한다고 하고 여권을 찾아왔다.

조애나는 여권을 찾는 대로 필리핀으로 돌아가려는 계획이었지만 조애나의 엄마가 편찮으셔서 병원비를 벌어야 해서 좀 더 한국에서 지내면서 일을 구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조애나는 불법인 상태여서 한국에서 일을 구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다.

그렇게 두 달이 지나갈 즈음 겨울의 어느 날, 조애나로부터 연락이 왔다. 계속 기침이 난다는 것이었다. 조애나의 기침은 내가 처음 만날 때부터 보았던 것이다. 나는 심각한 게 아닌가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찾은 의정부 의료원에서 조애나는 폐결핵으로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병을 키운 것 같으며 초기 치료가 없었던 것 같다고 하였다.

돌이켜 보면 사실상 조애나는 클럽에서 일할 때부터 추운 곳에서 자고 일을 하고 추위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다. 충분한 돈이 없었던 조애나는 그때 당시 병원에도 가지 못했다고 하였다. 의사는 입원을 권유하였다. 하지만 조애나는 혼자 병실에 있는 것이 겁이 나고 불안했는지 눈물을 흘렸다. 나는 의사에게 조애나의 상황을 설명하고 한 달 가량의

약을 받는 것으로 치료를 하였다. 의사는 조애나의 폐결핵은 남들에게도 전이가 되는 것이라 조금은 위험하니 친구들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거라고 이야기 해주었다. 그렇게 두 달 동안 조애나는 검사를 하고 약을 먹고 통원치료를 하며 지냈다.

그리고 2009년 4월 조애나는 내게 필리핀으로 돌아간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불법인 상태로 일을 구하기란 너무나 어려워 계속 일을 못하고 있던 조애나는 필리핀으로 돌아가 공부를 마치고 싶다고 하였다. 조애나는 여전히 폐결핵을 치료하고 있는 상태여서 의사로부터 소견서를 받고 필리핀으로 돌아갔다.

이후 조애나에게서 한국에서 도움을 주어서 너무 고맙다는 인사와 안부를 묻는 이메일이 왔다. 그리고 출입국사무소에 갈 때 함께 찍었던 사진도 보내왔다.

조애나는 아직도 호전되지 않은 채 여전히 필리핀에서 치료하고 있는 중이다. 따뜻한 자기의 나라에서 빨리 건강을 되찾기를 바란다.

유니 : 행복할 것만 같았던 그녀의 결혼 생활.

유니는 한국에 있는 필리핀 친구를 통해서 두레방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한국인인 남편과 결혼을 하여 한국에 들어왔으나 지금은 이혼을 하였고, 본인이 두 아이를 데리고 있다. 전 남편으로부터는 아이의 양육비로 매월 10~20만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금액이 너무 적어 적당한 금액을 받고 싶다며 두레방의 도움을 요청하였다.

유니(1973년)는 2000년 2월 한국인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여 한국에 들어왔다. 현재 나이는 37살이며 형제는 모두 11명이며 부모님은 두 분 모두 생존해 계신다. 한국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된 이유는 식구도 많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결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2000년 4월부터 남편과 같이 살게 되었으며 처음에는 남편도 잘 해주고 모든 면에서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면서 돈 문제나 성격상의 차이 등이 문제가 되었다. 전업주부로서 집에서만 생활을 하면 남편이 생활비를 책임져야 하는데 남편은 돈이 없다, 시간이 없다 등 핑계가 많아졌고, 점점 유니에게도 소홀해져 갔다. 남편이 2003년 11월에 귀화 신청을 해 주어 한국에서 체류하는 문제는 없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조금씩 틀어지게 되면서 방도 따로 쓰게 되었다. 시댁 식구들과는 사이가 좋았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유니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2007년 2월 유니는 결국 남편과 합의이혼하기로 하였으며 양육권은 자신에게 있는 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이혼 당시 합의 이혼으로 전문 통역관이 없어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본인은 잘 모르고 있었다. 그 당시 둘째아들은 필리핀으로 보내고, 큰 아들은 남편 쪽에서 키우고 있었다.

유니는 필리핀 친구들을 통해 알게 된 의정부의 기지촌으로 들어와 미군전용클럽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이미 귀화 신청을 하여 법적으로는 한국 사람이었으나 아직 한국어가 한국에서 일을 할 만큼 능숙하지 않아 결국 의사소통이 가능한 필리핀 친구들이 있는 곳으로 일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유니는 한 달에 한 번씩 아들을 보러갔으며 본인이 아들을 키우고 싶었으나 여전히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아이를 데려올 수가 없었다. 남편은 이혼 후 둘째 아이의 양육비로 20만원, 25만원, 30만원을 주었고, 필리핀을 갈 때 비행기 티켓 값 준 것까지 모두 포함하여 네 번 정도 받았다. 그 이후 아이의 양육비를 받기 어려웠다. 유니는 자신이 일을 하여 번 돈으로 본인의 생계와 둘째의 양육비로 필리핀에 보내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필리핀에 있는 둘째아들은 이미 한국국적을 지닌 상태라서 필리핀에서는 외국인이었고, 몇 달에 한 번씩 해야 하는 비자갱신비용, 학비 등으로도 많은 경비가 필요하였다.

유니는 전남편한테 아이의 양육비로 최소한 매달 40만원씩을 받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혼 후 아이의 양육비와 생계를 책임지다 보니 책임감이 가중되어 스스로 감당하기 너무 박차하였다. 유니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전 남편에게서 아이의 양육비를 받는 것이었으므로 나는 유니가 한국인인 이상 한국인 부인으로서의 권리를 찾아보기로 하였다. 그리고 구리에 있는 가정법률상담소에 같이 가보기로 약속을 하였다.

우리는 가정법률상담소에서 상담을 받았다. 상담원은 유니가 이혼할 당시 그것이 합의이혼이었는데 아이의 양육권을 어떻게 하기로 하였는지를 물었으나 유니는 당시 이혼을 하기로 하였던 것 외의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아는 정보가 없었다. 우리는 혹시 본인이 가지고 온 서류 중 빠진 서류가 있는지 다시 확인한 후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와서 서류작성 후 법원에 제출하기로 하기로 하였다. 서류작성 외의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는 직접 서류 접수 및 제출 등 본인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 아직 한국말이 서툴러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많은 걱정을 하였다.

유니의 개인 사정으로 1년 후 다시 만났을 때에는 큰아이도 필리핀에 데려다 주었으며 두 아이와 모두 떨어져 있게 되자 아이들이 보고 싶다며 많이 힘들어 하였다. 아이의 양육비에 대하여 묻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남편이 30~40만원 정도씩 주고 있으며 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그때그때 도움을 받아 지금은 양육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 하지 않았다.

현재 유니는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상황이 마련되어 두 아이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이 기뻐하였다. 하루빨리 집을 마련하여 두 아이들과 함께 살고 싶다는 유니의 바람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엘, 폴리, 릴리 : 같은 삶을 산 세 친구들.

첫 번째 이야기: 엘

다급해 보였지만 차분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엘이었다. 나는 모텔방에서 엘을 만났다. 엘은 클럽 주인으로부터 겨우 받은 휴일을 이용해 일하던 클럽에서 탈출을 하였다. 외출하는 것처럼 하면서 밖으로 나와 모텔로 몸을 숨긴 것이다. 처음 엘과 만남을 시도할 때 나는 찾기 쉬운 장소에서 만나자고 제안을 하였지만 엘은 매니저와 클럽 주인의 눈에 보일까 무서워서 밖에 나갈 수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나는 간단한 샌드위치와 물고 물어 물어 그녀가 있는 모텔을 찾아갔다. 엘의 표현으로는 호텔이었지만 클럽들 가까이에 있는 한국식 모텔이었다.

그저 자그마한 가방만 가지고 나와 있는 엘은 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 놓았다. 그녀는 한국에 오자마자 거의 석 달 동안 일했다. 그러나 한국에 오려고 필리핀에서 힘들게 비디오 심사를 받은 것이 너무나 후회된다고 하였다. 엘이 일한 클럽에서는 처음 한 2주 정도는 주스를 팔라고 요구했다. 그러다 2주 후 클럽 주인은 엘에게 성매매를 강요하였다. 미군들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지나고 미군들이 부대로 돌아가면 그녀가 일한 클럽은 외국인노동자를 손님으로 받았다. 클럽 주인은 그 다른 국적의 노동자들에게 돈을 받고 그 사람들이 마음에 드는 여성들을 지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면 클럽 안의 여성들은 클럽 주인의 강요로 인해 밖으로 나가야 한다. 생각하기도 싫은 일들이었겠지만 나는 엘에게 물었다. 몇 번 성매매를 나갔는지... 어두워지는 엘의 표정 너머로 셀 수 없이 나갔다는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성매매를 나갔을 당시 엘은 클럽 근처에 있는 모텔이나 또는 더 멀리 있는 모텔로 갔다. 그러면 클럽 주인은 아침 10~11시 사이에 숙소로 돌아오라고 명령하였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벌금을 내야했다.

엘은 두 번째 달부터 월급을 받았는데 필리핀에서 맺은 계약서에서는 거의 80만원이 되는 돈이었는데 한국에 와서는 50만원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것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27만원만을 받았다.

엘은 클럽에서 도망쳐 나올 기회가 없어서 이제야 나왔다고 했다. 클럽과 그녀의숙소는 조금 떨어져 있었는데 항상 클럽 주인이 데려오고 데려다 주고 하였다. 그러다 세 달이 다 되어갈 즈음에서야 비로소 그녀에게 휴일을 주었다. 그 기회를 통해 엘은 클럽에서 나올 수 있었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이번 달 월급을 받지 못해서 엘은 너무나 불안해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의정부출입국사무소에 가서 소명을 하고 빼앗긴 여권과 월급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출입국에서는 기획사에 전화해 출입국으로 여권을 가지고 오라고 말을 하였고 우리는 출입국에서 여권을 받았다. 하지만 출입국에서는 월급에 관해서는 책임질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며 노동부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기획사는 월급을 준비해 왔고 우리는 출입국사무소로 나와 월급을 받았다. 하지만 그 지역 특수 관광협회 회장이라는 사람이 영어로 쓰인 서류를 보여주면서 엘의 사인을 요구 하였다. 그 내용은 월급과 여권을 받고 성매매와 관련된 법률적인 과정을 밟지 않겠다는 각서였다. 하지만 나는 엘에게 사인하는 것을 제재하였다. 그 후 그 사람은 두레방 사무실로 소송 하는것을 제지하고자 몇 번씩 계속 찾아 왔다.

두 번째 이야기 : 폴리

그 다음날 오후 엘은 자신과 같은 기획사에서 같은 일을 당한 친구 폴리과 릴리를 소개해 주었다. 폴리는 자그마한 얼굴을 모자 속에 감추고 나왔다. 폴리는 2007년 겨울 한국에 왔다. B 클럽에서 일을 하다가 클럽이 문을 닫게 되자 폴리는 N 클럽으로 옮겨게 되었다. 하지만 그 전부터 폴리는 N 클럽을 알고 있었다. B 클럽에서 12시쯤에 끝나면 폴리는 동료들과 함께 N 클럽으로 옮겨져서 아침이 될 때까지 일을 하였기 때문이다.

N 클럽은 미군 헌병의 눈을 피해 성매매를 하고 있었던 클럽이었다. 그들의 성매매 강요에서 폴리도 벗어날 수 없었고 클럽 주인의 무서운 강요에 몇 번 성매매를 나갔다. 성구매자들은 미군을 포함하여, 방글라데시, 필리핀 등 대부분은 외국인노동자들이었다. 클럽 주인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15만원에서 20만원을 받고 여성들을 내보냈다. 폴리는 이후에 미군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그 남자친구는 매번 클럽 주인에게 돈을 내주고 폴리를 다른 남성들로부터 보호를 해주었다.

폴리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클럽과 그것을 방관하는 기획사를 고발하고자 클럽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여성들과 이야기를 많이 하였다. 그러나 클럽 주인과 기획사는 이들의 행동에서 재빨리 눈치를 채고 폴리를 주도자로 보았으며 그녀를 억지로 필리핀으로 돌려보내고자 하였다. 매니저에 의해 공항까지 가게 된 폴리는 매니저의 눈을 피해 다시 공항 밖으로 나왔다. 그대로 필리핀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폴리 자신처럼 고통을 겪을 여성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므로, 한국 사회와 필리핀 사회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다시 일하던 마을로 돌아온 폴리는 매니저 눈에 띄지 않게 머리를 검정색으로 염색하고 모자를 꼭 눌러쓰고 다녔다.

나와의 계속해서 진행되는 어려운 법률적 상담에도 불구하고 폴리는 똑 부러지는 말투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고 열변을 토해 내었다. 폴리에게는 꿈이 있었다. 필리핀으로 돌아가게 되면 자신의 대학공부를 끝마치는 것이었다. 자신의 꿈을 찾아 폴리는 우리와 상담을 시작한 지 두 달 후 필리핀 떠났다. 폴리가 자신이 쫓았던 꿈들을 이루었으면 한다.

세 번째 이야기 : 릴리

긴 생머리를 가진 릴리는 나이에 비해 너무나도 어려보이는 얼굴이었다. 그녀는 작은 입에서 조금씩 자신이 겪었던 이야기를 나에게 풀어내기 시작하였다. 엘과 폴리와 같은 기획사에 소속되어 있었던 릴리는 2008년 여름 한국으로 왔다. 그녀에게는 세 명의 자녀가 있는데 자신의 어머니에게 이들을 맡기고 양육비를 벌기 위해 한국행을 선택하였다.

한국에 오자마자 릴리는 곧바로 클럽으로 일을 나갔다. 그녀는 A 클럽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매니저의 친척이 하는 클럽이었다. 그 클럽에는 VIP 방이 있었는데 자주 매니저 친구들이 찾아온다고 하였다. 그때마다 매니저는 클럽의 여성들을 자신의 친구들과 사이사이에 돌려 앉혔다. 그 매니저의 친구들은 릴리와 같이 들어온 여성들의 몸을 막 만졌다. 릴리는 그때마다 성추행이 있었다고 마마상에게 말하였지만 마마상은 틱을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좋지 않느냐고 화를 내면서 릴리를 설득했다고 하였다.

그렇게 가을이 다가올 때쯤 릴리는 또 다른 클럽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S 클럽은 미군이 캠프로 복귀하는 시간이 되면 문을 닫는 클럽이었다. 하지만 릴리의 일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다. 미군복귀시간 이후가 되면 릴리는 S 클럽에서 K 클럽으로 옮겨진다. 그리고 릴리는 그곳에서 거의 아침이 다가올 때쯤, 일을 마쳤다.

K 클럽은 미군복귀시간 이후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 사람들을 손님으로 받았다. 클럽 주인은 거의 30만원을 남자고객들로부터 받고 릴리를 내보냈다. 그래서 릴리는 기획사 사장에게 이런 사실들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였지만 기획사 사장은 자신의 친인척이 하는 클럽들이어서인지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난 후에야 릴리는 자기보다 먼저 클럽에서 나온 친구들의 협조로 클럽에서 나올 수 있었다. 그러나 릴리도 일하는 동안 월급을 받지 못하였고 자기 여권조차 구경할 수 없었다. 릴리는 여권을 받고자 하였다. 그래서 매니저에게 연락을 하였지만 계속 연락이 닿지 않았다.

나는 작년에 상담했던 사례에서 한 여성이 필리핀 대사관을 통해 여권을 받았던 경험을 통해 이번에도 릴리의 여권을 돌려받고자 릴리와 함께 필리핀 대사관을 찾아갔다. 그곳에서 한 직원은 릴리의 이야기를 듣고 매니저에게 연락을 하였다. 하지만 역시나 연락이 닿지 않았고 담당자는 계속 연락해 보겠다고 하면서 우리를 돌려보냈다.

그리고 며칠 후 매니저와 연락이 되었다고 연락이 왔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대사관을 찾아갔다. 하지만 직원은 릴리의 편이 아니었다. 매니저와 통화한 직원은 매니저의 입장에서 남자친구 때문에 계약도 끝내지 않고 도망 나온 것 아니냐며 남자친구가 매니저한

테 막 욕을 했다고 하면서 매니저 편에 서 있었다. 릴리는 성매매강요로 인한 성매매피해를 입은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그 담당자는 그 성매매 관련된 부분은 두 번째 문제였던 것 같았다. 릴리가 필리핀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표를 가지고 오면 여권을 주겠다는 대사관 직원, 내가 문제의 중심에 벗어났다고 아무리 설득하려고 해도 막무가내였다. 필리핀대사관에서 돌아오는 내내 릴리는 울고 있었다. 나는 괜히 대사관에 데리고 가서 릴리를 힘들게 했는지 내심 마음이 편치 않았고, 너무나 후회되었다.

릴리는 자녀양육비를 벌어야 하는 자신의 처지 때문에 돌아가기 위한 준비와 쉽게 비행기 표를 살도 수 없었다. 그래서 릴리는 불법체류자로 전락해 버린 자신의 모습을 숨기며 하루하루 초초한 마음으로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필리핀에 있는 자신의 자녀부양을 해나갔다.

5개월이 지나갈 즈음, 주말에 자원봉사자로부터 연락이 왔다. 릴리가 출입국에 체포되어 있는 상태라고, 월요일이 되면 화성으로 옮겨질 예정이라고 하였다. 월요일이 되는 아침 일찍 나는 출입국사무소를 찾아갔고 그곳에서 눈물로 범벅이 된 릴리를 만날 수 있었다. 그녀는 일하던 공장에서 출입국 직원들에게 체포되었다고 울먹이면서 대답을 하였다. 그날 화성으로 옮겨진 릴리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자신의 여권을 아직 못 받았는데 대사관에 연락을 해주었으면 한다고. 나는 곧바로 필리핀대사관으로 전화해 그 담당자와 이야기를 하였다. 그러나 그 직원은 티켓을 가져와야 여권을 줄 수 있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나의 말을 끝까지 듣고자 하지 않았다. 그 직원의 말이 끝나자마자 나는 차분하게 릴리의 상황에 대하여 말을 해주었다. 나의 말을 들은 직원은 놀라며 릴리가 자신에게 직접 전화를 해 줄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나는 릴리에게 대사관 직원의 번호를 알려주었고 릴리는 그 직원으로부터 여권을 받기로 하였다고 하였다. 이후 화성보호소로 옮겨진 릴리는 남자친구의 도움으로 비행기 표를 살 수 있었고 릴리의 짐도 전달될 수 있었다.

그렇게 릴리도 한국에서 자신의 목표를 이루지 못한 채 필리핀으로 돌아갔다.

네이비 : 그들은 원래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

네이비는 필리핀 팜팡가 출신으로서 1978년생이다. 네이비는 한국에는 처음 왔고, 필리핀의 모든 연예 기획사들은 한국이나 일본 등지와 같은 해외로 가는 노동자를 구한다고 했다. 그녀는 부양해야 할 아이들이 3명(7살, 5살, 3살) 있으며, 한국에 오기 전에는 쇼핑몰에서 판매원으로서 일했다. 한국에 입국하기 전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나는 그녀에게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들을 수 있었다.

네이비의 기획사는 그녀의 집 바로 근처에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재우고 기획사에 가서 한 시간씩 노래를 연습하곤 했다. 1년 정도 연습을 하여 오디션에 합격하고 한국에 왔다. 비자를 받는 데는 약 한 달 정도 걸렸다.

한국에서 일하게 된 첫번째 클럽은 동두천의 S 클럽이었다. 그녀는 일본 가라오케에서 일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도 놀라지 않았다고 했다. 클럽에서는 문 앞에 서서 손님들을 받고, 그들에게 음료를 갖다 주는 일을 했다. 두 명으로 이루어진 그룹으로 왔으며 다른 멤버인 동료 여성은 이런 일을 좋아하지 않아 필리핀으로 곧 돌아갔고 성매매 강요는 없었다. 동료여성은 필리핀에서 이런 종류의 일을 해본 적이 없었고, 그녀의 여동생이 홍콩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고 싶어 했다.

미군들의 월급날에는 오후 3시에 클럽을 열었고 보통은 오후 5시에 열어서 미군들의 통금시간인 12시까지 일을 하였다. 그러나 그 시간 이후에는 네팔이나 다른 국적의 손님들을 받았다. 그것을 오버타임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주스 할당제가 10달러에 4달러였다(보통은 10달러에 2달러). 그래서 괜찮았다.

일은 괜찮았지만 S 클럽에서는 주스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L 클럽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그곳의 마마상은 항상 새로운 필리핀 여성을 데리고 오고 싶어 했다. 필리핀에서 네이비의 계약은 오기 직전에 기획사에서 사인했고, 계약서상의 월급은 750달러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그녀의 첫 월급은 400달러이었고 두 번째 달은 받지 못했는데, 기획사의 사장은 그녀가 필리핀으로 돌아가면 받을 것이라고 했다. 그들은 그것을 'KEEP' 이라고 하였다.

네이비는 왜 첫 월급으로 400달러만 받았는지는 모르며 아마 필리핀에서 든 비용 때문에 가져간 것 같다고 하였다. 아무튼 그들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6개월 일하는 기간 내내 그녀의 월급은 400달러이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510달러만 받았다. 나는 왜 그만큼만 주는지에 대하여 사장에게 질문했는지 물어보았지만 그녀는 괜찮다고 대답했다. 주스 할당제도 있고 우린 집과 음식이 공짜니까, 그들은 원래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고만 대답했다.

나는 필리핀 매니저들이 한국으로 와서 돈을 수급하기도 하는지 물어 보았다. 네이비는 그렇기는 하지만 자신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고, 아마 다른 동료여성들은 필리핀에서 기획사에서 먹고 자고 했으니까 그 비용을 가져가는 것 같다고 대답했다. 네이비는 지금 아이들은 엄마와 남편이 돌보고 있고,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남편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녀는 가족에게 자신의 모든 월급과 주스 할당제를 다 보내고 있었다. 왜냐하면 동생들이 대학에 다니고 있고 남편이 아이를 돌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편에게는 우유값으로만 매월 100달러를 보내고 있었다.

나는 그녀가 돈을 모두 송금하면 어떻게 살아갈까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했으나 그녀는 잠자리와 음식이 모두 무료이고 전화 카드 비용만 자신이 부담하면 된다고 했다. L 클럽에서도 네이비는 4개월만 일했는데 왜냐하면 또다시 주스할당량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곳도 바파인은 없었다. 다음으로 그녀는 N 클럽에서 일했는데 음료를 많이 파는 날이면 다음날 마마상이 휴일을 주기도 하였다. 그녀는 계약이 곧 끝나가서 집에 돌아가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이 클럽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고 싶다고 했다.

그레이스 : 구출과 함께 쉼터가 필요했던 그녀.

그레이스 사건은 그레이스의 미군남자친구 J가 2005년 4월 주한미군 현병여단 합동경찰정보국에 신고를 하고, 합동경찰정보국의 K가 한국의 경찰청 성매매 전담반에 신고를 하면서 한국 측으로 사건이 넘어오게 되었다. 이후 경찰청에서는 '벗들의 집'에 상담의뢰를 하였고, '벗들의 집'에서는 상담을 맡고 계시는 대표 수녀님이 부재중이어서 지원이 어렵다며 두레방에 상담을 의뢰하였다.

전화가 걸려온 당시의 상황은 의정부의 M 클럽에서 일하는 그레이스가 감금되어 있어 구출과 쉼터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두레방은 경찰청에 그녀에 관한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한 미군 J와 그레이스와 직접 통화한 후 지원을 시작하였다. 다음은 그레이스에 게서 들은 그녀의 한국 경험에 관한 내용이다.

그레이스는 2000년 7월부터 2001년 7월 한국에 예술홍행사증으로 입국하여 송탄의 O 클럽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 그녀가 첫번째 입국했던 때의 송탄에서의 경험은 아주 좋았으며 필리핀에 돌아간 후에는 어머니의 농사일을 도우며 생활하였다. 그러다 2004년 9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집안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그레이스는 필리핀에서 짓던 집도 완성하고 싶었으며 어머니를 돕고 싶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한국행을 결심하였다.

2004년 12월 두 번째로 그레이스는 한국에 입국하였다. 계약서상에는 동두천의 L 클럽에서 일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기획사는 의정부의 M 클럽으로 보냈다. M 클럽에서는 10분 동안만 노래를 불렀고 주스를 팔았다. 2차 강요나 벌금, 감금 등은 없었지만 늘 감시당하였다. 휴일은 한 달에 두 번 있었다. 첫 달에는 비행기 티켓 값으로 제한하며

월급을 주지 않았고, 둘째 달부터는 50만원씩의 월급을 받았다.

그레이스는 클럽에서 만나 사귀게 된 남자친구 J와의 사이에서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남자친구와 의논을 하였다. 그리고 6개월 동안의 계약이 끝나고 나면 결혼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2005년 4월 임신한 사실을 기획사의 사장에게 말하자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을 가져가 버렸다. 그리고 그 후 매니저는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을 받고 싶으면 계약을 위반한 위약금 3,000달러를 내라고 하였다. 위약금을 낼 수 없다면 낙태를 하고 일을 하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레이스는 불안하였으며 이 말을 들은 남자친구 J가 미군부대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청과 벅들의 집을 거쳐 두레방까지 연결이 되었던 것이다.

그레이스는 처음에는 기획사의 협박과 클럽의 불안한 상황에서 탈출한 후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을 찾아 필리핀의 가족들에게로 빨리 돌아가고 싶다고 하였다. 그 후 필리핀에 가서 남자친구와 결혼을 할 계획이라고 하였다. 나는 처음 신고를 한 미군 J와 그레이스와 통화하여 확인한 결과 감금된 상황은 아니었다. 그러나 신고할 당시에는 불안하고 어려운 상황이 되자 클럽에는 몸이 좋지 않다고 말하여 일을 나가지 않고 의정부의 숙소에 혼자 머물고 있었다. 그레이스의 탈출을 돕기 위하여 나는 숙소를 찾아가려고 하였으나 그녀는 주소도 모르고 위치를 설명할 수가 없었다.

감금된 상태가 아니어서 그레이스가 이동할 수 있었으므로 그녀에게 택시를 타고 의정부역으로 밤 9시 30분까지 오도록 하였다. 의정부역에서 그레이스를 만난 나는 쉼터로 함께 갔다. 그레이스는 쉼터에 도착하자 안심을 하였으며 나는 지하철과 택시로 쉼터로 이동하면서 간단하게 상황 파악을 하였다.

나는 그레이스와 상담을 한 후 해당 기획사 매니저와 접촉을 시도하였으나 그레이스의 매니저는 필리핀 출장 중이어서 연락이 닿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클럽을 탈출하여 쉼터

에 입소한 4일 후 해당 기획사의 이사와 접촉하여 협상을 하였다. 그리고 우리가 기획사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대신에 그레이스의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 위약금 없이 고용계약해지서를 받고 비자 기간 동안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업장이탈 신고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남자친구와는 필리핀에 가서 결혼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결혼하는 것이 그레이스에게 더 좋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결혼 절차를 설명하여 주었다. 그레이스는 썬터에서 심리적 안정을 찾아갔으며 한국에서 결혼하고 필리핀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한 후 남자친구에게 썬터에 머무는 동안 결혼할 것을 요구하였다.

두레방이 기획사 이사와 협상하여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을 돌려받기로 합의하였지만 미군부대의 자체 조사로 기획사 이사가 조사를 받고 그는 두레방과 만나기로 한날 하루 전에 그레이스의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을 미군부대 내 남자친구의 주임상사에게 제출을 하였다. 그리하여 그레이스의 남자친구가 두레방으로 가지고 왔고 두레방에서는 썬터에 있는 그레이스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그 후 그레이스는 결혼서류 준비를 하였으나 남자친구가 갑자기 변심하여 결혼을 해주지 않았고, 아기도 자신의 아기인지 믿을 수 없다고 억지를 부렸다. 필리핀의 가족 곁으로 빨리 돌아가고 싶었던 그레이스는 결국 결혼을 포기하고 6월에 썬터의 귀국지원을 받아 필리핀으로 돌아갔다.

두레방은 이 사건을 필리핀의 이주자지원 민간단체인 칸룽안센터에 연계하였다. 칸룽안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그레이스는 12월 24일 자신의 생일과 똑같은 날짜에 아기의 출산을 예정하고 있다.

두레방과 벗들의 집은 현재 양육비청구소송을 위한 친자확인검사 비용을 10월에 칸룽안센터를 통해 지원하였으며, 남자친구는 현재 아기의 양육비를 지원할테니 친자확인검사를 하지 말 것을 종용하였다. 그레이스는 현재 아기의 출산을 기다리며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줄리 : 집으로 가고 싶었으나, “집으로 돌려보내졌다”

줄리는 예술홍행사증으로 2002년 6월 한국에 입국하여 외국인 전용클럽인 의정부의 N 클럽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였다. 2004년 초까지 의정부와 평택 등의 클럽에서도 일을 하였다. 2004년에 예술홍행사증이 만료된 이후에는 미등록 상태로 한국에 머물렀다.

한국에 입국하자 매니저에게 여권을 빼앗긴 줄리는 2004년 가을 두레방을 처음 만나 여권을 찾아줄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나는 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경찰청은 결국 줄리의 여권을 찾아주지 못하였다. 두레방에서도 시원스레 해결을 하지 못한 채로 시간만 지나갔고 이후 줄리는 클럽을 전전하며 일하다가 1년 반 정도를 일산의 한 공장에서 일을 하며 가족들에게 돈을 송금하며 생활하였다. 그러던 중 2005년 말부터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귀국지원을 두레방에 요청하였다. 지금의 삶이 너무 힘겨워서 러시아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이다.

나는 두레방은 귀국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단체를 알아 볼 동안 기다려 달라고 그녀를 안심시켰고, 줄리는 불법 상태에서 살아가는 불안한 자기 심정을 내게 이야기했다.

그녀는 얼마 전에도 출입국사무소의 직원들에게 불법체류 상태의 여성들이 많이 붙잡혀 가서 자신도 너무 불안하다고 언제쯤이면 귀국할 수 있을지를 내게 물었다. 그녀는 보호소에 대한 이야기를 주위 사람들로부터 들었고, 그곳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다고 했다. 또한 자신이 지금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연락처가 없어서 많이 불안하다고 했다.

줄리는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해 보였고, 돈도 없어서 식량조차 살 수 없는 상태였다. 돈을 버는 것도 소용없고, 하루빨리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 나는 다시 한 번 두레방에서 할

수 없는 일을 다른 곳에 연계하여 부탁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고 줄리를 안심시켰고, 그곳에 다시 연락하여 일의 진행을 알아보고 이야기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줄리를 위해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쉼터에 입소할 것을 권유해 봤지만 그녀는 쉼터에 대한 불안과 불신이 있어 선택 결정하지 않았다. 또한 그녀가 살고 있는 주 위에는 다른 러시아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살고 있는 곳에 대한 신뢰가 더 큰 것 같았다.

2005년 말부터 귀국을 생각하며 마음 준비를 하였으나 2006년 봄까지 일하며 귀국을 확실히 결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던 줄리는 2006년 5월 말에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하던 이란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고 두레방에 다시 도움을 청하였다.

나는 줄리에게 긴급한 지원을 하였고, 역시 쉼터 입소와 의료 및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려 하였으나 이번에도 역시 줄리는 자신이 결정하지 못하였고, 두레방 활동가의 집에 머무른 뒤 성폭행범을 피해 동두천으로 거처를 옮겼다.

나는 줄리와 함께 가해자의 형사처벌에 관한 문제를 어떻게 할지를 며칠 생각해 보고 난 뒤 다시 상담을 하기로 하였다. 그러다가 며칠 뒤 6월 슬리퍼 차림으로 주변의 슈퍼마켓에 물건을 사러 나갔던 줄리는 의정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들에 의해 적발되었다. 줄리는 영문도 모른 채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끌려 의정부 보호소에 머물다가 다시 화성의 외국인 보호소로 이송되었다

나는 그녀를 의정부 보호소에서 면회한 후 긴급지원비를 지급하고 전화로 나와 연락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그리고 줄리를 도와줄 친구들이 없어서 그녀의 집으로 가서 짐을 챙겨서 택배사를 통해 화성보호소로 보내었다. 결국 그녀는 그렇게 강제적인 경로로, 그녀가 원하던 시점과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돌려보내졌다.”

티나 : 짧았던 결혼 생활, 힘들었던 이혼 과정.

티나(1979년생)는 2004년 9월 두레방을 찾아왔다. 남편이 자신과 결혼한 지 3일 만에 미국으로 떠난 뒤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고 약속도 지키지 않으므로 남편과 이혼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이혼을 해야 하는지 모르므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나와 상담을 하였다.

티나는 가족들을 부양할 돈을 벌기 위해 예술홍행시증을 발급받아 2003년 6월 한국에 입국하였다. 한국에 입국한 후에는 동두천에 있는 외국인전용 클럽에서 일을 하였다. 2003년 10월에 티나가 일하던 클럽에서 현재의 남편을 만나 사귀게 되었고 결혼을 약속하고 10월 말부터 동거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남편은 결혼을 계속 미루다 2004년 3월 결혼신고를 하였고, 결혼한 지 3일 만에 혼자서 미국으로 떠나 버렸다. 또한 티나에게 ID 카드나 SOFA 비자도 만들어 주지 않고, 생활비도 부쳐주지 않았으며, 데리러 오겠다는 약속 또한 지키지 않았다. 이로 인해 티나는 미등록 상태에다 어느 곳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생활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혼인상태가 정리되지 않아 본국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도 없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티나는 리차드와 하루 빨리 이혼을 하고 버려진 자신을 사랑하며 돌봐주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고 러시아에 있는 아들을 하루빨리 데려오고 싶다고 하였다. 리차드는 티나와 동거할 때는 미군의 신분이었지만 결혼할 당시에는 군대를 제대하여 민간인의 신분이었다. 때문에 티나는 미군부대에 남편의 문제로 도움을 청하였으나 미군측은 리차드가 이미 군대를 제대하여 더 이상 군인의 신분이 아니므로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하였다.

나는 티나의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미군부대의 ACS(Army Community Services)와 Legal Center 등에 연락을 하였으나 역시 리차드가 민간인의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군 부대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 그래서 미국대사관 노동 인권담당 서기관에게 지원을 요청하였다. 그리고 티나의 미군 남자친구에게도 미국대사관의 노동인권담당 서기관을 소개해 주었다. 그러나 미국대사관에서도 역시 이혼소송을 맡길 수 있는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것 이외의 도움을 주기가 어렵다고 하였다.

결국 두레방은 법률 지원을 통해 2004년 10월 한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였다. 그리고 티나의 남편 리차드와 협의이혼을 해보려 노력하였으나 잘 되지 않아 2004년 12월에 의정부지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티나의 이혼소송 관할권이 한국이 아니고 미국이라면서 계속 재판 기일을 잡지 않고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라고 이야기하였다. 하루빨리 이혼소송을 끝내고 싶어하는 티나에게 변호사는 두 달이면 끝날 거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두 달이면 끝날 거라던 티나의 재판은 날짜도 잡히지 않은 채 거의 1년 가까이 지나갔다.

1년이 다 되어가자 티나는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결국 두레방은 미국에서 소송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두레방과 결정을 한 비슷한 시기에 한국 재판부가 티나의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기일을 잡았으나 티나는 이미 너무 지쳐 있었고 재판기일로 잡힌 2006년 1월 말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두레방은 이미 결정한 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고 변호사를 설득하여 변호사 수임료로 지불한 금액 중 일부를 돌려받아 같은 해 9월 미국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지난 2005년 10월 두레방은 티나의 이혼 동의를 작성하고 공증하여 미국의 재판부에 제출하기 위하여 발송하였다.

티나는 소송 진행 과정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자신의 일을 지원하는 민간단체가 있다는 사실에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 티나는 현재 소송 결과를 기다리면서 동두천의 한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다.

결국 티나의 이혼 판결이 결정되었고 그녀는 나에게 그로 인해 벌금을 내기 위해 출입국 동행을 요청하였다. 벌금을 내고 난 후 티나는 지금껏 자신을 도와준 남자친구와 결혼하게 될 기대에 크게 기뻐했다.

두레방상담사례집 **아메리칸 앨리의 여성들**



제3부

새 땅을 찾아온 여성들, 그리고 ...

소명절차 미보장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

로잘린 돌아오지 않은 메아리를 외치다 _ 115

성매매피해사실 소송 사례

타미 타국의 땅, 외로웠던 그녀의 싸움 _ 123

일자리 없는 고향을 떠나다. 그리고...

타샤 10년이 지난 지금도, 이 곳에 _ 127

라니 새 땅, 새 삶을 꿈꾸며 _ 130

코니 울산에서 오산으로, 다시 의정부로 _ 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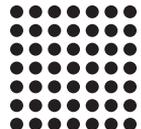
길고 지루한 투쟁, 양육비 청구소송

재슬린 낯선 땅에서의 만남, 남겨진 긴 아픔 _ 136

리나 그는, 아이의 아버지이기를 거부하다 _ 141

조쉬 마음 편히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_ 145

이자벨 양육비 지원, 첫 발자취를 남기다 _ 148



소명절차 미보장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2008. 12.)

로잘린 :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를 외치다.

로잘린은 동두천 A클럽에서 일하다가 송탄의 D클럽을 거쳐, 현재는 같은 지역의 M클럽으로 옮겨졌다. 2007년 9월 로잘린은 기획사에게 오산 캠프로 옮겨달라고 하여 이곳 오산으로 오게 되었다. 그녀는 이곳에서 주중에는 오후 3시부터 12시까지 일했고, 주말에는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일해야 했다. 그녀는 필리핀 대사관에 찾아가서 이러한 어려운 근로 상황을 이야기하고자 했지만, 다른 필리핀 친구들이 괜한 시간을 낭비할 뿐이라고 충고했다.

클럽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바텐더로 일하기를 원했지만, 다시금 그녀는 주스걸로 일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이곳 클럽에서는 2008년 1월부터 일하기 시작했다. 클럽 주인은 기획사에게 1월달 월급 110만원을 주었다고 나에게 말했지만 여전히 밀린 월급은 지급되지 않았다. 또한 기획사의 실제 책임자인 매니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부인의 수술을 핑계로) 월급을 지불하기로 약속한 날에 매번 오지 않았고, 그를 대신할 비서나 자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매니저는 미국 사람이며, 한국 여성과 결혼했다. 그의 부인이 K 기획사의 사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

매니저는 필리핀에 돌아갈 때 월급을 준다고 했지만 로잘린은 그 말을 믿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 당시, 많은 여성들이 (소속사와의 갈등이 있는 경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출입국사무소에 사업장 이탈신고가 되어 불법체류자 신세로 전락해버리는 경우

가 많았기 때문에, 로잘린도 체류자격상에는 별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자, 출입국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았다.

확인해 보니, 로잘린은 사업장 이탈신고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매우 당황스러웠다. 클럽을 무단으로 이탈한 것도 아니고, 월급을 주지 않아, 돈을 받을 때까지 일할 수 없다고 한 것이, 잘못이냐고 나에게 되물었다. 이미, 로잘린은 숙소를 나와, 미군 남자 친구 집에서 살고 있었다. 그녀는 남자 친구에게 의존하고 싶지 않아서 클럽에서 몰래 일하고 있지만, 출입국 직원들의 단속 때마다, 주인 눈치를 보느라고 힘들다고 했다. 게다가 업소 주인들과 기획사들끼리 친하기 때문에, 기획사에서 지금 있는 업소 주인에게 말하여, 로잘린에게 일을 맡기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로잘린은, 현재 기획사가 없어진 상황이라, 주스 판매에 대한 대가만 직접 클럽 주인에게서 받으며 일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매일같이, 많은 술을 마시면서 매상을 올려야 하는 부담감을 내게 호소하였다. 로잘린은 이곳 필리핀 여성들 대부분이 임금체불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 그렇다고 소속사를 바꿀 수도 없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나는 로잘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상담하였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진정서를 내보는 게 어떻겠는지 제안을 하였다. 그리하여 로잘린의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아래와 같이 진정(사건제목: 소명절차 미보장에 의한 인권침해)하였다. 이후 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였다. 그리고 차별시정위원회의 “법무부장관에게 호텔유흥(ㄹ-6-2) 사증 외국인의 사업장 이탈 신고서 소명절차 보장 등을 포함하는 호텔유흥(ㄹ-6-2)관리 지침을 제정할 것을 권고한다”는 결정을 받아냈다.

아래의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결정문의 내용이다.

1) 진정요지

진정인은 호텔유흥 사증으로 입국한 피해자의 체류 연장 절차를 위해 2008. 4. 7.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2008. 3. 7. 소속 기획사 B프로덕션으로부터 사업장 이탈 신고가 된 것을 알게 되었고,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는 소명기간 15일이 지났으며, 피해자의 출국을 강요하였다. 기획사의 이탈신고는 체불된 임금을 주지 않기 위한 것이고, 피해자는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사업장 이탈신고에 대해 연락받은 바 없어 이에 대해 적절한 소명의 기회조차 갖지 못함바 이는 행복추구권과 항변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피해자

2007. 12.부터 월급을 받지 못하였고, 소속 기획사 대표가 다른 클럽에서 근무하면 월급을 주겠다고 하여 2008. 1. 24.부터 M클럽에서 일했지만 2008. 2. 분 월급도 받지 못하자 2008. 2. 24.부터 일을 하지 않고 D클럽 2층에 거주하였다. 사업장 이탈신고가 된 2008. 3. 7.에도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거주지와 동일한 D클럽 2층에서 지내고 있었으며, 소속 기획사 대표 이씨와도 계속 휴대폰으로 통화했다.

나. 피진정인

(1)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가) 사업장 이탈 신고 이후 처리절차 및 의견

기획사의 사업장 이탈 신고 후 출석하여 사실관계를 소명한 결과 사업장 이탈이 확인되면 기 허가된 체류 자격 말소와 출국기한을 부여받고 출국하여야 하고, 기획사의 고용변

동 신고 철회가 있거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체류허가 및 G-1사증 변경을 검토한다.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이후 소재불명으로 처리되고, 체류 기간이 남아 있어도 긴급보호 대상이 되어 단속 절차를 밟게 되며, 단속으로 적발된 경우 48시간 동안 조사를 거쳐 강제퇴거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소재불명으로 처리된 경우 고용해지로 간주하게 되는데, 사업장 이탈 신고의 진위 확인 전이나 실무상 사클럽 주인(기획사)신고서 내용대로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

나) 사업장 이탈 신고 이후 외국인의 소명 절차

비전문취업(E-9) 사증의 경우 관리 지침을 통해 14일간 청사게시 후 소재불명 처리하는 절차가 있으나 호텔 유흥(E-6-2)사증의 경우 관련 지침이 없어 법령상 정한 소명기간은 없다. 호텔유흥 사증 외국인의 사업장 이탈 신고시 실무상 14일 경과 후 소재불명 처리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거나 단속으로 적발되면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내용을 검토하여 출국명령 여부를 결정한다. 호텔유흥 사증 외국인은 대부분 소속 기획사가 제공하는 숙소에 기거하여 소속 기획사가 이탈 신고를 하면 현실적으로 해당 외국인을 찾을 방법이 없고, 예술 흥행 사증 관련 업무가 많지 않아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관련 지침도 없어 사실상 소명절차라는 것 자체가 없다.

(2) J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과, 진정인과 상담한 자)

본래 예술흥행사증 관련 업무는 관리과에서 담당하는데, 당시 피해자는 이탈 신고일인 2008. 3.7.부터 불법체류 상태여서 조사과에서 상담한 것이고, 당시 사업장 이탈 신고에 대한 소명기간이 지난 후에 방문하여, 이후 절차에 대해 상담한 것으로 기억한다. 기획사로부터 사업장 이탈 신고가 접수되면 불법체류자로 등록되고, 비전문취업(E-9)사증과 달리 관련규정이 없어 E-9 관리 지침을 준용하여 14일이 지나면 소재불명으로 처리하며, 이후 단속으로 긴급 보호된 경우 무조건 퇴거시키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이 억울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고용주를 불러 조사하기도 한다. 사업장 이탈 신고가 접수되었다고 본인에게 통보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경우는 많지 않고, 특이한 경우에 해당 외국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내기도 하나 현실적으로 외국인의 등록지가 일하는 업소라서 본인에게 전달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신원보증인이 기획사인데 기획사가 이탈 신고를

했다는 것은 신원보증을 해지한 것이라고 보고 불법체류자로 단속하는 것이나 이와 관련된 규정도 없고, 기획사의 허위 이탈 신고 등을 조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외국인을 단속한 후에 고용주를 조사해도 허위 사실을 밝힌다기보다는 중재에 그치게 된다.

3) 인정사실

- 가. 피해자는 2006.12.4. 공연기획사 B프로덕션과 가수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E-6-2사증을 발급받아 2007.1.22. 입국한 후 위 기획사가 지정한 D클럽에서 근무하였다.
- 나. B프로덕션과 D클럽은 「출입국관리법」제19조(외국인을 고용한 자등의 신고의무)에 의거 '2008. 2. 24.부터 피해자가 연락 없이 외출한 후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업장 이탈 신고를 하였고, 이후 B프로덕션은 의정부 세무서에 폐업 신고하여, 2008. 6. 24. 폐업 처리되었다.
- 다. 피해자는 체류연장과 관련한 상담을 하기 위하여 2008. 4. 7. 진정인과 함께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였다가 소속 기획사 빅비트 프로덕션과 D클럽이 2008. 3. 7. 자로 사업장 이탈 신고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 라.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는 기획사 B프로덕션과 D클럽으로부터 피해자의 사업장 이탈 신고를 접수하고, 다른 절차 없이 14일이 지난 후 소재불명 사항을 업무시스템에 입력하였다.
- 마. 소재불명 등재는 '사클럽 주인으로부터 고용해지 되었다'고 간주되며, 「출입국관리법」제 51조(보호)에 의거 '강제퇴거 대상자'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이에 따라 단속의 대상이 되는 효력이 있다.

4) 판단

가. 판단기준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제

22조 제4항에서는 사법당국에 의한 최종 판결이 발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는 자기가 추방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제출할 권리가 있으며,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그 사건이 심사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협약 제33조 제1항에서는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은 출신국, 취업국, 통과국으로부터 입국조건, 해당국의 법률과 관행에 따른 그의 권리와 의무 및 해당국의 행정절차 또는 기타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타의 상황에 대하여 통지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실질적 소명절차의 보장

(1) 소명절차 보장의 의미

호텔 유흥 사증 외국인에게 기획사의 사업장 이탈신고에 대한 소명절차를 보장한다는 것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이며, 기획사의 일방적인 행사를 저지하고 행사의 실행을 연기시키는 효력을 지닌다. 즉, 외국인의 이러한 항변권은 기획사로부터 강요되는, 성매매, 유흥접객 행위, 호객 행위, 강제 노동 및 임금 체불 등과 같이 계약 외 불법적 노동 및 착취 행위 여부를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며, 호텔 유흥 사증 소지 외국인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가 분산되어 있어 기획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더욱 어려운 상황에서 소명절차를 보장한다는 것은 외국인에게 항변권을 보장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획사의 불법적 운영 행태를 점검 및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권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

(2) 실질적으로 소명절차가 보장되는지 여부

피진정인은 기획사로부터 호텔유흥 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 사업장 이탈 신고가 접수되면 비전문취업(E-9) 사증 관리 지침이나 「출입국관리법」제91조(문서의 송달)를 준용하는 관행에 따라 14일 정도 이후에 이탈 신고 된 외국인을 소재불명처리하고, 이후 단속되거나 자신 출석하였을 때 출국명령 여부를 재검토하게 된다. 또한 사업장 이탈 신고 시부터 사실상 '불법체류자'로 관리된다. 피진정인은 소명절차 등 호텔유흥 사증 관련 절차가 별도로 없으므로 언제든지 소명의 기회가 있으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체류 연장이나 G-1(기타)사증으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합리적인 사

유란, 질병, 육아 등으로 인해 연락을 하지 못할 만한 사유를 의미하고, 임금체불의 경우는 대체로 노동부에서 진정사건으로 다뤄야 기타의 사유로 인정된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답변한 것과 같이 호텔유흥 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인 기획사의 임금관계는 현금 지급 및 선지급 등으로 피해자가 임금체불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즉, 사업장 이탈 신고가 된 외국인이 소명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이미 '불법체류자'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 퇴거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무릅쓰고 출석하여, 임금체불 등 여타 기획사의 불법 행위를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더구나 이러한 소명 기회의 여부가 별도의 지침이 없이 출입국관리담당자 자의에 의해 결정되어 원칙적으로 권리 보장의 접근성을 제한 당하게 된다면 실질적인 항변권을 보장받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소재파악이 어렵다는 주장 관련

피진정인은 기획사를 통해 외국인의 거주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탈 신고가 접수된 후 해당 외국인에게 연락할 방법이 없고, 출석 요구서를 통지한다 하더라도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실질적으로 일일이 수소문하기 어려운 현실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한 개인으로서는 되돌릴 수 없는 강제퇴거라는 행정처분을 집행하면서 행정절차에 있어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전예지와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것은 인력부족과 행정 편의를 이유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 해당 외국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있겠지만, 이는 호텔유흥 사증 외국인뿐 아니라 비전문취업(E-9)사증으로 입국한 이주자에게도 나타나는 사례일 것이고,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 이탈 신고의 사실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절차조차 생략하라는 것은 아니므로 적어도 '고용허가(E-9)관리 지침' 상 비전문취업(E-9)사증 외국인에게 보장하는 절차와 같이 「출입국관리법」 제91조(문서 등의 송부)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이탈 신고에 대한 고지를 하거나 이에 대해 응답이 없을 경우 출입국 게시판에 출석 명령서를 게시하는 공식송달의 방법을 취해야 할 것이며, 소명의 방법도 굳이 출석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문서나 전화의 방법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사건 피해자는 사업장 이탈 신고를 알기 전까지 휴대폰 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있었고, D클럽 2층에서 줄곧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진정인을 통해 연락을 해보거나 클럽에 방문을 하였다면 사업장 이탈 신고의 진위여부를 가렸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이러한 사전 고지 및 청문, 사실조사의 내용이 절차적으로 보장된

다면 기획사의 횡포로 외국인들이 '불법체류'로 전락하거나 강제 퇴거되는 등의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고, 사전에 항변의 기회를 가지게 되어 피해를 구제 및 예방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다. 호텔유흥(E-6-2) 사증 관리지침 제정

기본적으로 예술홍행사증 발급은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 활동 및 교류를 목적으로 하기도 하지만, 이 사건과 이 연예, 연주, 가수 등 호텔·유흥 자격으로 입국하여 수익을 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노동자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호텔유흥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에게는 적어도 E-9(비전문취업)사증 외국인과 같이 근로와 관련한 절차가 보장되어야 하며, 1) 안정적 소명의 기회 제공: 기획사로부터 이탈 신고가 되었을 경우 우편(영문 병기)등으로 사전 고지하고, 이에 응답이 없을 경우 공시 송달 절차를 거칠 것과 2) 사업장 변경 허가: 기획사 등의 사클럽 주인의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 동일 기획사가 관장하는 사업장 변경을 넘어 기획사 변경이 가능하도록 할 것, 3) 사클럽 주인의 입증 책임 부여: 불법 행위로 인한 사업장 이탈을 주장할 경우 불법 행위 입증을 신고된 외국인에게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입증책임을 사클럽 주인에게 부여할 것, 4) 이탈자 발생 기획사(사클럽 주인)에 대한 이탈 공제:E-9관리지침과 같이 이탈자 발생시 이탈인원 수를 고용허용인원에서 공제하는 등 허위 이탈 신고 등을 방지하는 적절한 패널티를 가할 것을 포함하여 호텔유흥(E-6-2)사증 관리지침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성매매피해사실 소송 사례

타미 : 타국의 땅, 외로웠던 그녀의 싸움.

2007년 겨울 타미를 두레방 내담자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다. 약간은 통통한 체형에 큰 눈과 높은 코를 가진 타미는 두레방 활동가들 모두에게 친절하였다. 어느 날 타미로부터 배가 아프다고 전화가 왔다. 외과를 찾은 우리는 맹장으로 의심이 된다는 의사의 진료를 받았다. 며칠 후 타미는 맹장 수술에 들어가야 했다. 맹장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없어 의사는 모든 스트레스로부터 질병은 유발되기 때문에 맹장 또한 그럴 수 있다고 하였다. 스트레스성으로 유발된 질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수술 회복이 된 후 타미와 상담에 들어갔다.

친구와 같이 사는 타미는 자신의 집을 방문한 나에게 커피를 건네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한국에 오기 전 이미 5년 정도 일본에서 가수 일을 했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한국 또한 같은 시스템이라 생각하고 한국을 선택하였다. 한국에 온 다음날부터 타미는 동두천의 광암동(턱걸이)에 있는 B클럽에서 일을 시작하였다. 그 클럽에서는 타미에게 노래 부르는 것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손님 옆에 앉아 이야기를 하면서 주스를 팔아야 하고 성매매를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한 달 조금 넘게 일한 타미는 B클럽에서 19번의 성매매를 하였다고 하였다. 주로 B클럽 주변에 있는 미군을 상대로 하였고 가끔 한국사람도 상대하여야 했다. 타미는 성매매 하는 것을 거절하였지만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클럽 주인이 너무나 무서웠다. 그래서 성매매를 억지로 나간 적이 있고 계속되는 강요에 또 한 번 거절을 하였지만 필리핀으로

돌려보낸다는 말에 또 성매매를 나간 적이 있다고 하였다. 이런 상황에 대해 기획사에게 말하였지만 타미의 말은 그냥 무시되었다.

또한 감금과 다름 바 없는 생활로 숙소 밖을 나갈 수 없었다. 그렇게 한 달이 조금 지난 시점에 지옥 같은 공간에서 한 필리핀친구에 의해 B클럽을 탈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친구들을 통해 두레방을 알게 되었고 수술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였다. 눈물을 보이며 상담에 집중해준 타미에게 나는 성매매 관련한 소송을 해볼 것을 제안하였다. 타미는 생각한 후 다시 연락을 주기로 하였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후 타미로부터 연락이 왔다. 자신의 기획사로부터 또 다른 여성들의 피해자가 있다고, 기획사와 클럽 주인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2008년 봄에 타미의 성매매피해 부분을 소송하기 위해 함께 변호사를 찾았다. 변호사는 충분한 진술과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며칠 후 타미를 방문하였다. 영어보다는 타미의 모국어인 따갈로어를 사용한다면 자세히 진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 필리핀 통역사와 동행을 하였다. 나의 질문이 통역되고 타미의 대답이 통역되고, 그렇게 순차통역이 이루어지고, 법률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진술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사용되었다. 나는 진술을 정리한 후 변호사에게 보내고 미약한 부분에 더 보충을 하고 하여 마침내 소송장이 완성되었다.

소송을 진행 중에 양주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타미와 나는 아침 일찍 경찰서를 찾았다. 우리는 여자 통역사와 함께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 책상 앞에 앉았다. 힘든 조사가 진행 되었다. 경찰은 많은 질문들을 하였다. 그 질문에 맞춰 통역사도 계속되는 통역을 하였다. 중간 정도의 조사가 진행될 때쯤 조사 중에 그러면 안 되는걸 알지만 통역사는 타미를 편들기 시작하였다. 나보다 더 타미를 대변해 주었다. '바파인(성매매)' 이란 단어가 나왔을 때 그냥 단순하게 통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용어가 생기고 클럽에서 그 말이 사용될 때는 무슨 의미로 쓰이는지, 통역사는 타미의 사례에 관심을 가지고 대변해 주었다. 그렇게 아침에 시작한 조사는 저녁이 될 때까지 이어졌고 천천히 마무리를

하였다. 마무리 조사도 끝이 나서 경찰서 밖으로 나왔을 때 통역사는 타미를 이해하고 힘내라고 말을 해주었다.

한 달이 지난 후 경찰서에서 2차 조사를 해야 할 것 같다고 조사 동행을 요청하였다. 늦은 오후 우리는 경찰서를 찾았고 처음 조사 당시 왔었던 통역사도 와 있었다. 그 한 달 동안 경찰은 기획사와 클럽 주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다. 그 사람들은 타미의 진술과 서로 다르게 말을 하고 있었다.

처음부터 타미가 소송을 통해서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계속 머물고 싶어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의심을 한 경찰은 상대방과 조사 후에 타미를 더 의심하는 것처럼 보였다. 점점 더 커지는 목소리의 경찰은 상대방이 조사 내용을 그대로 타미에게 말을 해주었다. 그 내용을 들은 타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얼굴이 너무나 빨갱게 달아올랐다. 타미는 긴장한 나머지 같은 질문에 얼버무리고 말았다. 그럴수록 경찰은 타미를 의심하는 듯하였다. 그럴 때마다 나에게 경찰은 '정말 타미가 원해서 소송을 하였냐며 질문을 하였다. 타미는 진심으로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들로 인해 그들이 처벌을 받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리고 자기와 같은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을 결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더 상황이 안 좋아진 것은 기획사대표를 소송한 것인데 그 대표가 타미가 아는 얼굴이 아니었다. 여기서 타미는 자신이 실수하였다는 것에 더욱더 자신감을 잃어 가고 있었다. 경찰은 소송을 취소할 것을 유도하였다. 이 모든 말을 통역하고 있는 통역사는 타미가 다칠까봐 덜컥 겁을 내었다. 그래서 통역사도 자신도 모르게 타미에게 소송을 그만두는 것이 어떠냐고 묻기도 했었다. 타미는 빨리 필리핀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정이 있었지만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 다시는 자신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계속 한국에 머물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 소송은 타미에게는 그렇게 쉽게 끝내서는 안 되는 소송이었다.

늦은 오후에 시작된 조사는 밤 아홉시가 가까워져서야 끝이 났다. 경찰서 밖으로 나와

지친 타미와 나는 비로소 저녁을 먹었다. 그 때 타미에게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것인가에 대하여 다시 물어보았다. 타미는 확고하였다. 자신이 처했던 일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다시는 그런 일들이 한국에서 일어나서 안 된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소송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2008년 겨울 의정부 검찰청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가 되었는데 경찰서에서 한 조사가 부족한 점이 있어 직접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타미에게 연락을 하였다. 하지만 타미는 지친 탓인지 서울에 있는 사촌과 지내면서 일을 하고 있었다. 쉬는 날을 만들어 가겠다고 한 타미는 12월이 다 지나가는 동안까지 연락이 없었다.

이후 나는 타미의 친구를 동두천에서 만났고 그녀로부터 타미는 이미 필리핀으로 돌아갔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전 달에 잠깐 통화를 한 것이 타미와의 마지막 통화가 되었던 것이다. 낯선 곳에서 용기를 내어 힘들게 싸웠던 타미는 그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따뜻한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버린 것이다.

필리핀여성과의 상담



일자리 없는 고향을 떠나다. 그리고...

타샤 : 10년이 지난 지금도, 이 곳에...

타샤는 두레방의 현장접근상담활동을 통하여 두레방을 알게 되었다. 타샤(1980년 생)는 현재 나이는 28세이다. 우즈베키스탄이 고향이며 가족은 본인을 포함하여 네 식구인데 그 중 큰 딸이다. 타샤는 고향에서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였으나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전기 관련 일을 하시었으나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 다 몸이 아파서 생계를 꾸려 나갈 정도의 경제적인 활동은 하기 어려워 한국을 오게 되었다.

타샤는 2001년 처음으로 예술흥행사증으로 한국을 들어오게 되었다. 한국에 들어와서는 동두천의 미군전용클럽에서 일을 하다가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본국으로 돌아갔으며 2005년 러시아에서 한국인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여 한국으로 재입국하게 되었다.

그러나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당시 계약을 맺었던 기획사에서 어떻게 결혼 소식을 들었는지 한국에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하여 타샤가 과거에 클럽에서 일을 하였던 사실을 남편에게 알렸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며 다시 러시아로 돌아가라고 하였다.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은 타샤를 빈 몸으로 내보냈다.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었던 타샤는 예전에 일했던 동두천이 생각이 나서 다시 돌아오게 되었으며 클럽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클럽 생활을 하며 시간이 지나자 한국에서 오래 생활을 하여 어느 정도 한국어를 듣는 것이 가능은 하였으나 말하기 쓰기 읽기가 어려워 오랜 한국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종종 생기자 타사는 두레방에 방문을 하여 한국에서 본인이 계속 살기를 원하므로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이야기하였다. 일단 한국어를 배워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면 클럽에서 일하는 것을 그만두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싶다는 자신의 소망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이혼할 당시 남편의 요구로 이혼을 하였는데 혹시 지금이라도 본인이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물어왔다. 공장에서 일을 하는 러시아친구의 말에 의하면 불법이기는 하지만 한국에서 체류를 할 수 있는 서류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자신이 서류를 준비해 줄 테니 사례비로 일정 금액을 요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말에 의심이 되는 부분도 있고 금액이 큰 돈이라 걱정이 되어 자신은 그만한 돈이 없으니 나중에 하겠다고 이야기하며 거절을 하였다. 그리고 공장을 다니는 자신의 친구는 그렇게 돈을 주고 한국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되었으니 자신도 그렇게 하면 어떻겠는지 그래도 괜찮을지 상담을 하였다.

나는 타사의 사례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아는 바가 없어서 출입국사무소 및 관련된 일을 하는 이주여성단체에 문의를 하였다. 그리고 타사가 한국에 들어오게 된 것은 F-2비자를 발급받아 배우자 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오게 된 것이므로 비자를 다른 종류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지금 벌금을 정리하더라도 합법적으로 체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출입국사무소에 확인을 하여 타사에게 알려 주었다. 이러한 결과를 들은 타사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며 자신의 친구는 돈을 주고 만들었는데 왜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워하였다. 나는 그 친구의 체류가 합법적인 절차를 밟은 것이 아님을 인지시켜 주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면 친구와 같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그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주었다.

그리고 현재 클럽에서 일하는 것을 많이 힘들어하는 타사에게 본인이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그러자 타사는 자기의 어릴 적 꿈이 스텐어디스였다며 자

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러나 일단 지금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잘 모르겠으나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는 부분이나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의사소통이 자유롭지 않아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의지를 확실하게 말해주었다.

나는 타사를 위해 의정부 근처에서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를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강좌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리고 적절한 단체가 있음을 확인해 알려주었다. 그곳은 수업은 매년 두 번씩 수강 신청을 받으며 수강신청은 한 달 전에 예약을 하면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대개의 수업은 오전 중이어서 타사처럼 클럽에서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퇴근하는 생활 방식으로는 수업받기가 쉽지 않아 보였다. 그러나 내가 아침에 수업을 들을 수 있겠냐고 물어보자 타사는 요즘은 클럽에 손님이 많지 않아 가능하다며 자신의 의지를 분명하게 표현을 하였다.

타사에게 현재 가장 필요한 체류관련 문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타사가 고향으로 돌아갈지 한국에서 계속해서 체류를 할 것인지는 본인이 결정할 문제이나 타사가 한국에 있는 동안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의사는 확고하므로 돌아오는 봄에 한국어 교실에서 수업을 받기로 하였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타사의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소망을 갖게 된다.

라니 : 새 땅, 새 삶을 꿈꾸며 ...

라니는 8년 전인 2001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살다가 남편과 어린 딸과 같이 한국으로 왔다. 그 후 한국에서 쌍둥이인 두 명의 남자아이를 낳아서 자리를 잡아가고 살고 있었다. 처음에는 남편의 누나가 한국 사람과 결혼을 해서 누나에게 초대를 받아 방문비자로 왔다. 그러다 한국에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힘들게 노동비자를 받았다. 하지만 노동비자로는 너무나 짧은 시간만 한국체류가 부여되었고 곧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불법인 상태가 되었다. 그래도 라니는 희망을 잃지 않고 아이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다. 라니는 자신과 아이들이 찍힌 사진을 보며 흐뭇해하였다.

한국에서 지낸 지 거의 8년이 되어가는 라니는 클럽, 공장, 식당 등을 돌며 안 해 본 일이 없었다. 그녀의 남편 역시 막노동을 하면서 한국에서 지낼 수 있게 노력하고 있었다. 한국에서는 보통 삭막한 군사도시로 생각하는 동두천을 안전한 한국이라고 느끼는 라니의 가족은 그곳에서 작지만 큰 행복을 느끼며 자리 잡고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생활은 외국인으로서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체류자격의 문제가 매일매일 그녀의 풀 수 없는 과제로 남겨져 있었다. 그러다 큰딸이 한국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자 딸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는 라니의 가족들은 한국에서 지낼 수 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갑자기 법이 바뀌는 바람에 그렇게 되지 못하였다. 비자가 2009년 초에 중지되고 남편은 비자 재발급을 위해 러시아로 돌아갔으나 다시 돌아오려는 남편을 심사국에서 한국으로 보내주지 않았다. 라니와 남편은 자녀들이 조금은 더 안전한 곳에서 사회복지에 대한 보장을 해주고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나라에서의 삶을 꿈꾸

고 그 대안으로서 캐나다행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남편이 한국에 다시 입국할 수 없게 되자 바로 캐나다행을 택하였다. 라니의 남편은 캐나다에서 가족들을 초청할 수 있는 비자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는 중이다.

그리고 지금, 라니는 오직 혼자 힘으로 아이 셋을 한국에서 키우고 있다. 우리가 처음 라니를 만났을 때는 그녀는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에 만난 라니는 살이 많이 빠져 있었다. 나는 그녀의 모습에서 얼마나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남편도 없이 그녀는 혼자서 아이 셋을 키워야 했고 방세, 식비 등 모든 생활비를 해결해야 하였다. 그녀는 낮에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녁에는 클럽에서 일하고 저녁 늦게 집에 돌아오고 있다. 그렇게 하루 종일 일을 하였지만 어디서든 충분한 월급을 주지 않았다.

가끔 급하게 두레방으로 라니에게서 연락이 왔다. 자신의 자녀 중 한 명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병원비가 없다는 것이다.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라니의 자녀들은 만약 아파서 병원을 찾게 되면 그녀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너무나 큰 병원비를 내야 한다. 라니는 항상 생활비가 부족하므로 돈 문제에 급급하게 살기에 그 많은 병원비는 낼 수가 없다. 두레방도 라니의 자녀를 돕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라니 자녀의 병원비만이라도 지원하기로 하였다.

나는 라니와 그의 자녀들이 조그만 나라 한국에서 그리고 그녀들이 꿈꾸는 나라 캐나다로 갈 수 있기를, 그리하여 온 가족이 같이 만나서 큰 행복을 가질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코니 : 울산에서 오산으로, 다시 의정부로 ...

코니는 필리핀 여성으로 7남매 중에 첫째 딸이며 6명의 동생들과 두 동생의 가족들과 자신의 두 딸, 그리고 부모님을 부양할 돈을 벌기 위해 예술홍행시증을 발급받아 2004년 7월에 한국으로 왔다.

코니는 가수로서 노래를 부르는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한국에 오자 기획사에서는 계약 내용과 다른 것들을 요구하였다. 계약서상에는 울산의 S 클럽에서 일을 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매니저는 코니를 오산의 Y 클럽으로 데리고 갔다. 그리고는 속옷가게에 데리고 가서 코니에게 팬티와 브라를 사게 한 후 클럽에서 팬티와 브라만 입고 춤을 추도록 강요하였다. 코니는 기획사 사장에게 울면서 그럴 수 없다고 하였지만 그는 코니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코니는 필리핀에 있는 10명이 넘는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참고 춤을 출 수밖에 없었다. 또한 클럽에서 정한 주스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온갖 성적 수치심을 감수해야 했을 뿐 아니라 주스할당량을 많이 채울 수 있을 거라며 2차를 강요받아야 했다. 한 달 반이 지난 후 매니저는 다른 클럽으로 옮겨야 된다고 의정부의 C 클럽으로 그녀를 데리고 갔다. 코니는 이곳에서도 역시 많은 인권침해를 당하였다. 계약서상에는 일 주일에 한 번은 쉬도록 되어 있었지만 휴일은 겨우 한 달에 한 번만 주어졌고, 그것도 휴일에 청소를 시키고 청소상태가 만족스러웠을 때 6시간만을 쉬게 하였다.

또한 계약서상에는 하루에 음식 값으로 1만원, 또는 미화로 8달러를 주도록 되어 있었지만 클럽 주인은 일주일에 1만원짜만을 음식 값으로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늘상 음식

이 충분하지 않았고 배가 고프 때도 있었다. 게다가 클럽의 주인은 갖가지 명목으로 코니에게 벌금을 매겨 주스판매액을 벌금으로 다 공제하고 한 푼의 돈도 주지 않았다.

C 클럽에서 도망치기까지 코니는 다섯 달을 넘게 일을 하였지만 그녀는 세 번밖에 월급을 받지 못했다. 받은 월급 또한 계약서상에는 500달러를 받도록 되어 있었지만 450달러만을 받았다. 또한 계약서상에는 그녀의 월급 중 필리핀의 매니저에게 50달러를 주도록 되어 있었지만 250달러를 매니저에게로 보냈다.

그녀는 낯선 나라에서 도움을 청할 곳을 몰랐으므로 기획사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C 클럽의 바텐더는 항상 나쁜 말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벌금을 매기며 코니를 제대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다. 클럽주인에게 이야기를 해도 주인은 언제나 바텐더 편이었으므로 이같은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한 번은 바텐더가 클럽의 필리핀 여성들을 아파트로 불러 한국남성들 앞에서 자신이 팬티만 걸친 채 춤을 추면서 필리핀 여성들에게도 한국남성들 앞에서 춤을 추면 돈을 줄 거라며 춤을 추도록 강요하였다. 그녀의 동료 두 명이 춤을 추기 시작하자 한국남성들이 몸을 만지며 성추행을 하기 시작하여 동료들은 춤추기를 멈추었다. 그 과정에서 싸움이 일어난 후 한국남성들은 돌아갔고 남아 있던 돈은 바텐더가 다 가져가고 필리핀 여성들에게는 20 달러만 주는 일이 일어났다. 이 일이 있은 후 한 친구는 더 이상의 인권 착취를 참을 수가 없다며 클럽을 도망쳤다.

코니는 2004년 12월 클럽을 도망쳤다. 그 후 미군과 결혼하여 살고 있는 필리핀인 친구 집에서 두 달 동안 숨어서 지내던 그녀는 친구의 초대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미군과 사귀기 시작하였고, 2005년 4월 결혼을 하였다. 결혼 후 코니는 SOFA 비자를 받으려고 하였으나 불법체류 3개월에 대한 벌금 200만원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낙담하여 고민하던 중 친구의 소개로 두레방을 찾아 상담을 하게 되었다.

나는 코니를 상담한 후 코니의 인적 사항과 클럽에서 도망친 날짜, 미군과 결혼하여 미

군 ID 카드를 받은 날짜 등을 확인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코니의 출입국 기록과 해당 업체에 대한 정보, 사업장 무단이탈 신고가 되어 있는지 등을 전화와 문서로 요청하여 확인하였다. 코니는 2005년 2월에 사업장을 무단이탈한 것으로 신고가 되어 있어 벌금이 과중하게 부과되어 있었다. 코니는 클럽 주인이나 해당 기획사에 대해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조용히 벌금감경문제만을 도움받기를 원하였다.

두레방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해당업체와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였고 이후 코니와의 단독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진술서를 작성하고 해당기획사와의 계약서를 확보하였다. 그 후 탄원서를 작성하여 진술서와 진술서 번역본, 계약서와 계약서 번역본을 증거자료로 첨부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벌금감경을 요청하였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해당 기획사와 코니를 조사하였으나 서로의 주장이 달라 한쪽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난감해 하였다. 결국 두레방의 설득으로 사업장 무단이탈신고에 대한 무효를 전제로 벌금을 단순불법체류로 산정하여 20만원으로 감경하였다.

2005년 8월 코니는 벌금 20만원을 내고 SOFA 비자를 받았다. 코니는 현재 임신 중으로 2006년 4월 출산 예정에 있으며, 필리핀에 있는 자신의 아이들을 남편이 입양하여 데리고 오는 것으로 결정하여 함께 생활할 날들을 생각하며 기쁘게 생활하고 있다.

다음은 코니의 계약서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 임금은 한 달에 최소한 5백 달러를 받아야 한다. (ARB를 가진 사람은 5백달러 ~ 8백 달러를 받아야 한다). 필리핀을 떠난 첫 달부터 받고, 매달 말일 고용주로부터 직접 받도록 한다. 매니저와 필리핀 기획사는 50달러를 받는다.
- 일하는 시간은 하루에 최대 8시간, 일주일에 하루 휴일, 초과수당은 정상임금보다 150%를 받도록 하거나 최소한 한국의 근로기준법에 의한 비율로 주어야 한다.
- 기획사는 아주 편안하고 자유롭게 살 곳을 제공하여야 하고 음식은 영양가 있는 음식을 주거나 또는 하루에 1만원이나 8 달러를 제공하여야 한다.

- 고용주는 편안하고 안전한 숙식을 확실하게 제공하여야 하고 숙소는 전기, 수도, 난방, 하수구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을 제공하여야 한다.
- 개인적인 의료문제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은 한국의 고용주가 책임져야 한다. 보험료는 최소한 1만 달러인데, 일하거나 일하지 않거나 상관 없이 질병, 상해, 죽음이 다 포함된다. 해외이주 노동자들의 복지기금에 근거한 의료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 계약서가 끝날 때까지 한 해에 보름의 유급휴가가 제공되어야 한다.
- 기획사가 필리핀의 왕복 비행기 표를 제공해야 하고 계약서를 갱신할 때는 고용주는 비행기의 보통석을 제공해야 한다.

나는 여성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었다.

첫째는 클럽에서 인권착취로 도망을 치게 되는 이주여성의 경우에는 대부분 해당 업체의 사업장 무단이탈신고로 인해 미등록 상태가 되므로 언제 출입국사무소의 단속에 걸릴지 불안한 상태에서 생활을 하게 되므로 심리적으로 상당히 약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든 상담을 의뢰할 경우 거의 대부분의 이주여성들은 자신의 친구들이나 애인, 남편과 함께 내방하여 상담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모든 필요한 결정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기보다는 미군 남편이나 남자친구에게 의지하거나 위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에는 기본적인 확인해야 되는 사항만 확인하고 이후에 내담자와 단독으로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확보해야 한다.

둘째로, 여성들이 의뢰한 상담 내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클럽 내에서의 2차 성매매를 포함한 인권착취 내용을 자세히 들어야 한다.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두레방에서 관련 기관에 신고를 하거나 진정서 제출, 탄원서 제출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도 한데, 상담과정에서 자신의 문제를 자신이 정확히 인식하고 스스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내담자 스스로 힘을 키우는 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과정들을 제대로 겪어낸 내담자들은 사건이 마무리되고 나서도 이후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향상시켜서 이후의 삶에서도 자신감의 회복과 더불어 남편과의 평등한 관계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길고 지루한 투쟁, 양육비 청구소송

재슬린 : 낮선 땅에서의 만남, 남겨진 긴 아픔.

재슬린은 필리핀 안티폴로 시에서 태어나 부모님과 네 형제와 거주하여 친척이 일하는 부동산 컨설팅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1995년 필리핀 남성과 결혼하였으나 이혼한 뒤 부모님과 16살 딸과 지내었다. 재슬린의 여동생은 영어선생이었는데 영국 남자와 결혼하였다. 그 여동생이 남편의 친구를 소개시켜주었다. 재슬린은 그 남자와 결혼을 하려고 하였지만 그 남자가 마약을 한다는 것에 너무 상처를 받았고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해외로 나가 돈을 벌 결심을 하게 되었다.

영국남자와 만나기 전에 매니저에게 일본에 가도록 비자를 만들어달라고 했었지만 결혼하기 위해 일본 비자를 취소시킨 적이 있어서 일본으로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한국에 올 수 밖에 없었다. 모든 일을 잊기 위해서라도 필리핀을 떠나고 싶었다. 재슬린은 비자를 받는 데 얼마나 걸리는지 물어보았고 매니저는 3주라고 알려줬다. 재슬린은 되도록 빨리 필리핀을 떠나고 싶었고 당장 준비하자고 말하였다. 바로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보냈고 오디션을 보고 재슬린이 속한 그룹은 모든 심사를 통과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몇 주 후에 재슬린은 한국에 오게 되었다. 하지만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한국 대사관에 갔을 때, 그때서야 알선자가 한국에서의 일에 대하여 조금 알려주겠다고 하였다. 그는 한국에 가면 아주 작은 천초거리만 입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 말에 놀란 재슬린이 “뭐?”라고 말하자 그는 쇼 타임에만 입으면 된다고 하였다.

재슬린은 한국에 오기 전에 일본에서도 일을 했었고 그 때도 가끔 그런 일이 있었으므로 그런 것인 줄 알았다고 하였다. 하지만 한국에 와서 직접 봤을 때 여성들은 거의 나체로 화장을 진하게 한 채로 있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낯선 땅 한국에 와서 재슬린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재슬린은 3월 턱거리의 X 클럽으로 가게 되었다.

어느 날 주인이 클럽으로 친구 몇 명을 데리고 와서는 문을 잠그고 떠났고 그 친구들에게 성적 서비스를 하기를 원하였다. 여성들이 거절하였고 재슬린은 그것은 필리핀에서 계약서의 내용과는 다른 행위라고 말하였다. 그랬더니 주인은 화를 내며 모두 필리핀으로 돌려보낸다고 말하였고, 재슬린은 “좋다”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필리핀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였는데 다음날 주인이 협상을 하여서 다른 필리핀여성들의 마마상으로 하는 것을 권하였고 그렇게 하고 다른 여성들에게 원치 않으면 성적 서비스를 강요하지 않겠다고 합의하였다. 일주일 후쯤 글렌 신부님이 업소를 찾아왔다. 전에 클럽에서 일하던 필리핀 여성이 도망쳐서 글렌 신부님에게로 갔는데 신부님이 업소의 모든 여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왔다고 한다. 재슬린이 일한 지 2주일 정도 후 글렌 신부님이 클럽을 왔고, 클럽에서 나와 글렌 신부님의 쉼터에서 지내게 되었다. 이를 후 다른 여성들이 돈을 원하여 다시 일을 하고 싶어 하였고 여성들은 주인이 강제로 성적 서비스를 강요하지 않는다고 합의를 하였기 때문에 경찰에게 진술하기를 거부하였다. 결국 다른 여성들은 클럽으로 돌아갔고 재슬린은 식당, 전화가게, 공장, 방앗간 등에서 일을 하였다.

2005년 6월, 당시 공장에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다시 클럽에서 바텐더로 일을 하게 되었다. 클럽에서 일을 할 때 마마상은 재슬린에게 다른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짧은 옷을 입으라고 했지만 재슬린은 출입국에서 나오면 강제출국 당하지 않겠냐며 청바지를 입으면 고객과 함께 온 손님으로 위장할 수 있지 않겠냐고 설득하였다. M 클럽에서 일을 할 때 동두천 소재 미군 기지에서 병장으로 근무하는 피터슨을 만났다. 그는 여러 차례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재슬린과 교제하기를 원하였고, 2005년 9월부터 피터슨과 사귀게 되었다. 그 당시 피터슨은 부대 밖에서 거주하기 위한 행정처리를 위해 러시아 여성과 위장결혼을 한 상태라면서 러시아여성과의 이혼 절차를 하고 재슬

린과 결혼하겠다고 하였다.

재슬린은 피터슨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함께 지내자는 하여 약 2주간을 그의 아파트에서 지내었다. 그러나 그의 아파트에서 지내는 동안 다른 여성이 그의 아파트를 드나들었고 그런 이유로 재슬린과 피터슨은 자주 싸우게 되었고 그는 자신의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면 떠나야 한다고 하였다. 남자와 헤어진 후 재슬린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중절수술을 하기를 위하여 남자에게 수술비용을 도와야 한다고 말하였지만 그는 말로만 동의를 하였고 어떤 행동도 보이지 않았다. 결국 재슬린은 아기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피터슨은 다시 와 잘해보겠다고 하였지만 계속 다른 여성을 만나고 있었고 재슬린은 그런 그와 같이 지내고 싶지 않았다. 이 후 아기 아버지 피터슨과 아기를 돌보는데 드는 비용을 주기로 합의를 하였지만 실제로 규정된 양육비보다 적은 221달러를 주었다. 재슬린은 아기를 줄곧 혼자서 양육하였고 양육을 위해 직장도 따로 갖지 않고 양육에만 전념하여서 생활이 힘든 상황이 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아이아버지가 주는 221달러로는 아이를 양육하는데 턱없이 부족하였다.

그런 중에 다른 필리핀 친구들로부터 피터슨이 2007년 8월 17이면 한국에서 근무기간이 끝나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인데 그 때 아기를 미국으로 데리고 가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피터슨은 군인으로 복무하느라 직접 아기를 양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자녀가 있고, 한국 복무 기간에도 재슬린과 교제하다가 다른 필리핀 여성과 사귀는 등 양육을 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재슬린은 더욱 불안한 마음에 피터슨이 미국으로 돌아가는 날까지 집 밖을 제대로 나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아기아버지로부터 양육권과 양육비를 지불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재슬린은 법원 명령서를 원하였다.

두레방은 재슬린과 함께 양육비 지원 소송을 준비하였다. 아기의 병원 기록, 아기아버지인 피터슨이 지불한 양육비를 받았다는 서명, 아기 아버지와 아기랑 같이 찍은 사진들, 그와 주고받은 전자메일 등의 모든 서류를 재슬린이 잘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을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했으며 처음 예상했던 현재까지 직접 아기 아

버지가 221달러의 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월급 가압류가 필요하지 않고 아버지 이름이 적힌 출생증명서가 있었기 때문에 친자확인검사도 필요하지 않으며 증인 또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두레방은 그녀를 위해 적합한 지식을 지닌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였다. 2007년 4월에 양육비청구소송이 시작되었다. 선임된 변호사는 8월까지 서류 송달이 예상되며, 피터슨이 소송 사실을 알게 되고 진행은 무리가 없으며 빠르면 1~2년 안에 모든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을 하였다. 문제는 8월 아기가 아버지가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재판에 출두하라는 법원명령이 든 서류가 피터슨에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였다.

변호사는 중간에 법원의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그리고 만약 한국에서 법원명령이 있더라도 실제로 양육비를 주는 것은 아기가 아버지에게 달려 있기 때문에 양육비 강제집행에 대한 부분은 미국에서 다시 소송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재슬린도 알고 있다고 하였다. 우리는 법원출두명령장을 아기 아버지에게 보내고 기다렸다. 그러나 그가 미군기지에 있는 동안도 그는 일부러 우편물을 받지 않았으며, 심지어 거주지를 옮기는 등, 법원출두명령장을 회피하기만 하여 결국 송달이 되지 못하고 그는 미국으로 출국하였다. 재슬린이 아기가 아버지의 주소를 알고 있어서 해외송달을 해보기로 하였고 우리는 법원명령장을 다시 아기가 아버지의 미국 주소로 보내었다. 그러나 여전히 그는 법원출두명령을 회피하기만 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재판은 진행될 수가 없었다.

2009년 6월 한국 재판부는 소장이 남편에게 송달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여도 양육비에 대한 강제집행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소송을 취하하는 것을 권고하였고 재슬린은 다른 도리가 없기 때문에 소송을 취하하였다. 그러던 중 두레방의 지원을 받고 있던 다른 필리핀여성이 국제변호사 통하여 자녀양육비청구소송에 관하여 승소 여부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받았다. 그리고 소송을 통하지 않고 직접 미국의 자녀양육지원센터를 찾아내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길을 택하였다. 그리고 긴 과정 끝에 결국 승소하여 법원명령으로 아기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첫 사례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 사례의 영향으로 재슬린도 미국의 아기아버지 주소지의 자녀양육지원센터로 양육지원서를 보내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재슬린과 함께 공감(공익변호사모임)을 찾아가 국제변호사를 자문을 받으며 지원서를 작성하였다. 재슬린과 우리는 잘될 것이라고 믿으며 작성한 지원서를 미국대사관에서 공증을 받고 지원서와 아기의 병원 기록, 아기아버지인 피터슨이 지불한 아기 양육비를 받았다는 서명, 아기 아버지와 아이랑 같이 찍은 사진들, 그와 주고받은 전자메일 등, 아기아버지와의 관계가 증명될 서류를 함께 미국의 자녀양육지원센터로 우편 발송하였다. 나는 재슬린의 아기와 아기아버지가 친자확인검사를 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 조금 염려되기도 하였지만 믿고 기다리기로 하였다.

재판은 2009년 10월 자녀양육지원센터에서 재슬린의 대리인으로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그리고 자녀양육지원센터에서는 우리 모두가 기다리는 연락이 재슬린에게로 왔다. 아기아버지인 피터슨으로부터 이전에 받지 못한 양육비와 앞으로의 매달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고 그 양육비를 재슬린의 통장으로 직접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재슬린으로부터 기쁜 연락이 내게로 왔다.

재슬린의 오랜 기다림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재슬린은 아기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키울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하였고 아직도 동두천에는 자기와 같은 상황인 여성이 많으며 자신의 사례가 다른 필리핀 여성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수 년간의 노력이 재슬린에게도 두레방에게도 그리고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의 변호사들에게도 뜻깊은 성과로서 드러나게 되었다.

자녀양육지원센터에 양육지원서 작성



리나 : 그는, 아이의 아버지이기를 거부하다.

리나(1985년 생)는 2008년 예술흥행사증으로 한국에 들어왔다. 현재 나이는 23살이며 필리핀 출생이다. 형제는 모두 6남매이며 그 중 맏딸이다. 남동생이 3명 여동생이 2명이 있으며, 부모님은 두 분 모두 생존해 계시나 아버지가 2008년 여름에 결핵 판정을 받으면서 치료를 받아 완치가 되었다고 했으나 다시 재발하여 현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리나는 16살부터 공장에서 일을 하여 매주 2500페소씩 받았으며 20살까지 일을 하였다. 부모님이 두 분 모두 생존해 계신데도 일을 해야 했던 이유는 아버지가 아프시기 전에는 기계 수리하는 일을 하셨으나 생활비를 주지 않아 생계를 위하여 일을 해야만 했다고 한다. 동생들은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일을 하고 있지 않아 생계를 꾸려나가기 어려웠으며 어머니가 산에서 나무를 뜯어다가 장에서 나무를 판매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본인이 가족들을 위하여 돈을 벌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리나는 이모의 권유로 한국에서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리나는 두레방에서 하는 현장접근상담활동을 통하여 두레방을 알게 되어 전화를 하였다. 리나는 두레방이 여성을 도와주는 단체인지 확인을 한 뒤에 본인이 지금 임신 8개월인데 남자친구가 필리핀 본국으로 돌아가야 양육비를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러나 본인은 계속해서 한국에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을 해왔다. 리나는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미군전용클럽에 보내졌고, 클럽주인은 리나한테 성매매를 강요하였다. 리나는 생리 중이었고 성매매가 싫어서 거부를 하였으나 클럽 주인은 리나를 강제로 나가게 하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클럽 주인은 리나에게 군산에 있는 다른 클럽으로 옮기라고 하였다. 게다가 월급도 안주고 계속해서 성매매를 강요하는 것이 무섭고 겁이나 친구와 같이 도망을 나오게 되었다.

리나는 석 달 동안 일을 하면서 월급은 받은 적이 없으며, 주스를 판매하여 제일 많이 받은 금액이 8만원 정도였다. 주인은 2주에 한 번씩 클럽의 필리핀여성들에게 주스판매액을 지급하였다. 리나는 클럽에서 도망친 이후에 숨어 지냈으나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자 필리핀친구의 남자친구가 한 미군을 소개시켜주었으며, 그 이후에는 미군과 함께 부대 내에서 생활을 하였다. 3개월 정도를 부대 안에서 생활을 하던 중 리나는 비자가 만기가 되었으나 연장신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남자친구와 함께 아파트를 얻어서 살게 되었다.

아파트에서 한 달 정도를 살았으나 집세를 내지 못하여 곧 다시 나오게 되었다. 아파트에서 생활하려면 최소한 집세 35만원, 전기요금 등의 기타 금액이 10만원, 식비 5만원 등으로 한 달 50만원의 경비가 필요하였다. 아파트를 나온 후에는 갈 곳이 없어 리나는 또다시 필리핀 친구의 집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다. 생계비를 벌기 위해 동두천의 한 바에서 일을 하게 되었으나 남자친구가 퇴근 후 바에서 술을 마시고 여러 번 문제를 일으키고, 임신 중이어서 술을 마실 수 없어 결국 3주 정도 일을 한 후에 그만두게 되었다고 한다.

다른 일을 하고 싶었지만 리나는 몸이 약해서 피로가 쌓여 몸이 힘들게 되면 기절을 하여 공장노동 등의 다른 일을 선택할 수도 없었다. 그런데 남자 친구는 리나에게 전화를 하여 '필리핀으로 돌아가면 양육비를 주겠다, 그러나 계속해서 한국에 있겠다고 하면 아기의 양육비와 생활비는 내가 알아서 하라'는 전화를 걸어왔으며, 그나마 2주 전부터는 연락도 되지 않았다.

임신 중인 지난 8개월 동안 리나는 병원에 한 번 남자 친구와 같이 갔었다. 이는 산모와 아기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리나와 함께 병원을 찾았다. 병원에서는

지난 번 검사를 했을 때 고위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 있어서 남자친구와 같이 약을 복용을 하였는데 왜 같이 오지 않았는지, 치료를 받지 않으면 태아에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제때 치료 받기를 권하였다. 태아의 상태는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아기의 크기가 평균보다 커서 혹시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사는 약간의 걱정을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검사받기를 권유하였다. 병원의 검사 결과 리나는 고위험군으로 아기에게 감염이 될 경우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완치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였으나 방지되었고, 리나의 심각한 빈혈로 인하여 빈혈 약을 복용함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빈혈 주사를 병행해서 맞아야만 했다.

리나는 출산한 후에 병원비와 아기에 대한 지원을 부대 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갔으나 병원 측에서 퇴원 날짜에 병원비를 지불해야 퇴원이 가능하다고 하여 두레방 컴퓨터로 연계하여 병원비를 지불하였다. 아기 아버지의 방임으로 아기에 대한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나는 비교적 병원비가 저렴한 보건소를 연계하였다. 나는 리나의 아기에게 보건소에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리나는 남자친구가 출국하기 전 아기에게 여권 및 시민권을 만들어 주고 싶다고 하였다. 남자친구는 부대 내에서 의료사고를 일으킨 이유로 군부대에서 간혀 있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그는 언제 출국을 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나는 미군부대 안의 사회복지사를 연계하여 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그리하여 남자친구와 리나, 그리고 자원봉사자와 나는 리나와 함께 미국대사관을 동행하였다. 아기에게 여권과 시민권을 만들어 주려면 아기아버지의 사인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들이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미국대사관에서의 서류 제출과정의 복잡한 절차로 시간이 많이 허비된 데다가 남자친구를 군부대 밖으로 나오게 하기까지 그만 시간이 오래 걸려 미국대사관 업무 시간에 가까스로 도착한데다가 서류접수를 마무리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다음날로 다시 약속을 잡아 서류를 완성하여 미국대사관 방문을 하기로 하였으나

군부대의 협조적이었던 남자친구의 상관이 갑작스럽게 약속을 반복하여 대사관 방문이 어려워져버렸다.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않고 리나가 다시 한 번 아기의 아버지와 함께 대사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였다.

아기 아버지가 곤란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리나의 의사에 따라 나는 리나를 통하여 군 법무사 사무실에서 연락해서 어떻게 해야 남자친구가 부대 밖으로 나올 수 있는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대처 방법을 알려 주었다.

그리고 만일 계속해서 남자친구가 거부를 한다면 법적인 절차를 밟아 강제로 집행을 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리나에게 알려 주었다. 나는 리나가 적극적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심경으로 그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조쉬 : 마음 편히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

조쉬는 1983년 11월생으로 필리핀 마닐라에서 왔다. 조쉬의 아버지는 일거리를 찾지 못해 오랫동안 일을 하지 못하고 계시고, 어머니께서는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생활해 왔다. 다섯 남매 중 넷째인 조쉬는 필리핀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빵 공장에서 일을 하며 지내던 중 한국에 가서 돈을 벌겠다는 결심을 하고, 예술홍행사증을 발급받아 2005년 12월 한국에 오게 되었다.

한국에 도착한 조쉬는 동두천의 R 클럽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1년간의 계약기간을 마친 후 조쉬는 클럽 일을 그만 두었고, 양주시 덕정리에 있는 지퍼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미군을 만나 2007년 1월에 결혼을 하였다. 결혼 후 조쉬는 SOFA 비자를 받아 한국에서 계속 일을 하였는데, 결혼 후에는 지퍼 만드는 공장 일을 그만 두고, 동두천의 소요산 근처에 있는 빵 공장에서 일을 했다. 남편은 방세와 생활비는 내주었으나, 필리핀에 보낼 돈은 주지 않았기 때문에 조쉬는 결혼 후에도 계속 일을 하면서 필리핀에 조금씩 돈을 보냈다. 그러던 중 2008년 6~7월경 남편과 이혼을 하였고, SOFA 비자를 다시 발급받지 못해 이혼 후부터 현재까지 계속 미등록이주자로서 두려움 가운데서 생활을 하고 있다. 내가 상담을 통해서 들은 조쉬의 결혼생활은 다음과 같았다.

2008년 8월경에 지금 조쉬의 아기 아버지를 만났는데, 만나면서 바로 동거를 시작했던 조쉬는 동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임신을 하게 되었고, 2009년 7월에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하였다. 미군인 아기의 아버지는 조쉬가 임신한 지 얼마 안 된 후부터 갑자기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조쉬를 만나기 전에 클럽에서 만났던 한 필리핀 여성과 약혼을 했었는데, 그 여성이 필리핀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클럽에

서 일을 하게 되었다. 약혼했던 여성이 한국으로 돌아오자 그는 자주 외박을 했고, 가끔씩 집에 들어올 때면 술에 취해서 임신한 조쉬를 폭행해 조쉬는 견디다 못해 미군헌병을 부른 적도 있었다.

그 후 조쉬가 아기를 출산한 후 그는 아예 집을 나가 부대 안으로 들어갔고, 이후 어떠한 지원도 해 주지 않았다. 아기를 키우며 혼자 생활하던 조쉬는 방세를 내지 못해 2009년 11월 집을 나와 한 필리핀친구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조쉬는 출산을 해야 할 무렵부터 아기 아버지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었기 때문에 방세를 낼 수 없게 되었고, 모아둔 돈이 한 푼도 없어 아기의 분유, 기저귀 등의 용품 구입비용과 그 외 생활비 등은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서 구입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니 다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아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조쉬는 조만간 아기만 필리핀으로 보낼 생각을 하고 있다. 얼마 전 아기를 데리고 필리핀 대사관에 가서 아기의 필리핀 여권을 만들었고, 곧 여권이 나올 예정이다.

조쉬는 내게 아기를 필리핀에 보내게 되더라도 필리핀에서 아기를 양육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아기가 필리핀으로 가기 전에 아기 아버지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다고 하였고, 그래서 두레방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다고 한다. 조쉬는 아기 아버지의 부대에 있는 상사에게 전화를 해서 그로부터 버림 받았다는 사실을 알렸고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알아보고 전화를 주겠다고던 상사에게서 온 전화로 들은 이야기는 그가 조쉬를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고, 전화도 하기 싫다고 했다는 것이었다. 아기 아버지의 상사에게 더 도와달라고 했지만, 모두 비협조적이었다. 아기의 아버지는 조쉬에게 자신은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을 테니 필리핀 친구들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하라고 했고, 현재는 전화 통화도 되지 않는 상태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나는 조쉬를 만났다. 조쉬가 아기를 출산했을 때는 아기 아버지가 함께 있지 않았고 또한 동의하지 않아 출생증명서에 아기 아버지의 이름조차도 적혀 있지 않았고, 게다가 조쉬는 아기 아버지의 정확한 미국 주소나 사회보장번호도 모르고 있었다. 더욱 난감한 것은 아기의 아버지는 아기의 미국 여권이나 시민권을 만들어 줄 생각

도 없고, 친자확인검사마저 거부하고 있는 상태로서, 이같이 비협조적인 상황은 아기의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도해 보는 것조차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아기의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친자확인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한 방법이 친자확인검사이다. 이를 위한 비용도 만만치 않고 게다가 아기의 아버지가 검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대 내에 있는 사회복지사나 상사를 통해 설득을 하여 이를 하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나는 조쉬를 돕기 위해 미군부대 내의 미군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감시하고 해결하는 일을 하고 있는 담당자인 W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W에게 연락하여 조쉬의 현재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하였고, 아기 아버지의 부대, 성명에 대해서 알려준 후 그의 연락을 기다렸다. 다시 W와 통화를 한 결과 그가 직접 아이 아버지의 부대 내 상사와 통화를 하였는데, 상사의 이야기로는 아기의 아버지가 현재 돈이 없는 상태이고,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친자확인검사를 해 주지 않았으며, 또한 조쉬의 아기가 본인의 아기임을 확신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W는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조쉬가 직접 친자확인검사 비용을 마련한 후, 연락을 주면 아기의 아버지를 최대한 설득해서 친자확인검사를 받도록 해 보겠다는 것이었다. 친자확인검사를 통해서 아기가 아버지의 친자임이 확인되어야만 증거를 가지고 양육비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쉬에게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지만 이는 사실상 그녀에게는 친자확인검사 비용을 마련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나는 아기 아버지와 친자확인검사 문제는 조쉬와 함께 다시 논의하여 부대 내의 지원 방안을 계속해서 알아 볼 계획이다. 그리고 현재 조쉬가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서 아기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동두천에 있는 월드비전에 연계하여 아기한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하여 지원을 해 나갈 것이다. 내가 조쉬와 상담을 하던 날, 6개월 된 작은 아기를 품에 안은 채 만났던 그녀의 얼굴이 잊혀지지 않는다. 그녀는 어떤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지친 얼굴이었고, 아기와 함께 버려진 본인의 상황을 매우 힘들어하였다. 하루 빨리 조쉬의 문제가 해결되어 조쉬와 아기가 마음 편히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이자벨 : 양육비 지원, 첫 발자취를 남기다.

2008년 더운 여름 두레방에서 나는 이자벨을 만났다. 배가 불룩해 보이는 이자벨은 임신 중이라고 행복함이 섞인 말투로 우리에게 말하였다. 말끔히 뒤로 묶은 머리와 한껏 멋을 부린 그녀의 손톱 그리고 유창한 영어 등이 나에게 남은 이자벨의 첫 인상이었다. 나는 이자벨의 이야기를 들으러 가까이 그녀에게 다가갔다. 이자벨도 그런 나의 모습에 친근함을 느껴서인지 자신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놓았다.

이자벨은 2003년 필리핀에서 왔다. 대학교를 다니던 그녀는 자신의 자녀의 학비와 집안의 어려움에 학업을 포기하고 일을 하고자 하였다. 그러던 참에 친구의 소개로 연예인 기획사를 알게 되었고, 연예인비자로 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먼저 비자를 받기 위해 노래를 연습했고 비디오도 찍고 하며 한국입국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획사에서 몇 달을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 매니저라고 하는 사람이 필리핀 기획사로 와서 이자벨을 뽑았다. 그렇게 이자벨은 2003년 예술홍행사증을 얻어 한국으로 오게 되었다. 해외이주 경험이 처음이었던 이자벨은 떨리는 마음으로 한국에 도착했으나 필리핀보다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서 아이의 학비와 가족들의 살림에 보탬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기뻐하였다. 필리핀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으로 밴드생활을 했던 이자벨은 한국의 밴드생활은 어떻게 라는 부푼 마음으로 기획사가 지정해주는 클럽으로 갔다.

동두천 보산동에는 갈색으로 칠해져 있는 담장 안으로 주한미군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부대 앞으로 자라잡고 있는 클럽의 불빛들이 이자벨의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조금은 겁이 나긴 했지만 노래를 듣는 사람이 미군이라는 인식만 했을 뿐 스스로 느껴진 겁은 긴장감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여러 클럽 중 한 클럽으로 기획사 사장이 이자벨을 안내하였다. 실내가 매우 어두워 보이는 클럽 안은 밖이 낮인 걸 잊고 있는 듯 어둠이 깔려 있었다. 그를 데려온 매니저는 클럽클럽 주인과 이야기를 나눈 뒤 이자벨을 클럽에 남긴 채 돌아갔다. 이후 이자벨은 힘든 클럽 생활을 하게 되었다. 클럽 어디에서도 가수라는 이름으로 오게 된 이자벨이 밴드 활동으로 설 수 있는 무대를 찾을 수 없었다. 단지 클럽 안 중심에 널찍한 스테이지만이 있을 뿐이었다.

일은 5시에 시작되었다. 저녁시간이 깊어가고 미군들이 클럽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진한 화장에 야한 옷을 입고 서 있는 이자벨을 발견한 클럽 주인은 이자벨을 떠밀어 미군 옆으로 앉혔다. 이자벨은 그때부터 웃음과 수치심을 팔아야만 했고 성매매 또한 강요받게 되었다. 기획사 사장에게 울면서 사정한 끝에 의정부에 있는 클럽으로 옮겨졌으나, 이 클럽은 미군이 캠프로 복귀한 시간 이후에는 한국 사람이든 다른 나라에서 온 이주노동자들 끝임없이 손님을 받아 이자벨은 새벽까지 일을 해야만 했다. 계속 이런 생활이 반복되는 것에 지치고 매니저 또한 믿을 수 없게 된 이자벨은 친구의 도움으로 클럽에서 나오게 되었다.

막상 힘들게 클럽생활은 벗어났으나 이후 클럽생활의 후유증으로 이자벨은 몸이 아프기 시작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일한 결과였다. 그러나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자 친구의 도움으로 서서히 몸이 회복되었다. 그리고 이자벨은 필리핀에 있는 자신의 아이와 가족들의 걱정에서 다시 클럽에 나가게 되었다. 비록 불법적인 상태이지만 다행히 괜찮은 클럽 주인을 만나 바텐더로 일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 일하던 중 그녀는 한 미군을 알게 되었고, 그 미군은 이자벨에게 주스를 많이 사주면서 이자벨과 친해지게 되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미군은 이자벨에게 프로포즈를 하였고 같이 지내기를 원하였다. 그래서 이자벨은 클럽을 나와 미군과 같이 지내게 되었다.

작은 방이었지만 이자벨은 행복했다. 자신의 남자친구를 위해 요리를 하고 또한 남자친구의 아이를 가졌기 때문이다. 남자친구 또한 먼 미래의 아이의 성장을 상상하며 행복해 하였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이 타국의 작은 행복은 이자벨에게 허락되지 않았다. 남자친구의 미국행 자대배치가 결정되었기 때문이다. 남자친구를 믿지만 그래도 불안감은 이자벨을 하루 종일 괴롭혔다. 남자친구는 미국으로 급하게 가게 되는 바람에 아이의 여권조차 만들어 주지 않았다.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는 공증을 이자벨은 받게 되었고 그는 아이 양육비에 대한 약속을 한 채 미국으로 돌아갔다.

이자벨은 메일과 메시지를 통해 그에게 아이의 소식을 전했고 그의 소식도 받았다. 그렇게 한 달 후, 아이아버지는 이자벨에게 양육비를 보내왔다. 넉넉하지 못하지만 그가 힘들게 보내준 돈이기에 소중히 임신 중에 진료비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그와 연락하기는 점점 힘들어졌고, 이자벨은 또 다시 불안감을 안게 되었다. 임신으로 일을 못하는 상황이라 그에게서 오는 양육비는 사실상 생활비의 커다란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에게서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다. 이자벨은 한없이 울기만 하였다.

우리가 그녀를 만난 것은 이 시점이었던 것이다. 나는 그런 이자벨에게 양육비관련 소송에 대해 알아보고 길을 찾아보라고 약속하였다. 이자벨은 출산을 하고 난 이후 소송을 제기해볼 것을 요청하였다.

2008년 겨울 이자벨은 건강한 사내아이를 출산하였고 다시 소송과 관련한 상담이 이루어졌다. 이자벨은 과거 일을 회상하며 말하는 내내 힘들어하였다. 나는 그런 이자벨을 배려하여 며칠 동안 천천히 상담에 들어갔다.

그리고 2009년 봄에 우리는 공감의 한 변호사에게 자녀양육비청구소송에 관해 과연 승소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받았다. 변호사는 남자가 이미 미국에 있어서 한국 법원에서 소송을 시작하고 그 결과 승소한다 할지라도, 미국 법원에서 한국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판결의 결과를 받아들일 확률은 매우 낮으므로 길고도 힘든 싸움일 것이라는 의견을 접하게 되었다. 그러나 두레방에서는 너무도 많은 필리핀여성들이 미군들에

의해 이용되고, 자녀를 갖게 되면 자녀와 함께 유기되는 관행에 어떻게든 제동을 걸 필요성과, 설사 패소하더라도 사례를 남겨야 할 필요성을 감안해 소송을 시작해보기로 결정하였다. 소송을 하겠다고 결정하는 여성을 찾기도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자벨의 결심에 하늘의 도움이 있는 것 같았다. 공감에 마침 자원봉사하고 있는 한국계 캐나다사람인 국제변호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출근하며 공감의 일을 돕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미국의 자녀양육지원센터를 찾아내었고 이자벨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례인지 알아보았다. 다행히 그곳에서는 이자벨의 사례를 접수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변호사는 그 소식을 직접 이자벨에게 메일로 알려주었고 우리는 다같이 기뻐하였다.

두레방에서는 이전에도 미군아버지에 의해 버려진 필리핀여성의 자녀양육비청구소송을 하였으나 법원출두명령도 전달할 수 없어서 어렵게 시작한 소송을 몇 년 만에 포기해야만 했던 뼈아픈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소식은 두레방과 유기된 자녀를 두고 있는 기지촌 주변의 많은 필리핀엄마들에게 한 줄기 희망을 가져다주는 소식이기도 하였다.

이자벨과 우리는 가볍지만 긴장된 마음으로 지원서를 작성하기 위해 공감을 찾아갔다. 3시간이나 지난 후에 지원서가 끝마쳤다. 우리는 서로 격려를 하며 잘 될 거라는 말을 되풀이하였다. 작성한 지원서를 미국대사관에서 공증을 받고 나서 미국의 자녀양육비지원센터로 우편을 발송하고서야 길고긴 하루가 지나갔다.

그로부터 2주가 지난 후에 급하게 주말에 이자벨로부터 연락이 왔다. 남자친구가 한국에 잠시 훈련받으러 왔다는 소식이었다. 이자벨은 남자의 상사 연락처를 자기를 돕고 있는 국제변호사에게 주었고, 그녀가 직접 상사를 설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두레방에서는 남자가 훈련 중인 대구에서 자기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친자확인검사 받을 기관을 찾아내어 약속하고, 그녀와 아이와 함께 대구로 내려가 훈련 중인 미군아버지를 친자확인검사를 하게 되었다. 단계마다 기적같이, 힘겹게 돌파하면서 과정들이 진행되었고, 이자벨은 몸살을 앓으면서도 이를 해나갔다. 나는 며칠 동안 힘들어하는 이자벨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것도 잠시 친자확인검사의 결과를 듣고 나는 밝은 목소리의 이자벨을 다시 만날 수 있었다. 그리고 부자일치의 이 결과를 다시 미국의 자녀양육지원센터로 보냈다. 재판은 2009년 8월에 있었고 그 센터에서 자체 재판을 진행하며, 이자벨이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다.

한참이나 더웠던 여름이 지나갈 때쯤 이자벨로부터 연락이 왔다. 미국의 자녀양육지원센터로부터 우편이 왔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길로 이자벨 집을 방문하여 우편으로 온 서류를 천천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자녀양육지원센터 시스템은 센터가 남자의 월급으로부터 강제로 집행하여 양육비를 받고 그 양육비를 이자벨의 통장으로 직접 송금해 주는 방식이었다. 이것은 더할 나위 없이 두레방에게도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다.

이자벨은 한국체류 6년이 다되어가는 시간 동안 뒤를 돌아다볼 새 없이 힘들게 한국에서 견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힘든 날들이 더 많았지만 씩씩한 이자벨의 성격 때문인지 훌훌 털어버릴 줄도 알았다. 나의 눈으로만 안타까워 보일뿐 이자벨은 이미 행복을 느끼면 한국에서 살아오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앞으로 건너가야 할 험한 산이 비록 있다고 해도 이자벨이 잘 견딜 수 있도록 항상 두레방이 같이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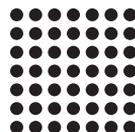
친자확인검사



두레방상담사례집 아메리칸 앨리의 여성들



편집후기





두레방이 기지촌에서 필리핀여성들과 러시아권 여성들을 만나기 시작한 것은 이미 10년을 넘어서었다. 너무도 자연스럽게 두레방은 이 여성들과 만나기 시작했고 그들의 문제와 삶에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가난한 한국여성들에게 위임되었던 기지촌여성들의 삶이 다시 그들, 우리보다 가난한 국가의 여성들에게 이동하는 현실을 주목하게 되었다.

두레방은 이 부도덕한 기지촌의 현실을 꾸준히 문제제기하였고 몇 가지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으나 국가의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이 여성들의 삶은 여전히 고달프고 피폐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다. 두레방은 한 해에 평균적으로 100 여 명의 여성들과 만나고, 그들을 지원하는데,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경우의 여성들을 선별하여 정리하였다. 이 책에서 나오는 모든 여성들의 이야기는 상담 과정에서 듣게 된 이주여성들의 진술에 근거한 것으로서, 상담을 책임맡았던 두레방 활동가들에 의해 정리되었고, 이름은 모두 가명을 사용하였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2004년경부터 2009년의 기간에 만나게 된 여성들이다. 많은 여성들은 본국으로 돌아갔으며, 그 가운데 일부는 아직도 기지촌 지역에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다. 아메리칸 앨리는 동두천에 살고 있는 필리핀 여성들이 사는 골목을 그녀들이 부르는 명칭이며, 그녀들이 주로 살고 있는 쪽방촌의 형태를 띤 월세방 거리를 폭넓게 지칭한다. 그녀들은 이곳에서 그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거나 서로 아기를 돌보아주고, 서로 기대며 고단한 한국에서의 생활을 영위해 가고 있다. 두레방은 오늘도 그들의 문제와 대면하면서 그들의 삶에 최선의 선택이 되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 Youngnim



이번 사례집을 준비하면서 3년이 다되어가는 나의 두레방 생활 속에 많은 여성들을 만나왔던 것에 새삼 놀라게 되었다. 처음 두레방에 와서 여성들을 만났을 때 못하는 영어로 상담을 나눈 나는 여성들에게 너무나 미안함을 느낀 것이 생각이 난다. 그런 나를 여성들은 잘 들어 주려 노력하는 모습 또한

생각이 난다. 두레방을 찾아오는 여성들의 따뜻함은 계속 나를 두레방 생활 속에 자리잡아가게 하고 있는 듯하였다. 여성들은 비록 힘든 일로 두레방을 찾아와 나와 인연이 되었지만 상담자와 내담자가 아닌 친구로 우리는 만남을 쉽게 유지되었던 것 같았다. 동행하는 지하철에서 자신의 생활을 서슴없이 이야기하고 식사를 같이 하며 잠시 자신의 힘든 일들은 잊고 나와 웃고 있는 여성의 모습을 보았을 때 친구라는 단어가 항상 떠올랐다. 여성들을 돕는 일은 목에 가시가 끼인 것 같은 아픔과 답답함을 나에게 선사하였다. 억울한 여성에 대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시스템은 그 어디에도 찾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답답함을 호소할 수 있는 공기도 우리에게겐 허락되지 않는 듯 많은 이들은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누구보다도 힘들고 답답할 여성들은 불안한 한국에서 힘차게 생활해 나가고 있었다. 그런 여성을 보며 항상 답답하다고 불평만 했던 나의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두레방에서 여성들과의 울고 웃던 시절은 계절이 바뀌는 듯 자연스럽게 나에게서 지나갔다. 일이 마무리되지 못한 채 자신의 본국에 돌아간 여성, 불법인 신분으로 일을 하다가 강제로 본국에 돌아간 여성, 불안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본국에 있는 가족을 위해 일을 하고 있는 여성, 아파도 비싼 병원비에 몸을 망치는 여성 등, 항상 힘들기만 했던 그 여성들의 시절은 그렇게 쉽사리 지나가버린 듯하였다.

지금 현재 여성들을 위한 많은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우리를 그렇게 지나가버린 여성들 덕분에 한걸음 더 나아 갈 수 있었던 것 같다. 허둥지둥 했던 과거 3년 전, 나는 매번 새롭게만 느껴지는 두레방일에 중독되어 버렸다. 3년 후 현재 여전히 나는 두레방일에 빠져 여성들을 만나고 있다. 나는 앞으로의 일을 계획 할 수는 없다. 그것은 여성들을 위한 나의 일은 끝이 없기 때문이다. - Tete



두레방을 통해 알아온 여성들의, 그녀들의 이야기를 정리하며 그 동안의 느꼈던 모든 감정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 같다. 나는 항상 안타까움, 아쉬움, 화남, 답답함, 막막함, 기쁨, 즐거움 등 많은 감정들이 뒤엉켜있

었다. 화남 그리고 안타까움의 감정은 한국을 찾아온 여성들의 문제에서 느끼게 되었다. 본국에서 알았던 시스템과는 다른 모습의 한국 시스템에서 배신감과 좌절감을 여성들을 가지게 된다. 나는 그런 사기성 한국시스템에 화가 났다. 또한 여성들은 한국에서 처음 느끼는 부정적 감정들을 호소하고 싶은 마음과 의지를 너무나 크지만 그렇지 못하는 여성들의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꼈다.

미군은 다른 파견지로 떠나면서 여성을 한국에 남겨둔 채 아무런 지원을 하지 않는다. 그런 여성들은 그녀의 자녀와 함께 남겨져 힘겨운 한국 생활을 하게 된다. 불법인 신분으로 공장에서 적은 임금을 받아 아무런 도움의 시스템이 없는 한국의 막막한 길을 그녀의 자녀와 걷고 있는 것이다. 미군과 외국인여성과의 문제는 한국에서는 제3국의 사람들이 겪는 일이라서 한국 내 시스템으로는 뚜렷한 도움을 찾아 줄 수가 없다는 것에 나 또한 막막한 길을 같이 걷고 있었다.

여성들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건강한 노동을 꿈꾸며 한국을 찾는다. 그녀들이 꿈은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니다. 희생적인 여성들의 꿈이었던 한국의 생활은 여전히 여성들에게 행복을 안겨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나는 두레방의 거쳐 간 여성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한국에서 그녀들의 꿈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다른 여성들 또한 한국에서의 꿈을 이룰 수 있었으면 한다. - Yam



상담사례를 정리하면서 여성들의 얼굴과 나누었던 대화들을 다시 떠올려보게 되었다. 내가 상담을 했던 여성들은 모두 아기와 함께 미군 남자친구에게 버림받은 여성들로서 혼자 아기를 키우기 위해 아기 아버지로부터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도움을 요청하였다.

상담을 했던 여성들의 아기 아버지인 미군들은 아기와 여성을 책임지지 않으려 했고, 심지어는 아기가 본인의 아기가 아니라고 의심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때문에 여성들이 아기의 양육비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미국에 있는 자녀지원단체에 연락을 해 보고 미국 대사관에도 도움을 요청해 보았으나, 아기와 아버지가 친자라는 증거가 없이는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아기의 아버지가 여성과 아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육비를 지원받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부대 내의 사회복지사나 아기 아버지의 상사들을 설득하여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유전자 검사는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친자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로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계속 진행 중으로 남아 있다.

앞으로도 한국사회에 미군들이 거주할 것이고, 미군부대 주변에 클럽들이 계속 운영될 것이며, 클럽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있는 한 이러한 피해 사례들은 많이 발생할 것이다. 때문에 앞으로도 문제 해결을 위한 관련 기관들과 끊임없이 연계하고, 부딪히면서 여성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Sue



두레방에서 일을 한 뒤로 정말 많은 여성들을 만나게 되었다. 처음 상담을 하게 된 친구는 필리핀 여성으로 결혼 이주여성이다. 한국 남자와 결혼을 하여 한국으로 이주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아무런 문제없이 결혼 생활을 유지해 나갔다고 한다. 그러나 대개의 필리핀 여성들은 결혼을 하거나 일을 하면 그들의 가족이 몇 명이든 모두를 부양하기 위해 자기 가족에게 생활비를 보내주기도 한다.

하지만 결혼을 하기 전에는 이러한 문화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고 결혼을 하면 문화적인 차이로 생겨난 문제를 극복하여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에 어려워하는 가정들이 많다 이 여성도 이러한 문제로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으며 결국은 생계를 위하여 기지춘까지 오게 되었고 혼자 힘으로 어떻게든 필리핀에 있는 가족들과 자신의 두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직업의 종류만 다를 뿐이지 이들이 차별을 받아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이야기를 나누고 상담과 지원을 할 때마다 이 여성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은 외국인이라는 사람

들의 냉대와 멸시가 아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여성들과의 있었던 일들을 막상 글로 그 상황들을 묘사하려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대부분 여성들을 만나 상담을 하게 되면 타국에서의 생활로 얼마나 지치고 고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느끼는 감정들을 최대한 표현하려 노력 하였으며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많은 여성들이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삶보다는 자신을 위한 주체적인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 EJ

두레방상담사례집 **아메리칸 앨리의 여성들**



역은곳 두레방
퍼낸곳 두레방
퍼낸날 2009년 12월 15일
디자인 및 인쇄 인디엔피

두레방은 1986년 3월 17일 문해림 선생에 의해 의정부 기지촌 여성을 위한 민간단체로서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두레방은 이 땅에서 소외되고 억압된 삶을 살고 있는 기지촌 여성들에게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과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여성들이 서로 도움을 나누고 자신들의 억압된 삶을 해방하여 하나님이 본래 주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